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선진화지수 2009

#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 선진화 국민의식조사 및 2009 국가선진화지수 발표 -



## [진행내용]

3:4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4:10~14:15	축사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사회	정재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4:15~14:45	주제발표 1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 원장/KAIST 경영과학과 교수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발표”
14:45~15:25	주제발표 2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9 국가선진화지수 연구 결과 발표”
15:25~15:35	휴식		
15:35~17:00	지정토론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이명수	자유선진당 자유정책연구원 원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소장
		이벽규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17:00~17:20	폐회/정리		





# 목 차

**개회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1**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발표**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 원장, KAIST 경영과학과 교수)

<b>I. 조사 개요</b>	<b>3</b>
1. 조사 배경	3
2. 조사 목적	4
3. 주요 조사 내용	4
4. 조사 설계	5
5. 응답자 특성 분석	6
<b>II. 조사 결과 요약</b>	<b>7</b>
<b>III. 조사 결과 분석</b>	<b>11</b>
<b>1] 선진화 및 선진국에 대한 이해</b>	<b>11</b>
1.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여부	11
2. 우리나라의 선진국 비진입 이유	14
3. 선진화 관련 비보조상기 단어	16
4. 선진화/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선적 과제	18
<b>2] 주요 계층별 선진화 수준 평가</b>	<b>21</b>
1. 언론인	21
2. 교수	24
3. 정치인	27
4. 공무원	30
5. 기업인	33
6. 노조	36

<b>3</b>	<b>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평가</b>	<b>39</b>
1.	경제적 선진화	39
2.	정치적 선진화	42
3.	사회적 선진화	45
4.	문화적 선진화	48
5.	국제적 선진화	51
6.	전반적 선진화	54

## 주제발표 2 2009 국가선진화지수 연구 결과 발표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교수)

<b>1.</b>	<b>연구배경과 목적</b>	<b>59</b>
1.1	연구배경	59
1.2	연구목적	59
<b>2.</b>	<b>선진화란?</b>	<b>60</b>
2.1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60
2.2	본 연구의 접근법 - 선진화의 구성요소	60
<b>3.</b>	<b>연구 방법론: 국가선진화지수의 측정 방법</b>	<b>61</b>
3.1	연구방법	61
3.2	부문별 평가지표	61
(1)	평가지표: 경제부문	61
(2)	평가지표: 정치부문	62
(3)	평가지표: 사회 부문	63
(4)	평가지표: 문화 부문	63
(5)	평가지표: 국제화 부문	64
3.3	평가 대상국	64
3.4	대표적인 평가지표 소개	65
(1)	E-readiness	65
(2)	Democracy Index	65
(3)	ODA(Official Developmet Assiatance)	66

<b>4. 선진화지수의 결과분석</b>	<b>67</b>
4.1 국가선진화지수 순위	67
(1) 종합순위	67
(2) 종합순위 분석	67
(3) 중분류 순위	68
(4) 전체모델 해석	71
<b>5. 한국의 선진화구조 분석</b>	<b>72</b>
5.1 한국의 5개 부문별 선진화 현황	72
5.2 한국의 10개 부문별 경쟁력 순위 및 변동	73
5.3 OECD와 Non-OECD 국가비교	73
5.4 아시아 ‘4마리 용’의 선진화 비교	74
5.5 한국과 OECD 평균과의 비교	74
5.6 한국의 강약점	75
5.7 선진화지수 연구와 국민의식 설문조사 비교	76
<b>6. 한국에 대한 정책제안 및 결론</b>	<b>76</b>
6.1 한국의 강점강화	76
6.2 한국의 약점보완	77
6.3 중요성의 계산(강점강화)	77
6.4 중요성의 계산(약점강화)	77
6.5 결론	78



## | 개회인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오늘 축사를 해주실 김진현 이사장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이각범 교수님과 문휘창 교수님,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소장님과 원장님으로 계시는 진수희 의원님(한나라당), 이명수 의원님(자유선진당), 최규엽 소장님(민주노동당), 이벽규 소장님(창조한국당),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선진화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단은 매년 종합적 선진화 수준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의 5대 분야별 선진화 수준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해 문휘창교수님의 연구로 개발한 [대한민국 선진화 지수]가 1년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노력에서 어느 분야의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부족한가 등을 확인하여,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책개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전국의 성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계상의 선진화지수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선진화 체감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선진화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진화는 무엇이고, 어느 분야의 선진화가 더 시급한지 등 앞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선진화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2009년 선진화 지수와 함께 선진화국민의식 조사는 선진화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창립세미나 때에는 모든 당의 정책위 의장님들이 참석하여 저희들의 노력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을 넘어서 선진화 실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화를 이루어나갈 청사진과 구체적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각 당의 정책연구소장님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각 당의 생각과 정책을 발표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포지엄이 선진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구상하시고 실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 재단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심포지엄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조선일보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 9월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 세 일

주제발표 1

##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발표

이 각 범

한국미래연구원 원장 / KAIST 경영과학과 교수





## I. 조사 개요

### 1 조사 배경

-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을 맞고 6.25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고, 1963년 일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1995년 1만 달러의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한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1980~90년대의 민주화까지 이루어내는 등 지난 60년간 건국을 거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에 성공함.
- 그러나, 중진국 도약 이후 21세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이 성숙한 사회인 선진국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화 수준, 선진국 진입수준 등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학제적 연구나 객관적이고 과학적 측정방법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선진국 진입국가들의 진입전략과 정책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각 분야의 선진화 정책과 비전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년 9월 설립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2009년 현재 (1) 이념 재정립 사업 (보수와 진보), (2) 갈등의 시대 사회통합, (3) 선제적 정책 이슈 발굴 및 대안 제시, (4)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세미나 등), (5)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올해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선진화 및 선진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주요 사회 계층 및 분야별 선진화에 대한 체감도 평가, 그리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선진화 정책 관련 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실시됨.

## 3 주요 조사 내용

- 선진화 및 선진국에 대한 이해
  - －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여부 및 선진국 비진입 이유
  - － 선진화 관련 비모조 상기 단어
  - － 선진화/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선적 과제
- 주요 계층별 선진화 수준 평가
  - － 언론인/교수/정치인/공무원/기업인/노조
-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평가
  - －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국제적 선진화 수준
  - － 우리나라의 전반적 선진화 수준
-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한 인식
  - －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한 인지도
  - － 한반도선진화재단 설립 목적에 대한 공감도
-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
  - － 거주지역/연령/성별/최종학력/직업/월평균 가구소득/해외여행 경험

## 4 조사 설계

	선진화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①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8월말 현재 만19세 이상 일반 성인남녀</li> </ul>
② 조사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16개 광역시·도(제주도 포함)</li> </ul>
③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국민 : CATI system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li> <li>여론주도층(재단 내부) : 자기기입식 조사</li> </ul>
④ 유효 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국민 : 총 1,000명</li> <li>여론주도층(재단 내부) : 총 40명</li> </ul>
⑤ 허용 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math>\pm 3.10\%p</math></li> </ul>
⑥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li> </ul>
⑦ 응답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인명 전화번호 DB를 활용한 체계적 추출</li> </ul>
⑧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9월 1일 ~ 9월 3일</li> </ul>
⑨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메트릭스</li> </ul>

## 5 응답자 특성 분석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자	(495)	49.5
	여자	(505)	50.5
연령	20대	(205)	20.5
	30대	(219)	21.9
	40대	(228)	22.8
	50대	(161)	16.1
	60세 이상	(187)	18.7
성*연령	20대 남자	(106)	10.6
	20대 여자	(99)	9.9
	30대 남자	(112)	11.2
	30대 여자	(107)	10.7
	40대 남자	(116)	11.6
	40대 여자	(112)	11.2
	50대 남자	(81)	8.1
	50대 여자	(80)	8.0
	60대이상 남자	(80)	8.0
	60대이상 여자	(107)	10.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5)	8.5
	100~199만원	(127)	12.7
	200~299만원	(206)	20.6
	300~399만원	(201)	20.1
	400~499만원	(143)	14.3
	500만원 이상	(178)	17.8
	무응답	(60)	6.0
직업	화이트칼라	(325)	32.5
	블루칼라	(112)	11.2
	(전업)주부	(213)	21.3
	대학(원)생	(67)	6.7
	자영업	(206)	20.6
	무직/기타	(77)	7.7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1,0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18)	11.8
	고졸	(351)	35.1
	대재 이상	(531)	53.1
권역	서울	(212)	21.2
	인천,경기	(275)	27.5
	부산,울산,경남	(162)	16.2
	대구,경북	(108)	10.8
	대전,충청	(99)	9.9
	광주,전라	(103)	10.3
	강원	(31)	3.1
	제주	(10)	1.0
거주 지역	서울	(212)	21.2
	부산	(74)	7.4
	대구	(51)	5.1
	인천	(55)	5.5
	광주	(27)	2.7
	대전	(28)	2.8
	울산	(23)	2.3
	경기	(220)	22.0
	강원	(31)	3.1
	충북	(31)	3.1
	충남	(40)	4.0
	전북	(37)	3.7
	전남	(39)	3.9
	경북	(57)	5.7
	경남	(65)	6.5
해외여행 /생활경험	있음	(493)	49.3
	없음	(507)	50.7

※ 여론주도층은 총 사례수가 40표본에 불과하여, 응답자 특성 분석에 대한 기술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생략함.

## II. 조사 결과 요약

### ① 선진화 및 선진국에 대한 이해

#### 1.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여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53.5%)의 일반국민들이 ‘그렇다’라는 긍정적 견해를 나타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는 46.3%로 조사되어, 일반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 ‘무응답’은 0.2%임.

여론주도층의 경우, ‘그렇다’라는 긍정적 견해가 47.5%,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는 50.0%로 조사되어,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 ‘무응답’은 2.5%임.

#### 2. 우리나라의 선진국 비진입 이유

일반국민 중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견자 46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낮은 국민의식’(28.0%)과 ‘정치적 불안’(26.1%)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미흡’(19.2%), ‘경제력 부족’(10.0%), ‘지역갈등’(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한편, 여론주도층 중 선진국 비진입 의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모든 응답자들(100.0%)이 ‘낮은 국민의식’을 지적하고 있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미흡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지역갈등’(15.0%), ‘경제력 부족’(10.0%), ‘사회복지 미흡’(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3. 선진국 관련 비보조상기 단어

일반국민들의 “선진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보조상기 단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회복지’라는 응답이 58.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51.5%), ‘국민의식’(39.6%), ‘정치적 안정’(7.3%), ‘환경’(2.9%), ‘국제화’(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론주도층에 있어서도 ‘경제’라는 응답이 72.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국민의식’(47.5%), ‘사회복지’(40.0%), ‘환경’(25.0%), ‘국력’(20.0%), ‘미국’(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4. 선진화／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선적 과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진화” 또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경제적 선진화’(1순위 41.1%, 종합 65.7%)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 선진화’(1순위 28.7%, 종합 52.1%), ‘사회적 선진화’(1순위 14.5%, 종합 36.2%), ‘문화적 선진화’(1순위 10.3%, 종합 30.6%), ‘국제적 선진화’(1순위 5.4%, 종합 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선진화 또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적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정치적 선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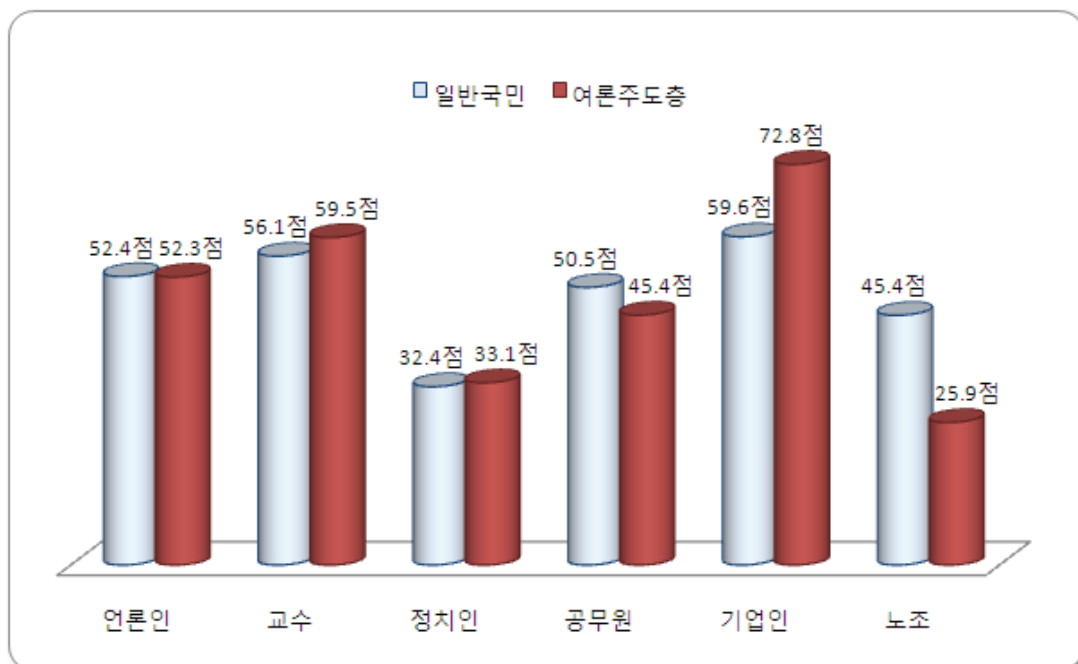
여론주도층의 응답 결과에 있어서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선진화’(1순위 50.0%, 종합 65.0%)를 제시한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선진화’(1순위 27.5%, 종합 55.0%), ‘사회적 선진화’(1순위 12.5%, 종합 52.5%), ‘문화적 선진화’(1순위 7.5%, 종합 17.5%), ‘국제적 선진화’(1순위 0.0%, 종합 5.0%) 순으로 조사됨.

## 2 선진화 수준 평가

### 1. 주요 계층별 선진화 수준 평가

일반국민들의 언론인·교수·정치인·공무원·기업인·노조 등 6개 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알아본 결과, ‘기업인’에 대한 평가가 100점 환산 평균 59.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수”(평균 56.1점), “언론인”(평균 52.4점), “공무원”(평균 50.5점), “노조”(평균 45.4점), “정치인”(평균 32.4점) 순으로 조사됨. 특히,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낸 “정치인” 계층의 경우 5명 중 1명 이상(21.0%)의 일반국민들이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인 ‘0점’과 ‘1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및 정치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신감과 실망감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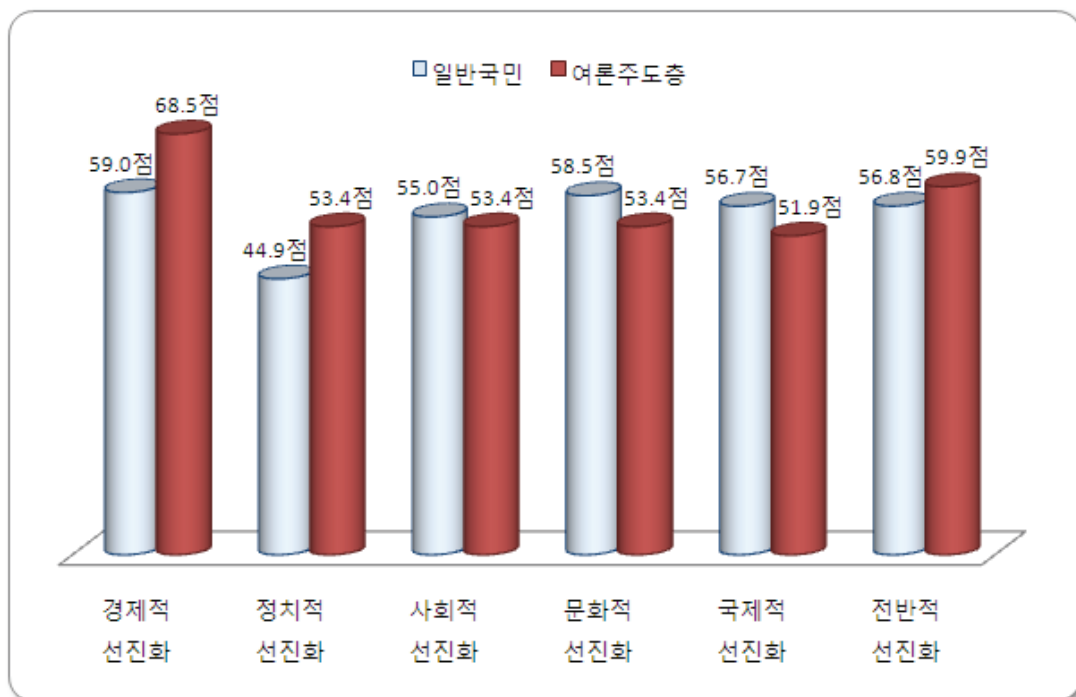
한편, 여론주도층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인’에 대한 평가(평균 72.8점)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수”(평균 59.5점), “언론인”(평균 52.3점) 순으로 조사됨. 또한, “정치인”(평균 33.1점)에 대해서도 일반국민들의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평균 45.4점)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노조”(평균 25.9점) 계층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됨.



## 2.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평가

일반국민들의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선진화’가 평균 59.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선진화 수준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선진화’(평균 58.5점), ‘국제적 선진화’(평균 56.7점), ‘사회적 선진화’(평균 55.0점) 순으로 조사됨. 반면, ‘정치적 선진화’ 수준은 평균 44.9점으로 조사되어, 주요 분야 중 가장 낮은 선진화 수준을 보이고 있음.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적 측면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선진화”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56.8점(100점 만점 기준)의 선진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여론주도층 역시 ‘경제적 선진화’에 대한 평가가 평균 68.5점으로 주요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치적 선진화’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53.4점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정치적 선진화’의 평가 기준을 정치인 등 내부적 요인이 아닌 민주화, 자유화 등 외부적 요인들을 종합적인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한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선진화”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59.9점(100점 만점 기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III. 조사 결과 분석

#### 1 선진화 및 선진국에 대한 이해

##### 1.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여부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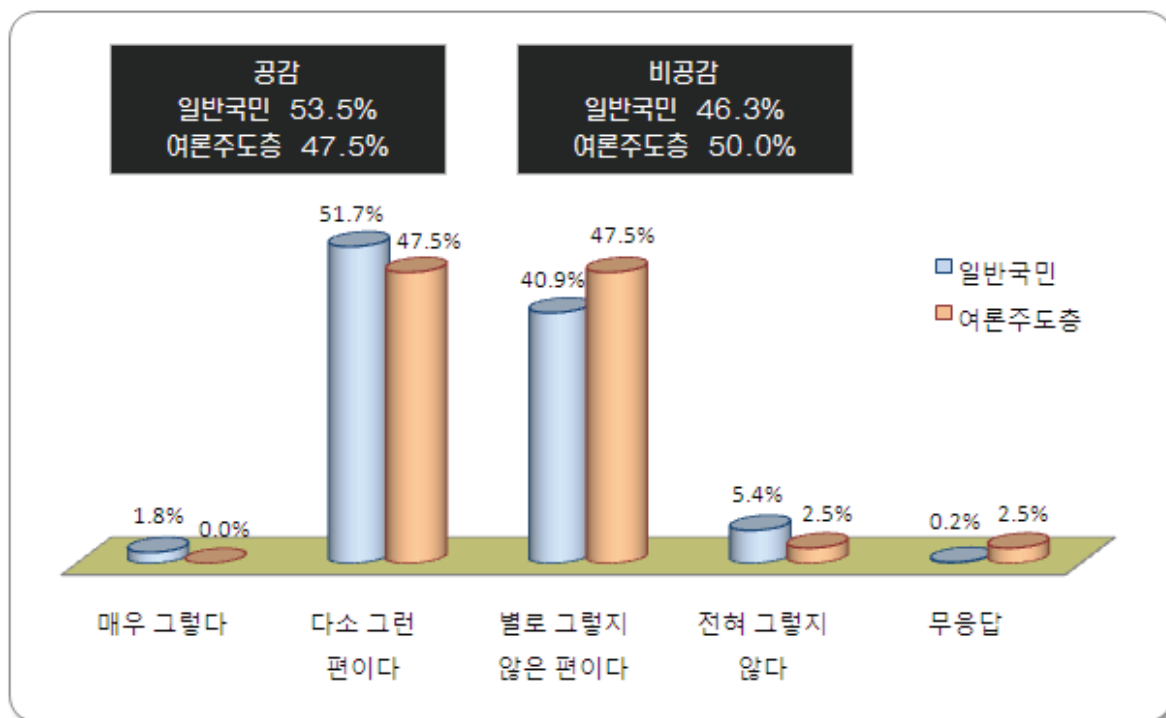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53.5%)의 일반 국민들이 ‘그렇다’라는 긍정적 견해(매우 그렇다 1.8%, 다소 그런 편이다 51.7%)를 나타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는 46.3%(전혀 그렇지 않다 5.4%,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9%)로 조사되어, 일반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 ‘무응답’은 0.2%임.
- 여론주도층의 경우, ‘그렇다’라는 긍정적 견해가 47.5%(매우 그렇다 0.0%, 다소 그런 편이다 47.5%),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는 50.0%(전혀 그렇지 않다 2.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5%)로 조사되어,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 ‘무응답’은 2.5%임.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2.6930	4.35887	.13784
여론주도층	39	2.5385	.55470	.08882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135	.713	.221	1037	.825	.1545	.69852	-1.21613	1.5252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942	361.630	.347	.1545	.16398	-.16793	.47701

[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여부 ]



### 응답자 특성 분석

- “그렇다”라는 긍정적 견해는 ‘여성’(58.0%), ‘20대’(59.5%) 및 ‘60대 이상 여성’(76.6%), ‘서울’(64.6%) 거주자, ‘중졸 이하’(66.1%), ‘주부’(66.2%) 및 ‘학생’(64.2%), ‘100만원 미만’(63.5%) 소득계층, 그리고 ‘한선재단 인지자’(57.9%) 및 ‘한선재단 설립목적 공감자’(58.1%)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는 ‘남성’(51.1%), ‘40대 남성’(59.5%)과 ‘50대 남성’(60.5%), ‘부산’(67.6%) 및 ‘대구’(51.0%), ‘강원’(58.1%), ‘전남’(61.5%) 거주자, ‘자영업자’(60.2%), 그리고 ‘한선재단 설립목적 비공감자’(51.7%) 계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사례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긍정	부정	계
전 체		(1000)	1.8	51.7	40.9	5.4	0.2	53.5	46.3	100.0
성별	남자	(495)	2.4	46.5	43.4	7.7	0.0	48.9	51.1	100.0
	여자	(505)	1.2	56.8	38.4	3.2	0.4	58.0	41.6	100.0
연령	20대	(205)	3.9	55.6	36.1	4.4	0.0	59.5	40.5	100.0
	30대	(219)	1.4	48.9	43.4	5.9	0.5	50.2	49.3	100.0
	40대	(228)	0.4	43.0	49.6	7.0	0.0	43.4	56.6	100.0
	50대	(161)	1.9	46.0	45.3	6.2	0.6	47.8	51.6	100.0
	60대 이상	(187)	1.6	66.3	28.9	3.2	0.0	67.9	32.1	100.0
권역	서울	(212)	3.8	60.8	30.7	4.2	0.5	64.6	34.9	100.0
	인천,경기	(275)	1.1	53.1	37.8	7.6	0.4	54.2	45.5	100.0
	부산,울산,경남	(162)	0.6	43.2	53.1	3.1	0.0	43.8	56.2	100.0
	대구,경북	(108)	0.9	49.1	43.5	6.5	0.0	50.0	50.0	100.0
	대전,충청	(99)	1.0	53.5	42.4	3.0	0.0	54.5	45.5	100.0
	광주,전라	(103)	3.9	46.6	45.6	3.9	0.0	50.5	49.5	100.0
	강원	(31)	0.0	41.9	45.2	12.9	0.0	41.9	58.1	100.0
	제주	(10)	0.0	50.0	40.0	10.0	0.0	50.0	5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18)	1.7	64.4	29.7	4.2	0.0	66.1	33.9	100.0
	고졸	(351)	0.9	49.3	45.6	4.0	0.3	50.1	49.6	100.0
	대재 이상	(531)	2.4	50.5	40.3	6.6	0.2	52.9	46.9	100.0
직업	화이트칼라	(325)	2.2	50.5	43.1	4.3	0.0	52.6	47.4	100.0
	블루칼라	(112)	1.8	52.7	36.6	8.9	0.0	54.5	45.5	100.0
	(전업)주부	(213)	1.4	64.8	31.5	1.9	0.5	66.2	33.3	100.0
	대학(원)생	(67)	4.5	59.7	31.3	4.5	0.0	64.2	35.8	100.0
	자영업	(206)	0.0	39.3	50.5	9.7	0.5	39.3	60.2	100.0
	무직/기타	(77)	3.9	45.5	46.8	3.9	0.0	49.4	50.6	100.0

## 2. 우리나라의 선진국 비진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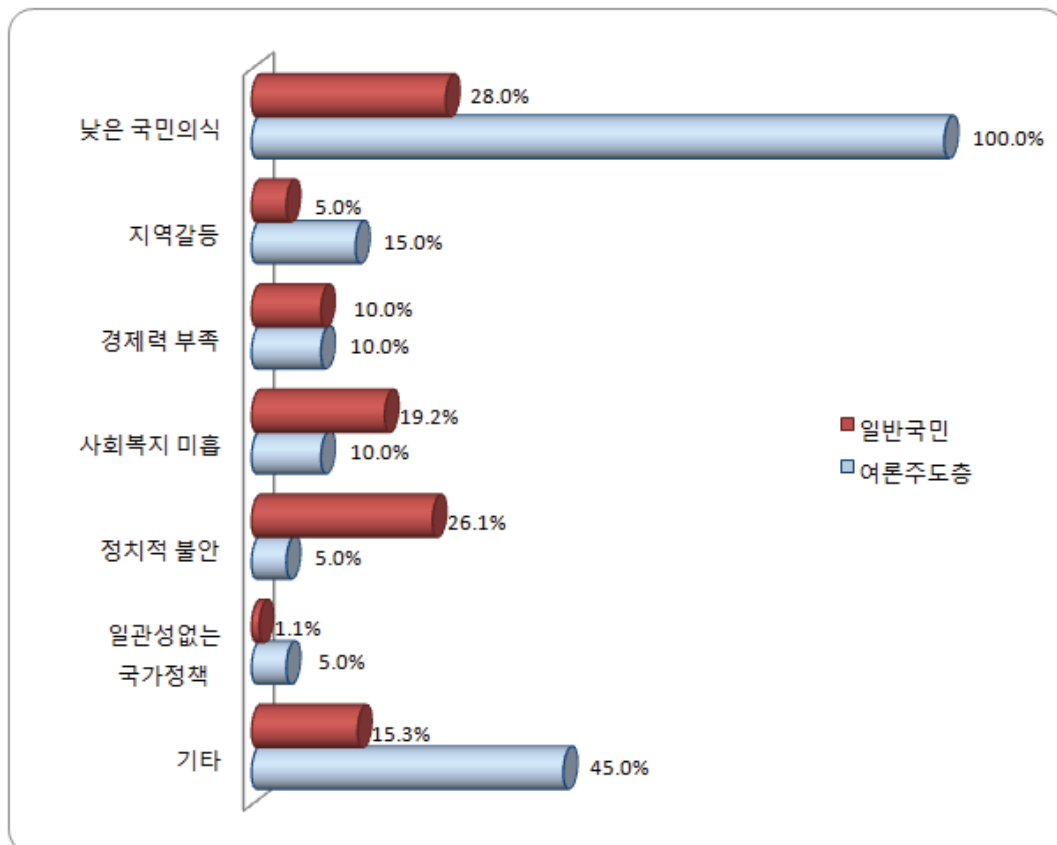
문. (선진국 비진입 견해자 대상)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 일반국민 중 선진국 비진입 의견자 46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낮은 국민의식'(28.0%)과 '정치적 불안'(26.1%)을 지정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미흡'(19.2%), '경제력 부족'(10.0%), '지역갈등'(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한편, 여론주도층 중 선진국 비진입 의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모든 응답자들(100.0%)이 '낮은 국민의식'을 지적하고 있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미흡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지역갈등'(15.0%), '경제력 부족'(10.0%), '사회복지 미흡'(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선진국 비진입 이유(중복응답) ]



응답자 특성 분석

- “정치적 불안”을 지적한 의견은 ‘남성’(30.0%), ‘50대’(30.1%), ‘40대 남성’(34.8%) 및 ‘50대 남성’(34.7%), ‘부산/울산/경남’(33.0%) 거주자, ‘중졸 이하’(35.0%), ‘자영업자’(34.7%), 그리고 ‘100만원 미만’(29.0%) 및 ‘500만원 이상’(29.1%)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낮은 국민의식”이라는 의견은 ‘20대 남성’(31.0%), ‘광주/전라’(27.5%)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27.9%) 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 미흡”을 제시한 의견은 ‘20대’(25.3%), ‘20대 여성’(31.7%) 및 ‘40대 여성’(28.3%), ‘서울’(33.8%)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500만원 이상’(24.1%) 소득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음.

		사례 수	정치적 불안	낮은 국민의식	사회복지 미흡	빈부격차 심화	질서의식 부족	사회적불안정	경제력부족	지역갈등	민주화 미흡	군사력의 부족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	남북분단	모름/무응답	기타	계
전 체		(463)	24.2	22.0	19.2	7.6	6.0	2.6	2.4	2.4	1.9	1.3	1.1	0.2	6.9	6.9	100.0
성 별	남자	(253)	30.0	22.9	15.4	7.9	5.5	3.2	1.2	2.8	2.0	1.2	1.6	0.4	3.6	8.3	100.0
	여자	(210)	17.1	21.0	23.8	7.1	6.7	1.9	3.8	1.9	1.9	1.4	0.5	0.0	11.0	5.2	100.0
연 령	20대 이하	(83)	20.5	22.9	25.3	6.0	2.4	2.4	1.2	1.2	0.0	3.6	0.0	0.0	10.8	6.0	100.0
	30대	(108)	19.4	23.1	18.5	8.3	5.6	2.8	1.9	1.9	4.6	0.0	0.0	0.9	7.4	8.3	100.0
	40대	(129)	25.6	23.3	20.9	9.3	7.8	2.3	2.3	1.6	1.6	0.8	0.0	0.0	6.2	5.4	100.0
	50대	(83)	30.1	21.7	13.3	7.2	7.2	3.6	3.6	4.8	0.0	0.0	2.4	0.0	4.8	8.4	100.0
	60세 이상	(60)	26.7	16.7	16.7	5.0	6.7	1.7	3.3	3.3	3.3	3.3	5.0	0.0	5.0	6.7	100.0
권 역	서울	(74)	16.2	17.6	33.8	6.8	6.8	1.4	2.7	2.7	0.0	1.4	1.4	0.0	5.4	4.1	100.0
	인천,경기	(125)	26.4	21.6	20.0	11.2	4.0	1.6	0.8	2.4	1.6	1.6	0.0	0.8	4.8	5.6	100.0
	부산,울산,경남	(91)	33.0	23.1	8.8	4.4	2.2	5.5	3.3	3.3	2.2	1.1	2.2	0.0	7.7	12.1	100.0
	대구,경북	(54)	20.4	20.4	16.7	9.3	3.7	0.0	1.9	1.9	7.4	0.0	1.9	0.0	14.8	7.4	100.0
	대전,충청	(45)	17.8	20.0	13.3	11.1	24.4	4.4	4.4	0.0	0.0	0.0	0.0	0.0	11.1	4.4	100.0
	광주,전라	(51)	23.5	27.5	19.6	3.9	5.9	2.0	3.9	3.9	2.0	3.9	0.0	0.0	2.0	7.8	100.0
	강원	(18)	33.3	27.8	22.2	0.0	0.0	0.0	0.0	0.0	0.0	0.0	5.6	0.0	5.6	5.6	100.0
학 령	중졸 이하	(40)	35.0	12.5	15.0	7.5	0.0	5.0	2.5	5.0	2.5	2.5	2.5	0.0	5.0	10.0	100.0
	고졸	(174)	21.8	19.5	19.0	9.8	9.2	1.7	2.3	1.7	1.1	1.7	1.7	0.0	4.6	12.6	100.0
	대재 이상	(249)	24.1	25.3	20.1	6.0	4.8	2.8	2.4	2.4	2.4	0.8	0.4	0.4	8.8	2.4	100.0
직 업	화이트칼라	(154)	22.7	27.9	18.8	5.2	9.1	1.9	1.3	2.6	1.3	0.0	0.6	0.0	8.4	3.2	100.0
	블루칼라	(51)	21.6	5.9	23.5	13.7	2.0	2.0	0.0	0.0	3.9	3.9	2.0	0.0	7.8	13.7	100.0
	(전업)주부	(71)	16.9	23.9	23.9	5.6	11.3	0.0	5.6	1.4	2.8	2.8	1.4	0.0	4.2	5.6	100.0
	대학(원)생	(24)	8.3	33.3	25.0	4.2	0.0	0.0	0.0	4.2	0.0	8.3	0.0	0.0	16.7	0.0	100.0
	자영업	(124)	34.7	18.5	13.7	8.9	2.4	6.5	3.2	1.6	2.4	0.0	1.6	0.8	4.0	10.5	100.0
	무직/기타	(39)	23.1	20.5	20.5	10.3	5.1	0.0	2.6	7.7	0.0	0.0	0.0	0.0	7.7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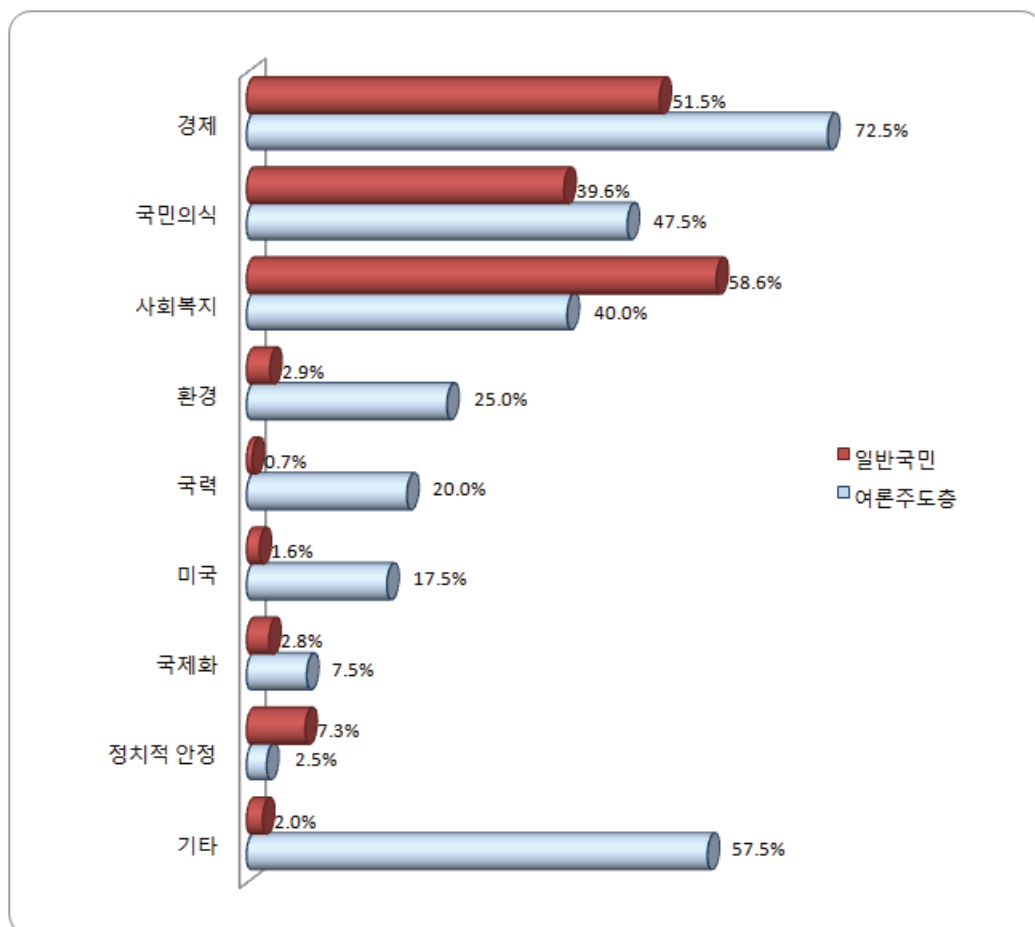
### 3. 선진화 관련 비보조상기 단어

문. 선생님께서는 “선진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진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보조상기 단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회복지’라는 응답이 58.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51.5%), ‘국민의식’(39.6%), ‘정치적 안정’(7.3%), ‘환경’(2.9%), ‘국제화’(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론주도층의 경우 ‘경제’라는 응답이 72.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국민의식’(47.5%), ‘사회복지’(40.0%), ‘환경’(25.0%), ‘국력’(20.0%), ‘미국’(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선진화 관련 비보조상기 단어(중복응답) ]



### 응답자 특성 분석

- “경제력”이라는 의견은 ‘30대 여성’(42.1%), ‘50대 남성’(46.9%), ‘서울’(43.9%) 및 ‘전북’(45.9%), ‘경북’(47.4%), ‘경남’(47.7%) 거주자, ‘화이트칼라’(42.5%)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복지국가”라는 응답은 ‘20대’(37.1%)와 ‘30대’(40.6%), ‘40대 남성’(40.5%), ‘대구’(41.2%) 및 ‘경기’(40.0%), ‘충남’(37.5%), ‘경남’(38.5%) 거주자, 학력이 높을 수록, ‘화이트칼라’(38.2%)와 ‘학생’(38.8%) 계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문화의식”을 제시한 의견은 ‘40대 여성’(23.2%)과 ‘부산/울산/경남’(21.0%) 거주자 계층에서, “사회복지”라는 의견은 ‘40대’(17.1%)와 ‘50대 여성’(23.8%), ‘대구’(27.5%) 및 ‘전북’(21.6%) 거주자, 학력이 낮을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음.

		사 례 수	경 제 력	복 지 국 가	문 화 의 식	사 회 복 지	국 민 의 식	기 술 력	정 치 적 안 정	법 질 서 유 지	교 육 제 도	살 기 좋 은 나 라	환 경	국 제 화	경 제 적 안 정	민 주 주 의	의 료 혜 택	평 등	미 국	빈 부 격 차 해 소	발 전	도 덕 성	여 가 생 활	자 유
성 별	전 체	(1000)	37.4	30.2	15.2	12.6	9.6	8.5	7.3	6.7	6.3	6.3	2.9	2.8	2.4	1.9	1.9	1.7	1.6	1.6	1.6	1.5	1.3	1.0
	남자	(495)	39.2	33.3	14.3	11.5	10.3	8.3	10.1	7.3	6.3	5.1	1.8	2.4	2.4	2.6	1.6	1.8	1.8	1.6	2.2	1.8	1.8	1.0
	여자	(505)	35.6	27.1	16.0	13.7	8.9	8.7	4.6	6.1	6.3	7.5	4.0	3.2	2.4	1.2	2.2	1.6	1.4	1.6	1.0	1.2	0.8	1.0
연 령	20대	(205)	38.0	37.1	12.2	8.8	4.9	15.6	7.3	5.4	5.9	2.0	3.9	2.9	2.0	1.5	0.5	2.0	4.9	1.0	2.4	1.5	1.0	1.5
	30대	(219)	40.6	40.6	14.6	9.6	8.2	4.6	9.1	3.2	7.8	7.8	3.2	2.7	1.8	2.3	3.2	3.2	0.0	1.8	1.4	0.9	1.8	0.5
	40대	(228)	39.5	33.3	19.3	17.1	11.0	5.3	7.0	8.3	5.7	7.0	3.1	0.9	3.5	2.6	3.1	0.4	0.4	2.2	1.8	1.3	0.9	1.3
	50대	(161)	41.6	25.5	18.0	18.0	14.3	8.1	8.1	8.1	8.7	5.6	1.9	3.7	1.2	2.5	0.6	0.6	0.6	0.6	0.6	2.5	2.5	1.2
	60대 이상	(187)	26.7	10.7	11.8	10.2	10.7	9.6	4.8	9.1	3.7	9.1	2.1	4.3	3.2	0.5	1.6	2.1	2.1	2.1	1.6	1.6	0.5	0.5
권 역	서울	(212)	43.9	34.4	17.5	16.5	7.1	8.5	7.5	9.9	3.3	3.8	1.9	6.6	0.9	3.3	1.9	1.9	1.9	0.5	2.4	1.9	0.9	0.9
	인천,경기	(275)	33.8	36.7	15.3	12.0	7.6	9.5	8.4	4.7	9.1	9.1	4.0	2.2	5.1	1.8	1.8	1.1	2.9	2.9	1.1	1.5	1.1	1.1
	부산,울산,경남	(162)	34.6	26.5	21.0	10.5	13.0	6.8	5.6	4.9	4.3	10.5	2.5	1.9	1.2	2.5	0.0	1.9	1.2	1.2	0.0	2.5	0.0	2.5
	대구,경북	(108)	39.8	34.3	7.4	15.7	7.4	13.0	2.8	10.2	6.5	0.9	2.8	0.0	0.9	0.9	4.6	0.0	0.0	0.9	2.8	0.9	2.8	0.0
	대전,충청	(99)	38.4	27.3	12.1	4.0	12.1	8.1	6.1	7.1	6.1	4.0	3.0	2.0	0.0	0.0	2.0	2.0	1.0	1.0	5.1	0.0	2.0	1.0
	광주,전라	(103)	39.8	7.8	12.6	14.6	11.7	7.8	12.6	3.9	3.9	6.8	2.9	2.9	3.9	1.9	0.0	4.9	1.0	2.9	0.0	1.0	2.9	0.0
	강원	(31)	19.4	25.8	12.9	12.9	22.6	0.0	9.7	6.5	12.9	3.2	3.2	0.0	3.2	0.0	9.7	0.0	0.0	0.0	0.0	3.2	0.0	0.0
	제주	(10)	40.0	50.0	20.0	10.0	0.0	0.0	0.0	10.0	3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 력	중졸 이하	(118)	33.9	11.9	5.9	16.1	11.0	4.2	8.5	5.9	5.1	10.2	0.0	1.7	1.7	0.8	1.7	4.2	2.5	3.4	0.0	0.8	0.0	0.8
	고졸	(351)	34.8	24.8	15.7	13.1	9.4	7.1	6.8	5.7	6.0	7.7	4.3	4.0	3.1	1.1	2.0	0.9	0.6	1.7	1.7	1.1	0.3	0.6
	대재 이상	(531)	39.9	37.9	16.9	11.5	9.4	10.4	7.3	7.5	6.8	4.5	2.6	2.3	2.1	2.6	1.9	1.7	2.1	1.1	1.9	1.9	2.3	1.3
직 업	화이트칼라	(325)	42.5	38.2	17.5	12.3	9.2	8.3	8.6	6.5	7.1	4.6	3.7	3.7	2.2	3.1	0.9	1.5	0.6	1.5	0.9	0.9	1.8	0.6
	블루칼라	(112)	35.7	21.4	13.4	6.3	2.7	6.3	3.6	3.6	2.7	6.3	3.6	1.8	2.7	0.9	1.8	0.9	0.9	5.4	0.9	0.0	0.0	0.9
	(전업)주부	(213)	31.5	21.6	16.4	15.5	10.8	9.4	3.8	7.0	8.5	9.4	2.3	5.2	2.3	0.0	3.8	1.4	1.4	0.9	1.9	0.9	1.9	0.5
	대학(원)생	(67)	40.3	38.8	6.0	10.4	4.5	14.9	4.5	6.0	7.5	3.0	1.5	3.0	0.0	1.5	0.0	1.5	9.0	0.0	4.5	1.5	1.5	3.0
	자영업	(206)	37.4	31.6	15.0	15.5	13.1	7.3	9.2	7.8	6.3	6.8	1.5	0.5	1.9	2.9	2.4	1.9	0.5	1.0	1.9	2.4	0.5	1.9
	무직/기타	(77)	32.5	22.1	13.0	9.1	13.0	7.8	14.3	9.1	1.3	6.5	5.2	0.0	6.5	1.3	1.3	3.9	3.9	1.3	1.3	5.2	1.3	0.0

\* 1.0% 이상 상위 응답 기준

#### 4. 선진화 /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선적 과제

문. 선생님께서는 “선진화” 또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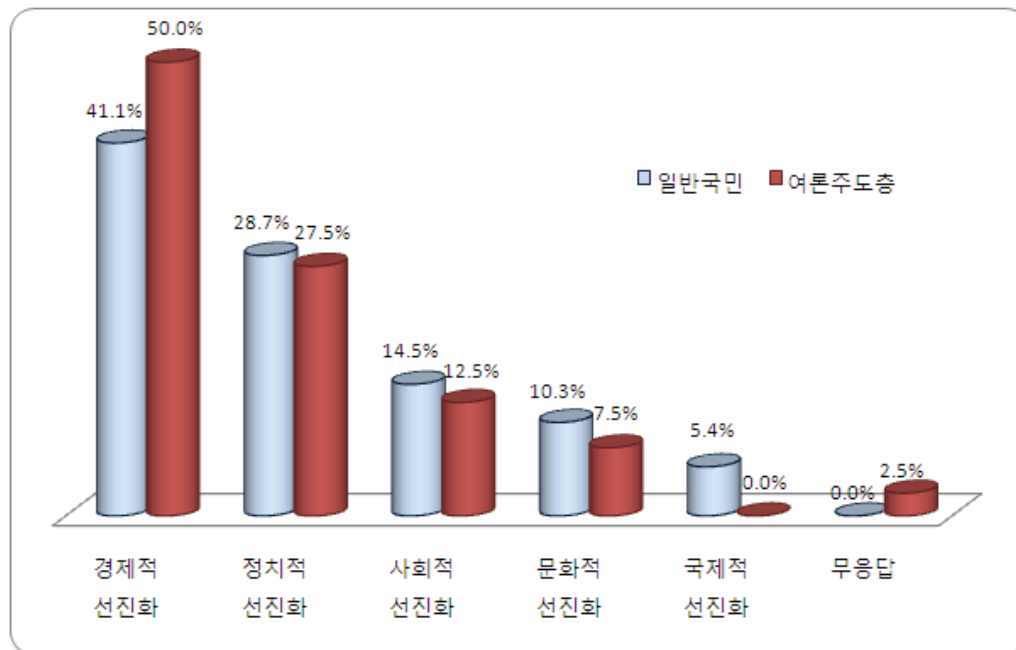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진화” 또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경제적 선진화’(1순위 41.1%, 종합 65.7%)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 선진화’(1순위 28.7%, 종합 52.1%), ‘사회적 선진화’(1순위 14.5%, 종합 36.2%), ‘문화적 선진화’(1순위 10.3%, 종합 30.6%), ‘국제적 선진화’(1순위 5.4%, 종합 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론주도층의 응답 결과에 있어서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선진화’(1순위 50.0%, 종합 65.0%)를 제시한 의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선진화’(1순위 27.5%, 종합 55.0%), ‘사회적 선진화’(1순위 12.5%, 종합 52.5%), ‘문화적 선진화’(1순위 7.5%, 종합 17.5%), ‘국제적 선진화’(1순위 0.0%, 종합 5.0%)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2.1020	1.20210	.03801
여론주도층	39	1.7692	.95866	.15351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2.286	.131	1.707	1037	.088	.3328	.19489	-.04966	.7152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104	42.797	.041	.3328	.15815	.01380	.65174



〔 선진화 /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선적 과제 - 1순위 기준 〕



### 응답자 특성 분석

- “경제적 선진화”를 제시한 의견(1순위 기준)은 ‘여성’(45.5%), ‘30대 여성’(45.8%) 및 ‘40대 여성’(50.0%), ‘50대 여성’(53.8%), ‘서울’(47.6%) 거주자, ‘주부’(46.0%), ‘100만원 미만’(47.1%)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정치적 선진화”라는 의견은 ‘남성’(32.5%), ‘30대 남성’(38.4%), ‘60대 이상 남성’(35.0%), ‘부산’(39.2%) 및 ‘대구’(39.2%), ‘인천’(34.5%), ‘강원’(35.5%), ‘충북’(35.5%) 거주자, 학력이 낮을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사회적 선진화” 제시 의견은 ‘40대 남성’(19.8%), ‘60대 이상 여성’(19.6%), ‘경북’(19.3%) 거주자에서, “문화적 선진화”라는 의견은 ‘20대 여성’(16.2%)과 ‘전북’(24.3%) 및 ‘전남’(20.5%) 거주자에서, 그리고 “국제적 선진화” 의견은 ‘500만원 이상’(9.6%) 고소득 계층에서 높았음.

		사례수	경제적 선진화	정치적 선진화	사회적 선진화	문화적 선진화	국제적 선진화	계
■전체■		(1000)	41.1	28.7	14.5	10.3	5.4	100.0
성별	남자	(495)	36.6	32.5	16.0	8.9	6.1	100.0
	여자	(505)	45.5	25.0	13.1	11.7	4.8	100.0
연령	20대	(205)	43.4	23.4	12.2	12.7	8.3	100.0
	30대	(219)	37.0	32.9	16.0	9.1	5.0	100.0
	40대	(228)	44.7	26.8	14.5	8.8	5.3	100.0
	50대	(161)	42.2	30.4	14.9	8.7	3.7	100.0
	60대 이상	(187)	38.0	30.5	15.0	12.3	4.3	100.0
권역	서울	(212)	47.6	21.7	15.6	10.4	4.7	100.0
	인천,경기	(275)	41.5	30.2	15.6	6.9	5.8	100.0
	부산,울산,경남	(162)	39.5	34.0	11.7	10.5	4.3	100.0
	대구,경북	(108)	39.8	29.6	15.7	9.3	5.6	100.0
	대전,충청	(99)	41.4	31.3	9.1	13.1	5.1	100.0
	광주,전라	(103)	31.1	27.2	17.5	17.5	6.8	100.0
	강원	(31)	32.3	35.5	16.1	9.7	6.5	100.0
	제주	(10)	60.0	10.0	10.0	10.0	1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18)	41.5	32.2	12.7	10.2	3.4	100.0
	고졸	(351)	39.0	30.5	14.8	9.7	6.0	100.0
	대재 이상	(531)	42.4	26.7	14.7	10.7	5.5	100.0
직업	화이트칼라	(325)	43.7	26.5	13.2	11.1	5.5	100.0
	블루칼라	(112)	39.3	30.4	13.4	11.6	5.4	100.0
	(전업)주부	(213)	46.0	21.6	16.0	11.7	4.7	100.0
	대학(원)생	(67)	44.8	23.9	19.4	4.5	7.5	100.0
	자영업	(206)	35.9	35.0	16.5	8.3	4.4	100.0
	무직/기타	(77)	29.9	42.9	7.8	11.7	7.8	100.0

## 2 주요 계층별 선진화 수준 평가

### 1. 언론인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화 수준이 매우 높으면 10점, 매우 낮으면 0점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로 선진화 수준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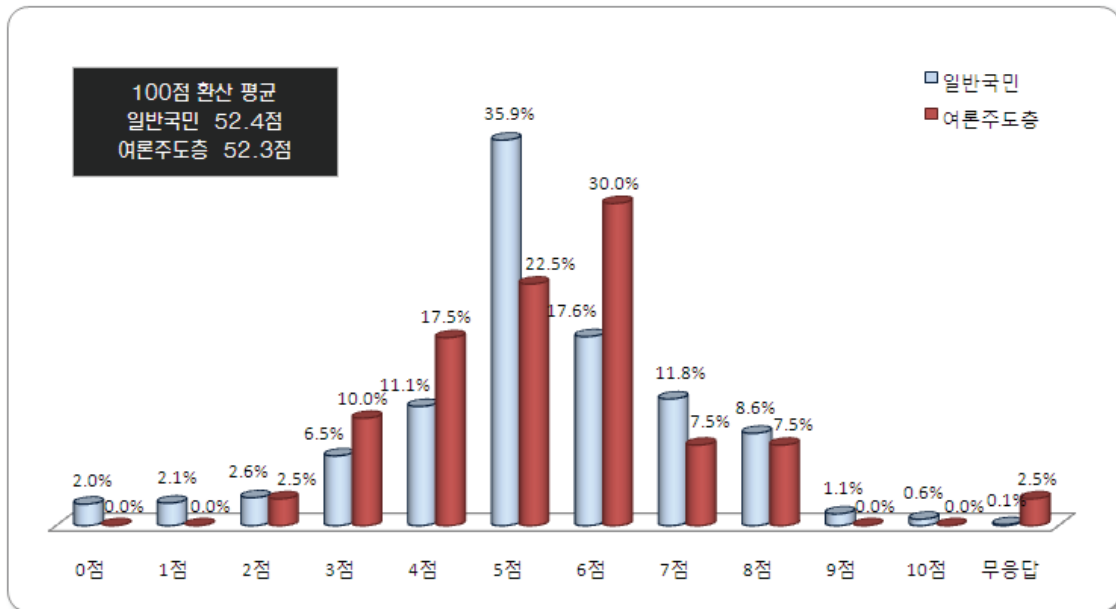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주요 사회계층 중 “언론인”의 선진화 수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평가를 알아본 결과, 100점 환산 기준 평균 52.4점(10점 평균 5.2점)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선진화 수준이라는 인식을 나타냄. 세부적인 평가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5점’이라는 의견이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점’(17.6%), ‘7점’(11.8%), ‘4점’(11.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경우, “언론인”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52.3점(10점 평균 5.2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인 평가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6점’이라는 의견이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점’(22.5%), ‘4점’(17.5%), ‘3점’(10.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3350	3.45322	.10920
여론주도층	39	5.2308	1.45930	.23367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221	.638	.188	1037	.851	.1042	.55509	-.98500	1.19346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04	56.307	.688	.1042	.25793	-.41241	.62087

[ 주요 사회계층별 선진화 수준 — 언론인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2.4점) 이상”의 평가는 ‘60대 이상’(57.0점), ‘충북’(56.8점) 및 ‘충남’(58.0점), ‘전북’(57.3점) 거주자,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56.1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평균(52.4점) 이하”의 평가는 ‘40대 남성’(47.7점), ‘대구’(48.6점) 거주자, ‘학생’(49.4점) 및 ‘자영업자’(48.0점) 계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사 례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무 응 답	10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 체		(1000)	2.0	2.1	2.6	6.5	11.1	35.9	17.6	11.8	8.6	1.1	0.6	0.1	5.2	52.4
성 별	남자	(495)	3.2	2.6	2.6	7.9	12.1	32.9	18.0	12.5	6.7	1.2	0.2	0.0	5.1	50.6
	여자	(505)	0.8	1.6	2.6	5.1	10.1	38.8	17.2	11.1	10.5	1.0	1.0	0.2	5.4	54.1
연 령	20대	(205)	1.0	2.4	3.4	8.8	14.6	34.1	13.7	14.1	7.3	0.5	0.0	0.0	5.1	50.9
	30대	(219)	2.3	2.3	3.7	5.5	10.0	34.2	18.3	13.2	7.8	0.9	1.8	0.0	5.3	52.8
	40대	(228)	2.6	3.9	1.3	7.5	12.7	33.8	17.5	13.2	6.6	0.9	0.0	0.0	5.1	50.7
	50대	(161)	3.1	1.2	2.5	7.5	8.7	41.6	18.6	8.7	7.5	0.0	0.6	0.0	5.1	51.0
	60대 이상	(187)	1.1	0.0	2.1	3.2	8.6	37.4	20.3	8.6	14.4	3.2	0.5	0.5	5.7	57.0
권 역	서울	(212)	1.9	2.4	4.7	7.1	10.8	34.9	18.4	12.7	4.7	1.4	0.9	0.0	5.1	51.0
	인천,경기	(275)	1.8	1.8	2.2	6.9	14.9	33.8	16.7	9.8	9.8	1.5	0.7	0.0	5.2	52.4
	부산,울산,경남	(162)	1.9	1.9	0.6	4.9	14.8	40.7	16.0	11.7	5.6	0.6	0.6	0.6	5.2	51.9
	대구,경북	(108)	1.9	1.9	4.6	9.3	4.6	38.9	21.3	8.3	8.3	0.9	0.0	0.0	5.1	51.3
	대전,충청	(99)	3.0	4.0	2.0	3.0	7.1	30.3	16.2	17.2	14.1	2.0	1.0	0.0	5.6	55.6
	광주,전라	(103)	2.9	1.0	1.0	7.8	7.8	37.9	20.4	9.7	11.7	0.0	0.0	0.0	5.3	53.0
	강원	(31)	0.0	3.2	3.2	6.5	9.7	32.3	12.9	29.0	3.2	0.0	0.0	0.0	5.4	53.5
	제주	(10)	0.0	0.0	0.0	0.0	0.0	50.0	10.0	0.0	40.0	0.0	0.0	0.0	6.3	63.0
학 력	중졸 이하	(118)	2.5	0.0	0.8	4.2	9.3	39.8	21.2	9.3	10.2	0.8	0.8	0.8	5.5	54.5
	고졸	(351)	1.4	2.0	2.8	4.6	9.1	39.0	16.0	10.8	12.5	1.4	0.3	0.0	5.4	54.0
	대재 이상	(531)	2.3	2.6	2.8	8.3	12.8	33.0	17.9	13.0	5.6	0.9	0.8	0.0	5.1	50.9
직 업	화이트칼라	(325)	0.9	1.2	1.8	7.1	13.2	33.2	21.5	13.5	5.8	0.6	0.9	0.0	5.3	53.1
	블루칼라	(112)	3.6	2.7	1.8	7.1	8.0	33.0	15.2	12.5	11.6	3.6	0.9	0.0	5.4	53.8
	(전업)주부	(213)	0.5	2.3	2.8	3.8	5.6	39.0	16.4	10.8	16.9	1.4	0.0	0.5	5.6	56.1
	대학(원)생	(67)	1.5	0.0	6.0	9.0	16.4	41.8	6.0	11.9	6.0	1.5	0.0	0.0	4.9	49.4
	자영업	(206)	4.9	4.4	3.4	6.8	13.1	33.5	17.0	11.2	4.9	0.5	0.5	0.0	4.8	48.0
	무직/기타	(77)	1.3	0.0	1.3	7.8	11.7	44.2	19.5	7.8	5.2	0.0	1.3	0.0	5.2	51.9

## 2. 교수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화 수준이 매우 높으면 10점, 매우 낮으면 0점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로 선진화 수준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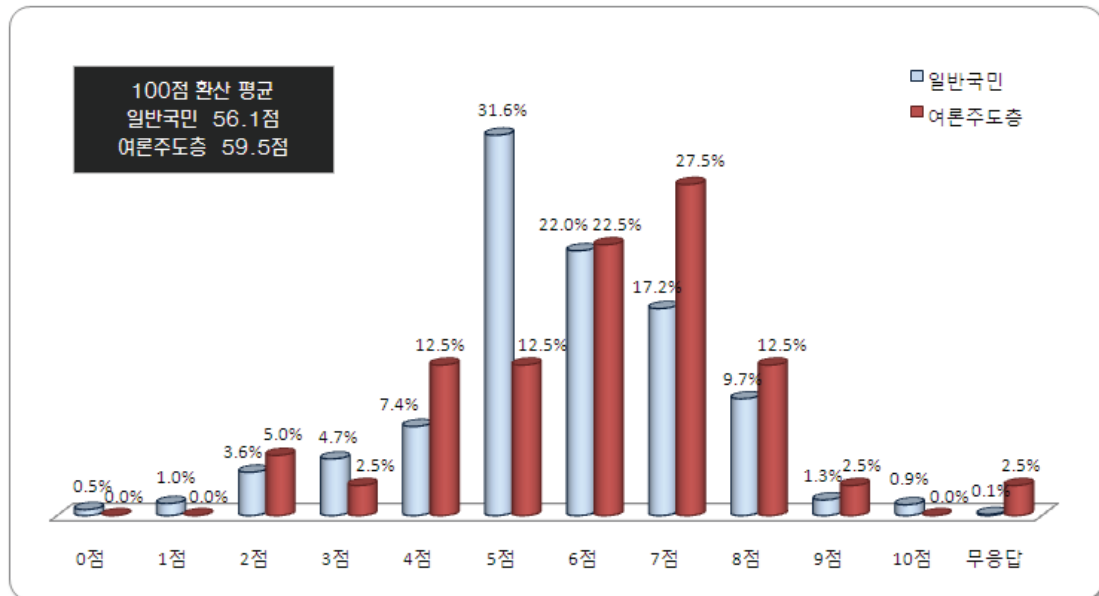
### 조사결과

-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회계층 중 “교수” 계층의 선진화 수준 평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0점 환산 기준 평균 56.1점(10점 평균 5.6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5점’이라는 평가가 31.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점’(22.0%), ‘7점’(17.2%), ‘8점’(9.7%), ‘4점’(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론주도층의 경우, “교수” 계층에 대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59.5점(10점 평균 5.9점)의 선진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7점’이라는 평가가 27.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점’(22.5%), ‘8점’(12.5%), ‘5점’(12.5%), ‘4점’(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7050	3.38163	.10694
여론주도층	39	5.9487	1.66936	.26731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020	.886	-.448	1037	.654	-.2437	.54425	-1.31167	.82424
Equal variances not assumed			-.847	51.086	.401	-.2437	.28791	-.82169	.33426

〔 주요 사회계층별 선진화 수준 — 교수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6.1점) 이상”의 평가는 ‘50대’(58.4점), ‘40대 여성’(58.8점), ‘강원’(58.4점) 및 ‘충남’(58.5점) 거주자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56.1점) 이하”의 평가는 ‘20대 남성’(52.6점), ‘대구/경북’(52.0점) 및 ‘전북’(49.7점) 거주자, ‘블루칼라’(52.9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 례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무 응 답	10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체■		(1000)	0.5	1.0	3.6	4.7	7.4	31.6	22.0	17.2	9.7	1.3	0.9	0.1	5.6	56.1
성별	남자	(495)	0.8	1.6	3.6	4.8	8.1	32.5	20.6	17.2	9.7	0.8	0.2	0.0	5.5	54.9
	여자	(505)	0.2	0.4	3.6	4.6	6.7	30.7	23.4	17.2	9.7	1.8	1.6	0.2	5.7	57.3
연령	20대	(205)	1.5	0.5	2.9	8.8	9.3	31.2	20.0	18.0	7.3	0.0	0.5	0.0	5.4	53.6
	30대	(219)	0.5	1.8	2.7	3.7	7.3	32.4	22.8	17.4	7.3	2.7	1.4	0.0	5.6	56.5
	40대	(228)	0.0	0.9	3.1	4.4	10.5	27.2	20.6	20.2	12.3	0.9	0.0	0.0	5.7	56.9
	50대	(161)	0.6	0.0	2.5	3.7	5.0	32.3	21.7	21.1	11.2	0.0	1.9	0.0	5.8	58.4
	60대 이상	(187)	0.0	1.6	7.0	2.7	3.7	35.8	25.1	9.1	10.7	2.7	1.1	0.5	5.6	55.5
권역	서울	(212)	0.5	0.5	3.3	2.8	7.5	34.9	21.2	20.3	7.5	0.5	0.9	0.0	5.6	56.4
	인천,경기	(275)	0.0	1.1	2.5	5.5	6.5	30.9	20.7	19.6	9.8	1.1	2.2	0.0	5.8	57.5
	부산,울산,경남	(162)	0.0	0.0	2.5	3.1	10.5	32.1	25.3	14.8	8.6	2.5	0.0	0.6	5.7	56.7
	대구,경북	(108)	1.9	0.9	8.3	8.3	5.6	28.7	23.1	12.0	11.1	0.0	0.0	0.0	5.2	52.0
	대전,충청	(99)	1.0	3.0	1.0	5.1	8.1	31.3	22.2	17.2	8.1	3.0	0.0	0.0	5.5	55.5
	광주,전라	(103)	1.0	1.9	6.8	5.8	6.8	27.2	19.4	16.5	12.6	1.0	1.0	0.0	5.5	54.8
	강원	(31)	0.0	0.0	3.2	0.0	6.5	35.5	25.8	12.9	16.1	0.0	0.0	0.0	5.8	58.4
	제주	(10)	0.0	0.0	0.0	10.0	0.0	40.0	20.0	0.0	20.0	10.0	0.0	0.0	6.0	60.0
학력	중졸 이하	(118)	0.0	1.7	5.1	1.7	5.9	39.8	22.0	7.6	11.0	2.5	1.7	0.8	5.6	55.8
	고졸	(351)	0.6	0.9	4.6	4.0	6.0	31.9	23.1	14.8	12.0	1.4	0.9	0.0	5.6	56.5
	대재 이상	(531)	0.6	0.9	2.6	5.8	8.7	29.6	21.3	20.9	7.9	0.9	0.8	0.0	5.6	56.0
직업	화이트칼라	(325)	0.3	0.6	2.5	4.3	8.0	30.2	23.1	21.2	8.6	0.3	0.9	0.0	5.7	56.9
	블루칼라	(112)	1.8	1.8	7.1	3.6	8.9	33.0	19.6	11.6	11.6	0.0	0.9	0.0	5.3	52.9
	(전업)주부	(213)	0.0	0.5	4.7	4.2	6.6	28.6	20.7	17.8	11.3	3.3	1.9	0.5	5.8	58.2
	대학(원)생	(67)	1.5	0.0	0.0	9.0	6.0	34.3	20.9	19.4	9.0	0.0	0.0	0.0	5.6	55.5
	자영업	(206)	0.0	1.9	3.4	4.4	8.3	32.5	23.3	15.5	9.2	1.5	0.0	0.0	5.5	55.3
	무직/기타	(77)	1.3	1.3	3.9	6.5	3.9	39.0	22.1	9.1	9.1	2.6	1.3	0.0	5.4	54.4
	무응답	(60)	0.0	0.0	1.7	5.0	10.0	30.0	20.0	20.0	11.7	0.0	0.0	1.7	5.7	57.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5)	0.0	1.2	3.5	3.5	4.7	35.3	24.7	10.6	9.4	2.4	4.7	0.0	5.8	58.0
	100~199만원	(127)	0.0	1.6	4.7	7.9	5.5	30.7	18.1	17.3	13.4	0.8	0.0	0.0	5.5	55.4
	200~299만원	(206)	1.0	0.0	3.4	4.4	4.9	37.9	22.3	18.9	5.3	1.0	1.0	0.0	5.6	55.6
	300~399만원	(201)	0.5	0.5	1.0	3.0	9.5	25.9	23.4	20.9	11.9	2.5	1.0	0.0	5.9	59.3
	400~499만원	(143)	0.0	2.1	6.3	7.0	7.7	25.2	23.1	16.8	10.5	1.4	0.0	0.0	5.4	54.5
	500만원 이상	(178)	1.1	1.7	4.5	3.4	9.6	35.4	21.3	13.5	8.4	0.6	0.6	0.0	5.4	53.7
	무응답	(60)	0.0	0.0	1.7	5.0	10.0	30.0	20.0	20.0	11.7	0.0	0.0	1.7	5.7	57.1



### 3. 정치인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화 수준이 매우 높으면 10점, 매우 낮으면 0점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로 선진화 수준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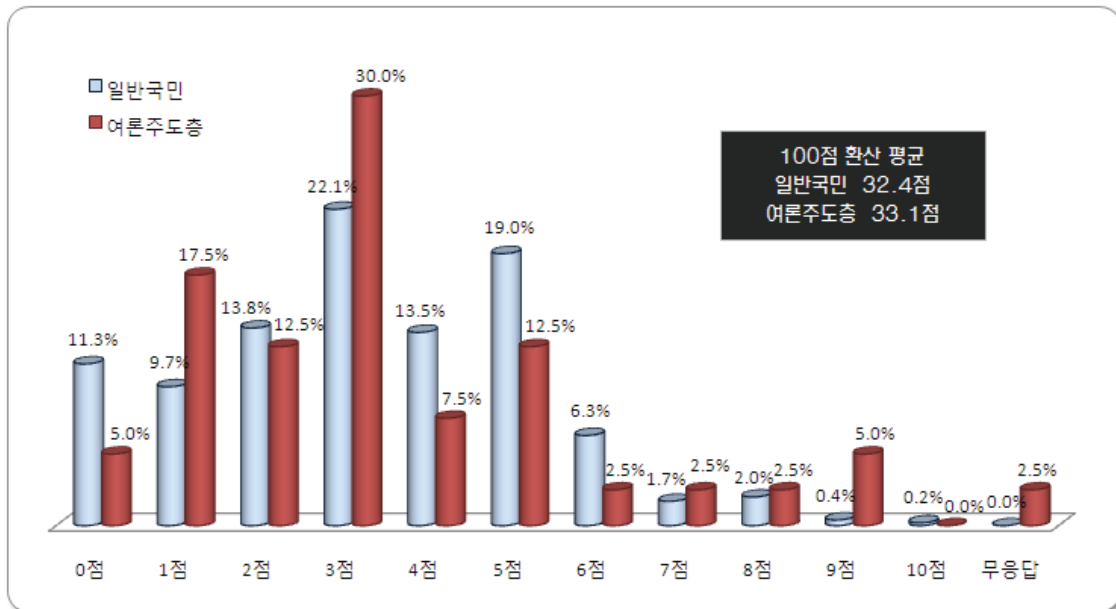
□ 일반국민들의 주요 사회계층 중 “정치인”의 선진화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32.4점(10점 평균 3.2점)으로 분석되어, 주요 사회계층 중 가장 낮은 선진화 수준 평가를 나타냄. 세부적인 평가점수별 분포를 살펴 보면, ‘3점’이라는 평가가 2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점’(19.0%), ‘2점’(13.8%), ‘4점’(13.5%), ‘0점’(11.3%), ‘1점’(9.7%) 등의 순으로 조사됨. 특히, 5명 중 1명 이상(21.0%)의 일반국민들이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인 ‘0점’과 ‘1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및 정치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신감과 실망감이 매우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여론주도층도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33.1점(10점 평균 3.3점)의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3점’이라는 평가가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점’(17.5%), ‘5점’(12.5%), ‘2점’(12.5%), ‘4점’(7.5%), ‘0점’(5.0%)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3.2390	1.99144	.06297
여론주도층	39	3.3077	2.24961	.36023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166	.684	-.210	1037	.833	-.0687	.32668	-.70973	.5723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88	40.357	.852	-.0687	.36569	-.80757	.67019

[ 주요 사회계층별 선진화 수준 — 정치인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32.4점) 이상”의 평가는 ‘여성’(35.6점), ‘30대 여성’(36.7점), ‘60대 이상 여성’(37.4점),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36.2점) 및 ‘학생’(35.8점) 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32.4점) 이하”의 평가는 ‘남성’(29.1점), ‘40대 남성’(27.9점), ‘50대 남성’(27.0점), ‘60대 이상 남성’(29.0점), ‘자영업자’(25.9점), 그리고, ‘500만원 이상’(28.8점) 고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 체		(1000)	11.3	9.7	13.8	22.1	13.5	19.0	6.3	1.7	2.0	0.4	0.2	3.2	32.4
성 별	남자	(495)	14.5	12.1	13.5	21.6	13.7	17.2	5.7	0.8	0.8	0.0	0.0	2.9	29.1
	여자	(505)	8.1	7.3	14.1	22.6	13.3	20.8	6.9	2.6	3.2	0.8	0.4	3.6	35.6
연 령	20대	(205)	8.8	12.2	12.7	26.3	11.2	17.1	5.9	2.4	2.0	1.0	0.5	3.3	32.8
	30대	(219)	11.9	10.5	11.9	17.4	15.5	20.5	7.3	2.3	2.3	0.5	0.0	3.3	33.3
	40대	(228)	12.3	9.6	11.8	22.4	14.9	22.8	4.8	0.0	1.3	0.0	0.0	3.1	31.4
	50대	(161)	14.3	8.1	15.5	21.1	16.8	17.4	4.3	0.0	1.9	0.0	0.6	3.0	30.4
	60대 이상	(187)	9.6	7.5	18.2	23.5	9.1	16.0	9.1	3.7	2.7	0.5	0.0	3.4	33.8
권 역	서울	(212)	13.2	7.5	14.6	28.3	13.7	13.7	5.7	1.4	1.4	0.0	0.5	3.0	30.5
	인천,경기	(275)	11.6	11.6	13.1	19.3	15.3	19.3	5.1	1.5	1.8	1.1	0.4	3.2	32.2
	부산,울산,경남	(162)	14.2	4.9	12.3	25.9	13.0	19.1	6.2	1.2	3.1	0.0	0.0	3.3	32.5
	대구,경북	(108)	10.2	9.3	16.7	20.4	13.0	19.4	5.6	2.8	1.9	0.9	0.0	3.3	32.9
	대전,충청	(99)	10.1	15.2	14.1	16.2	9.1	17.2	11.1	4.0	3.0	0.0	0.0	3.3	33.3
	광주,전라	(103)	5.8	12.6	14.6	17.5	12.6	26.2	8.7	0.0	1.9	0.0	0.0	3.4	34.4
	강원	(31)	9.7	9.7	3.2	29.0	12.9	32.3	0.0	3.2	0.0	0.0	0.0	3.4	33.9
학 력	제주	(10)	0.0	0.0	30.0	10.0	30.0	20.0	10.0	0.0	0.0	0.0	0.0	3.7	37.0
	중졸 이하	(118)	12.7	4.2	20.3	19.5	10.2	18.6	6.8	3.4	4.2	0.0	0.0	3.4	33.6
	고졸	(351)	10.8	11.1	14.2	17.7	12.8	20.5	7.1	1.4	3.1	0.9	0.3	3.3	33.5
직 업	대재 이상	(531)	11.3	10.0	12.1	25.6	14.7	18.1	5.6	1.5	0.8	0.2	0.2	3.1	31.4
	화이트칼라	(325)	9.2	9.8	12.0	23.1	16.0	20.0	6.2	0.6	2.8	0.0	0.3	3.3	33.4
	블루칼라	(112)	10.7	7.1	23.2	17.9	10.7	15.2	8.0	1.8	2.7	2.7	0.0	3.3	33.2
	(전업)주부	(213)	8.0	6.1	15.0	21.6	12.7	21.6	7.5	3.8	2.8	0.5	0.5	3.6	36.2
	대학(원)생	(67)	3.0	7.5	14.9	25.4	19.4	17.9	7.5	3.0	1.5	0.0	0.0	3.6	35.8
	자영업	(206)	21.8	13.6	11.7	18.4	11.2	18.0	4.9	0.5	0.0	0.0	0.0	2.6	25.9
무직/기타		(77)	9.1	14.3	9.1	32.5	10.4	16.9	3.9	2.6	1.3	0.0	0.0	3.1	30.8

## 4. 공무원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화 수준이 매우 높으면 10점, 매우 낮으면 0점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로 선진화 수준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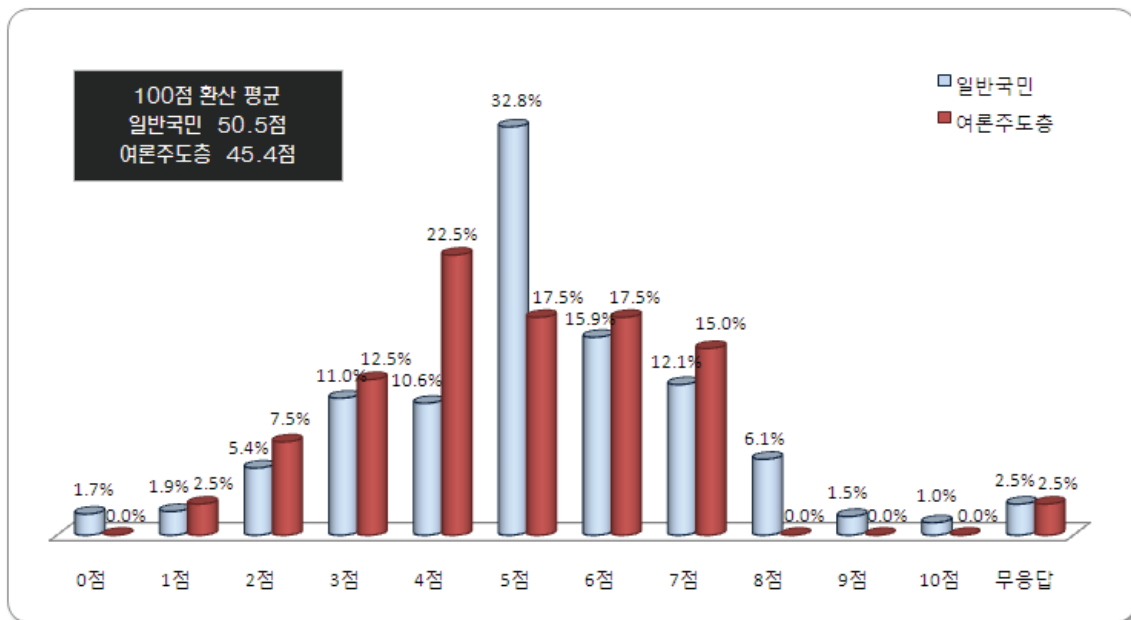
□ 일반국민들은 주요 사회계층 중 “공무원” 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50.5점(10점 평균 5.0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인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5점’이 3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점’(15.9%), ‘7점’(12.1%), ‘3점’(11.0%), ‘4점’(10.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경우, “공무원” 계층에 대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45.4점(10점 평균 4.5점)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는 ‘4점’이 2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점’(17.5%), ‘5점’(17.5%), ‘7점’(15.0%), ‘3점’(12.5%) 순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0450	1.85591	.05869
여론주도층	39	4.5385	1.77477	.28419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203	.652	1.675	1037	.094	.5065	.30245	-.08694	1.10002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746	41.308	.088	.5065	.29019	-.07937	1.09245

[ 주요 사회계층별 선진화 수준 — 공무원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0.5점) 이상”의 평가는 ‘40대 여성’(53.8점), ‘대전/충청’(53.8점) 및 ‘전남’(55.6점), ‘경북’(53.2점) 거주자, ‘화이트칼라’(53.4점) 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50.5점) 이하”의 평가는 ‘40대 남성’(47.8점), ‘대구’(47.5점) 및 ‘경기’(46.8점) 거주자, ‘블루칼라’(47.9점) 및 ‘자영업자’(47.0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 체		(1000)	1.7	1.9	5.4	11.0	10.6	32.8	15.9	12.1	6.1	1.5	1.0	5.0	50.5
성 별	남자	(495)	2.8	2.4	5.3	11.3	9.9	32.7	15.6	12.9	5.1	1.4	0.6	4.9	49.3
	여자	(505)	0.6	1.4	5.5	10.7	11.3	32.9	16.2	11.3	7.1	1.6	1.4	5.2	51.6
연 령	20대	(205)	1.0	2.0	4.9	15.6	8.3	36.1	15.1	11.2	3.4	1.0	1.5	4.9	49.2
	30대	(219)	3.2	1.4	6.8	9.6	10.5	31.5	15.1	11.0	8.7	1.4	0.9	5.0	50.1
	40대	(228)	1.8	2.2	3.1	9.6	12.3	33.8	17.5	13.2	4.4	2.2	0.0	5.1	50.7
	50대	(161)	0.6	2.5	3.1	11.2	12.4	34.8	15.5	13.0	3.7	1.2	1.9	5.1	51.0
	60대 이상	(187)	1.6	1.6	9.1	9.1	9.6	27.8	16.0	12.3	10.2	1.6	1.1	5.1	51.3
권 역	서울	(212)	1.9	0.5	1.4	10.4	16.0	35.4	17.9	10.4	2.4	1.9	1.9	5.1	51.0
	인천,경기	(275)	2.5	2.5	7.3	13.1	9.5	34.9	14.5	9.5	4.4	1.1	0.7	4.7	47.4
	부산,울산,경남	(162)	1.9	0.6	4.9	11.7	9.9	31.5	14.8	16.7	6.8	0.6	0.6	5.1	51.4
	대구,경북	(108)	1.9	3.7	5.6	7.4	9.3	36.1	15.7	11.1	6.5	1.9	0.9	5.0	50.5
	대전,충청	(99)	0.0	1.0	7.1	10.1	8.1	30.3	15.2	12.1	13.1	2.0	1.0	5.4	53.8
	광주,전라	(103)	1.0	3.9	7.8	9.7	6.8	23.3	16.5	15.5	11.7	2.9	1.0	5.3	52.9
	강원	(31)	0.0	3.2	3.2	9.7	9.7	41.9	19.4	12.9	0.0	0.0	0.0	4.9	49.4
	제주	(10)	0.0	0.0	10.0	20.0	20.0	0.0	20.0	20.0	10.0	0.0	0.0	5.0	50.0
학 력	중졸 이하	(118)	0.8	1.7	7.6	9.3	11.0	28.8	15.3	11.9	8.5	1.7	3.4	5.2	52.5
	고졸	(351)	1.7	2.6	8.5	10.0	9.1	33.0	14.5	8.5	9.1	2.3	0.6	5.0	49.7
	대재 이상	(531)	1.9	1.5	2.8	12.1	11.5	33.5	16.9	14.5	3.6	0.9	0.8	5.0	50.5
직 업	화이트칼라	(325)	0.6	0.9	3.1	9.5	9.8	35.1	14.8	16.6	7.7	1.5	0.3	5.3	53.4
	블루칼라	(112)	3.6	1.8	15.2	14.3	6.3	20.5	13.4	12.5	6.3	4.5	1.8	4.8	47.9
	(전업)주부	(213)	0.5	1.9	4.7	11.3	14.1	31.9	17.4	8.9	6.6	1.4	1.4	5.1	50.7
	대학(원)생	(67)	1.5	1.5	4.5	17.9	9.0	35.8	13.4	10.4	3.0	0.0	3.0	4.9	48.7
	자영업	(206)	3.9	4.4	5.3	10.2	11.2	32.0	18.9	9.2	2.9	1.0	1.0	4.7	47.0
	무직/기타	(77)	1.3	0.0	3.9	7.8	10.4	42.9	14.3	10.4	9.1	0.0	0.0	5.2	51.8

## 5. 기업인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화 수준이 매우 높으면 10점, 매우 낮으면 0점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로 선진화 수준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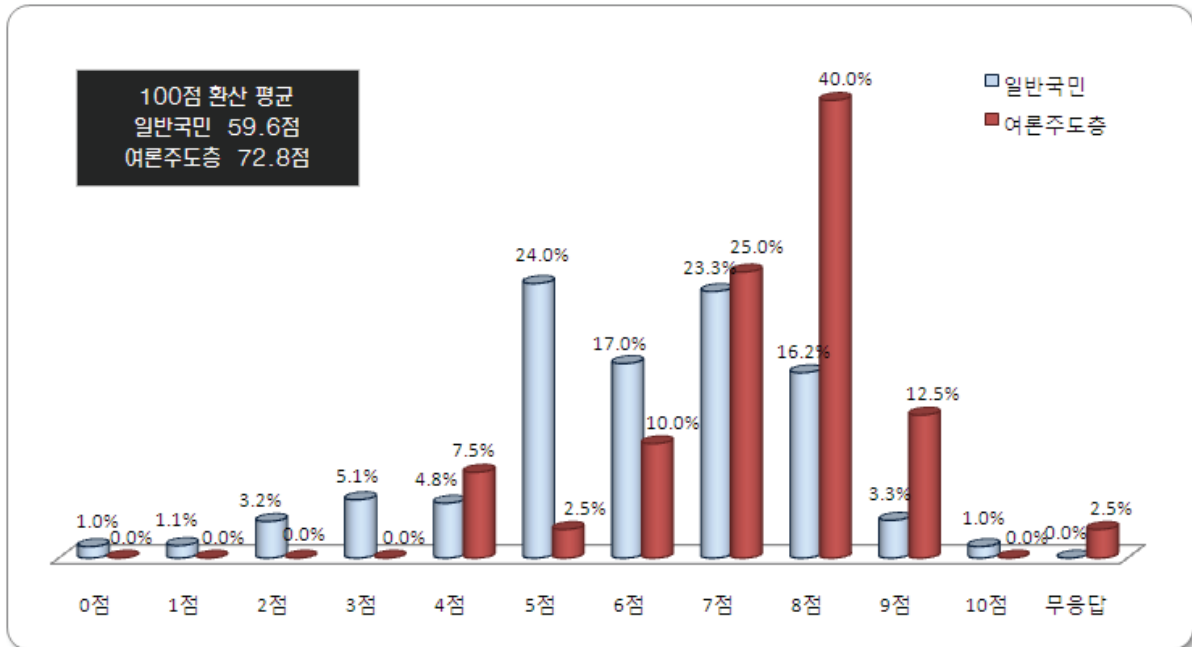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주요 사회계층 중 “기업인”의 선진화 수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59.6점(10점 평균 6.0점)으로 분석되어, 주요 사회계층 중 가장 높은 선진화 수준 평가를 나타냄. 세부적인 평가점수별 분포를 살펴 보면, ‘5점’과 ‘7점’의 평가가 각각 24.0%와 23.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점’(17.0%), ‘8점’(16.2%), ‘3점’(5.1%), ‘4점’(4.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기업인”에 대한 선진화 수준 평가를 살펴본 결과, 100점 환산 기준 평균 72.8점(10점 평균 7.3점)으로 분석되어, 다른 사회 계층에 비해 많은 격차의 가장 높은 선진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 ‘8점’이라는 평가가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점’(25.0%), ‘9점’(12.5%), ‘6점’(10.0%), ‘4점’(7.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9640	1.83796	.05812
여론주도층	39	7.2821	1.33670	.21404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4.793	.029	-4.432	1037	.000	-1.3181	.29739	-1.90161	-.7344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5.943	43.801	.000	-1.3181	.22179	-1.76511	-.87100

[ 주요 사회계층별 선진화 수준 — 기업인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9.6점) 이상”의 평가는 ‘50대 남성’(64.3점), ‘대전/충청’(62.3점) 및 ‘강원’(62.9점), ‘전북’(65.7점), ‘경남’(63.4점)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59.6점) 이하”의 평가는 ‘블루칼라’(55.1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0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 체		(1000)	1.0	1.1	3.2	5.1	4.8	24.0	17.0	23.3	16.2	3.3	1.0	6.0	59.6
성 별	남자	(495)	1.4	1.4	3.0	4.8	3.8	21.6	18.0	23.0	18.2	3.0	1.6	6.0	60.3
	여자	(505)	0.6	0.8	3.4	5.3	5.7	26.3	16.0	23.6	14.3	3.6	0.4	5.9	59.0
연 령	20대	(205)	1.0	1.0	2.9	4.4	6.3	20.5	19.0	25.9	13.7	3.9	1.5	6.0	60.2
	30대	(219)	0.9	1.8	4.1	6.4	5.9	20.1	18.7	22.4	17.8	0.9	0.9	5.8	58.2
	40대	(228)	1.3	1.3	2.2	7.5	3.9	22.8	18.4	23.2	14.5	4.4	0.4	5.9	59.1
	50대	(161)	0.6	0.0	2.5	3.1	3.1	27.3	15.5	27.3	16.1	3.1	1.2	6.2	61.7
	60대 이상	(187)	1.1	1.1	4.3	3.2	4.3	31.0	12.3	18.2	19.3	4.3	1.1	6.0	59.6
권 역	서울	(212)	0.9	1.9	2.8	3.8	4.7	22.6	18.9	26.4	15.6	1.4	0.9	6.0	59.6
	인천,경기	(275)	1.1	1.1	3.3	5.5	7.3	25.5	16.0	25.1	11.3	2.2	1.8	5.8	58.0
	부산,울산,경남	(162)	1.2	0.6	3.1	4.3	2.5	23.5	21.6	19.8	19.8	3.1	0.6	6.1	60.7
	대구,경북	(108)	1.9	0.9	4.6	5.6	2.8	24.1	17.6	22.2	14.8	5.6	0.0	5.9	58.8
	대전,충청	(99)	0.0	1.0	1.0	7.1	5.1	25.3	10.1	20.2	24.2	4.0	2.0	6.2	62.3
	광주,전라	(103)	1.0	1.0	4.9	4.9	4.9	21.4	15.5	24.3	15.5	6.8	0.0	6.0	60.0
	강원	(31)	0.0	0.0	3.2	9.7	0.0	19.4	16.1	19.4	25.8	6.5	0.0	6.3	62.9
	제주	(10)	0.0	0.0	0.0	0.0	10.0	50.0	10.0	10.0	20.0	0.0	0.0	5.8	58.0
학 력	중졸 이하	(118)	2.5	1.7	2.5	2.5	3.4	37.3	11.0	16.9	16.1	4.2	1.7	5.8	58.3
	고졸	(351)	0.3	0.9	4.6	6.3	4.6	25.4	13.4	21.9	17.1	4.6	1.1	6.0	59.7
	대재 이상	(531)	1.1	1.1	2.4	4.9	5.3	20.2	20.7	25.6	15.6	2.3	0.8	6.0	59.9
직 업	화이트칼라	(325)	0.0	0.9	2.2	5.2	4.9	22.8	20.6	24.3	14.2	3.7	1.2	6.1	60.7
	블루칼라	(112)	3.6	1.8	8.0	5.4	8.0	22.3	12.5	16.1	16.1	5.4	0.9	5.5	55.1
	(전업)주부	(213)	0.0	0.9	4.2	3.3	4.2	29.1	12.7	23.9	16.9	4.2	0.5	6.0	60.3
	대학(원)생	(67)	1.5	1.5	1.5	4.5	6.0	20.9	20.9	29.9	11.9	0.0	1.5	5.9	59.1
	자영업	(206)	1.9	1.0	2.9	6.8	3.9	18.9	18.9	24.8	18.0	2.4	0.5	5.9	59.5
	무직/기타	(77)	1.3	1.3	0.0	5.2	2.6	33.8	11.7	18.2	22.1	1.3	2.6	6.1	60.8

## 6. 노조

문. 선생님께서는 사회계층의 선진화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화 수준이 매우 높으면 10점, 매우 낮으면 0점을 기준으로 각 계층별로 선진화 수준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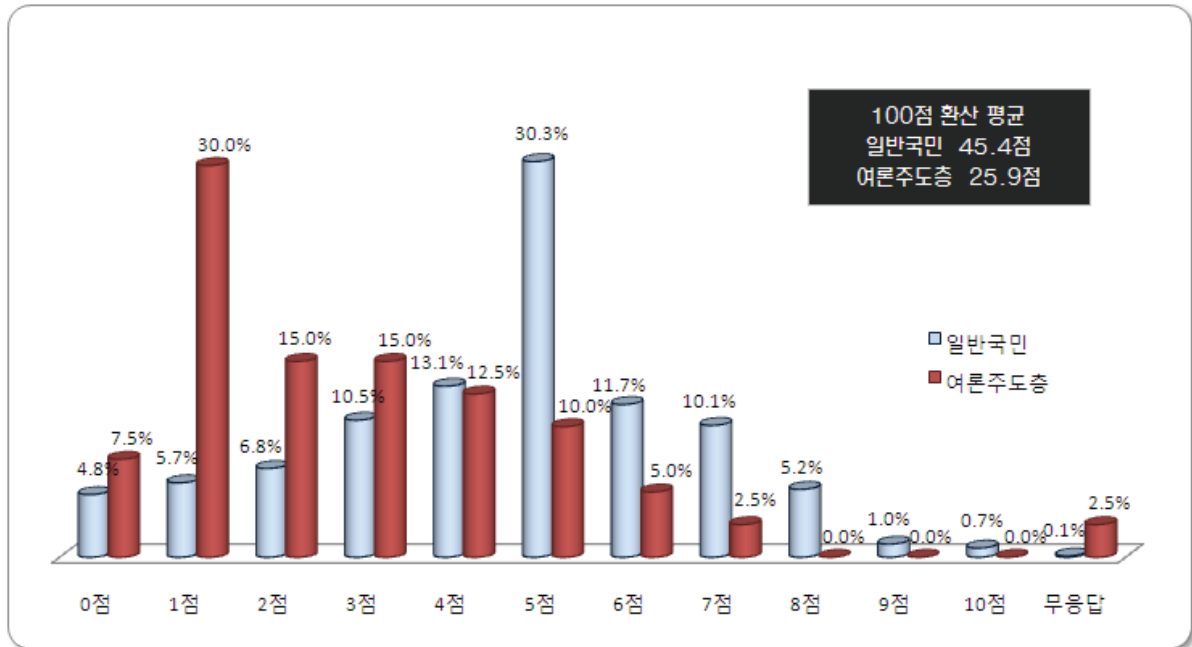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일반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선진화 수준 평가를 분석한 결과, 100점 환산 기준 평균 45.4점(10점 평균 4.5점)으로 분석되어,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선진화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5점’이라는 평가가 30.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점’(13.1%), ‘6점’(11.7%), ‘3점’(10.5%), ‘7점’(10.1%), ‘2점’(6.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노조” 선진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100점 환산 기준 평균 25.9점(10점 평균 2.6점)으로 분석되어, 주요 사회계층 중 가장 낮은 선진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는 ‘1점’이라는 평가가 30.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점’(15.0%), ‘2점’(15.0%), ‘5점’(10.0%), ‘0점’(7.5%), ‘6점’(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4.6310	3.64858	.11538
여론주도층	39	2.5897	1.84559	.29553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103	.748	3.475	1037	.001	2.0413	.58735	.88873	3.19378
Equal variances not assumed			6.434	50.422	.000	2.0413	.31726	1.40416	2.67835

〔 주요 사회계층별 선진화 수준 — 노조 〕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45.4점) 이상”의 평가는 ‘20대’(49.3점), ‘30대 여성’(50.6점), ‘40대 여성’(51.6점), ‘충북’(50.6점) 및 ‘충남’(52.0점), ‘전북’(54.3점) 및 ‘전남’(50.0점)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48.7점), ‘학생’(48.7점) 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45.4점) 이하”의 평가는 ‘50대’(39.9점), ‘40대 남성’(41.2점), ‘60대 이상 남성’(34.7점), ‘서울’(41.8점) 및 ‘대구’(41.8점) 거주자, ‘자영업자’(40.1점), 그리고 ‘100만원 미만’(42.3점)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 례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무 응 답	10점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전 체	(1000)	4.8	5.7	6.8	10.5	13.1	30.3	11.7	10.1	5.2	1.0	0.7	0.1	4.5	45.4
성 별	남자	(495)	7.3	6.7	8.3	12.3	14.1	27.3	11.1	7.7	3.8	1.0	0.2	0.2	4.2	41.6
	여자	(505)	2.4	4.8	5.3	8.7	12.1	33.3	12.3	12.5	6.5	1.0	1.2	0.0	4.9	49.0
연 령	20대	(205)	3.4	4.4	6.3	8.3	12.7	27.3	13.7	14.1	6.3	2.0	1.5	0.0	4.9	49.3
	30대	(219)	3.2	2.7	6.8	9.6	14.2	35.6	11.4	10.0	4.1	1.4	0.9	0.0	4.7	47.3
	40대	(228)	4.8	7.0	4.4	9.2	11.8	29.4	13.6	14.9	4.4	0.0	0.4	0.0	4.6	46.3
	50대	(161)	6.8	7.5	7.5	14.9	17.4	28.0	9.9	4.3	1.9	1.2	0.6	0.0	4.0	39.9
	60대 이상	(187)	6.4	7.5	9.6	11.8	10.2	30.5	9.1	4.8	9.1	0.5	0.0	0.5	4.2	42.3
권 역	서울	(212)	5.7	8.0	6.1	12.7	15.6	30.2	9.0	9.9	1.9	0.9	0.0	0.0	4.2	41.8
	인천,경기	(275)	5.8	6.2	6.9	10.2	12.4	33.1	7.3	11.3	4.7	0.4	1.5	0.4	4.5	44.5
	부산,울산,경남	(162)	3.1	4.9	8.0	10.5	16.0	25.9	16.0	10.5	3.1	1.2	0.6	0.0	4.6	45.8
	대구,경북	(108)	3.7	4.6	9.3	13.0	10.2	34.3	13.9	4.6	6.5	0.0	0.0	0.0	4.4	44.2
	대전,충청	(99)	6.1	5.1	4.0	6.1	11.1	25.3	17.2	12.1	11.1	1.0	1.0	0.0	5.0	49.8
	광주,전라	(103)	2.9	3.9	5.8	9.7	11.7	29.1	13.6	8.7	10.7	2.9	1.0	0.0	5.0	50.1
	강원	(31)	6.5	3.2	6.5	9.7	6.5	32.3	16.1	12.9	3.2	3.2	0.0	0.0	4.7	47.4
	제주	(10)	0.0	0.0	10.0	0.0	20.0	40.0	10.0	20.0	0.0	0.0	0.0	0.0	5.0	50.0
학 력	중졸 이하	(118)	5.9	4.2	7.6	12.7	13.6	35.6	8.5	3.4	5.9	1.7	0.8	0.0	4.4	43.6
	고졸	(351)	5.7	6.3	7.4	9.4	13.1	28.8	12.8	7.1	7.4	1.1	0.6	0.3	4.5	44.9
	대재 이상	(531)	4.0	5.6	6.2	10.7	13.0	30.1	11.7	13.6	3.6	0.8	0.8	0.0	4.6	46.1
직 업	화이트칼라	(325)	3.1	5.2	4.6	7.7	11.1	35.1	12.6	13.5	4.9	1.2	0.9	0.0	4.9	48.7
	블루칼라	(112)	4.5	5.4	12.5	9.8	8.0	30.4	11.6	7.1	7.1	1.8	1.8	0.0	4.5	45.4
	(전업)주부	(213)	3.3	6.1	5.6	10.3	11.3	35.2	10.8	8.5	8.0	0.5	0.5	0.0	4.7	46.6
	대학(원)생	(67)	4.5	1.5	6.0	7.5	17.9	25.4	16.4	14.9	4.5	1.5	0.0	0.0	4.9	48.7
	자영업	(206)	8.3	6.3	6.3	16.0	18.4	21.8	12.6	7.3	1.9	0.5	0.5	0.0	4.0	40.1
	무직/기타	(77)	7.8	9.1	13.0	11.7	15.6	23.4	3.9	7.8	5.2	1.3	0.0	1.3	3.9	38.6

### 3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평가

#### 1. 경제적 선진화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화(또는 선진국)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 제시된 분야별로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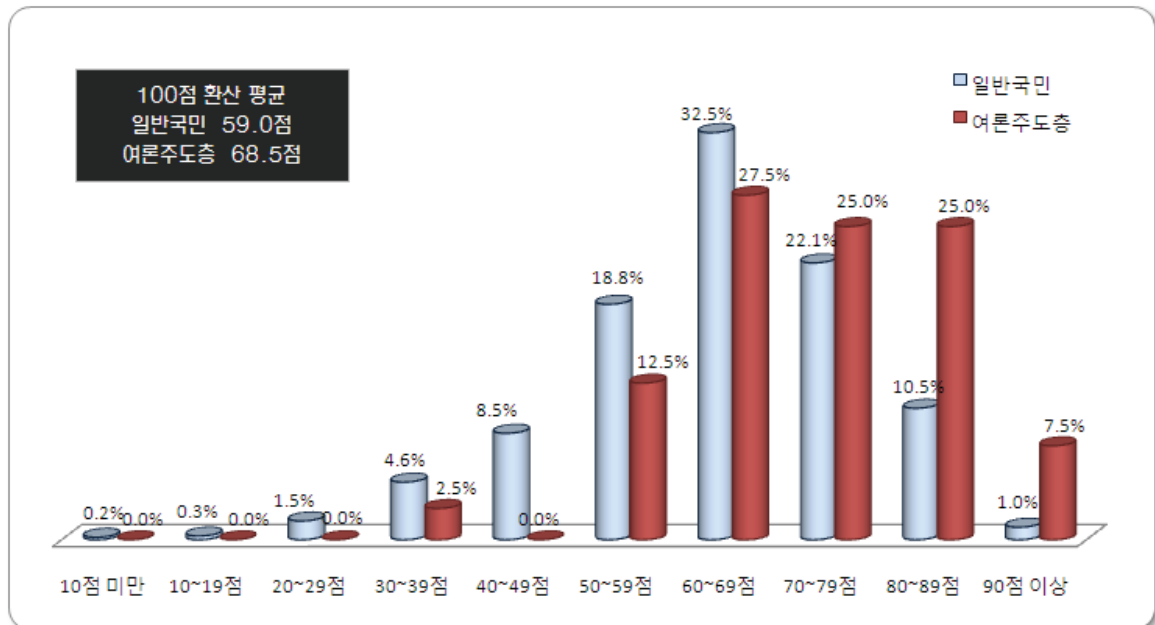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일반국민들의** 높은 국민소득과 소득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는 “경제적 선진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9.0점으로 나타나, 주요 분야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선진화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69점’이라는 평가가 3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79점’(22.1%), ‘50~59점’(18.8%), ‘80~89점’(10.5%), ‘40~49점’(8.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경우, “경제적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8.5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분야 중 가장 높은 선진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60~69점’이라는 평가가 2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80~89점’(25.0%), ‘70~79점’(25.0%), ‘50~59점’(12.5%), ‘90점 이상’(7.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8.9650	14.45727	.45718
여론주도층	40	68.5250	12.92382	2.04343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081	.775	-4.117	1038	.000	-9.5600	2.32235	-14.11704	-5.00296
Equal variances not assumed			-4.566	42.998	.000	-9.5600	2.09395	-13.78286	-5.33714

〔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 경제적 선진화 〕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9.0점) 이상”의 평가는 ‘충북’(65.0점) 및 ‘충남’(63.8점), ‘경북’(64.5점) 거주자, ‘화이트칼라’(62.2점),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평균(59.0점) 이하”의 평가는 ‘50대 여성’(56.4점), ‘강원’(53.1점) 거주자, ‘블루칼라’(53.2점), 그리고 ‘100만원 미만’(56.2점) 저소득 계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사례수	10점 미만	10~19 점	20~29 점	30~39 점	40~49 점	50~59 점	60~69 점	70~79 점	80~89 점	90점 이상	평균
■전체■		(1000)	0.2	0.3	1.5	4.6	8.5	18.8	32.5	22.1	10.5	1.0	59.0
성별	남자	(495)	0.0	0.4	1.4	4.6	10.1	15.6	30.1	24.4	12.3	1.0	59.7
	여자	(505)	0.4	0.2	1.6	4.6	6.9	22.0	34.9	19.8	8.7	1.0	58.2
연령	20대	(205)	0.0	0.5	1.0	6.3	8.3	15.6	32.2	26.3	9.3	0.5	59.1
	30대	(219)	0.5	0.0	0.5	3.7	8.7	19.2	32.4	21.0	12.8	1.4	60.1
	40대	(228)	0.0	0.4	2.6	3.1	9.2	17.5	30.3	25.4	10.1	1.3	59.4
	50대	(161)	0.0	0.6	1.9	4.3	9.3	17.4	33.5	21.7	10.6	0.6	58.6
	60대 이상	(187)	0.5	0.0	1.6	5.9	7.0	24.6	34.8	15.0	9.6	1.1	57.2
권역	서울	(212)	0.9	0.0	1.9	6.1	8.0	17.5	29.7	23.6	9.9	2.4	58.8
	인천,경기	(275)	0.0	0.4	1.1	3.3	9.1	18.5	32.4	24.7	10.2	0.4	59.5
	부산,울산,경남	(162)	0.0	0.6	0.6	4.3	8.6	22.2	35.2	19.1	9.3	0.0	58.1
	대구,경북	(108)	0.0	0.0	1.9	2.8	6.5	14.8	34.3	25.0	13.9	0.9	61.5
	대전,충청	(99)	0.0	0.0	1.0	4.0	7.1	16.2	30.3	22.2	18.2	1.0	61.9
	광주,전라	(103)	0.0	1.0	1.9	5.8	7.8	23.3	36.9	14.6	6.8	1.9	56.6
	강원	(31)	0.0	0.0	3.2	12.9	12.9	19.4	29.0	19.4	3.2	0.0	53.1
	제주	(10)	0.0	0.0	10.0	0.0	30.0	20.0	20.0	20.0	0.0	0.0	50.0
학력	중졸 이하	(118)	0.0	0.8	2.5	5.9	9.3	22.9	32.2	16.1	8.5	1.7	56.5
	고졸	(351)	0.3	0.3	0.9	6.6	8.8	21.4	35.0	18.5	8.0	0.3	57.1
	대재 이상	(531)	0.2	0.2	1.7	3.0	8.1	16.2	30.9	25.8	12.6	1.3	60.8
직업	화이트칼라	(325)	0.3	0.0	0.3	2.2	8.9	13.8	29.8	29.8	13.8	0.9	62.2
	블루칼라	(112)	0.0	0.9	2.7	12.5	8.9	18.8	39.3	13.4	3.6	0.0	53.2
	(전업)주부	(213)	0.5	0.5	0.9	3.8	4.2	27.2	36.2	16.9	8.5	1.4	58.3
	대학(원)생	(67)	0.0	0.0	3.0	6.0	10.4	17.9	26.9	25.4	9.0	1.5	58.1
	자영업	(206)	0.0	0.5	2.9	3.9	11.2	17.0	31.6	20.4	11.2	1.5	58.5
	무직/기타	(77)	0.0	0.0	1.3	6.5	9.1	22.1	31.2	18.2	11.7	0.0	57.7

## 2. 정치적 선진화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화(또는 선진국)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 제시된 분야별로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 주요 분야 중 민주화와 자유화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정치적 선진화” 수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44.9점으로 조사되어, 주요 분야 중 가장 낮은 선진화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50~59점’의 평가가 2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49점’(16.8%), ‘60~69점’(15.8%), ‘30~39점’(13.6%), ‘70~79점’(9.7%)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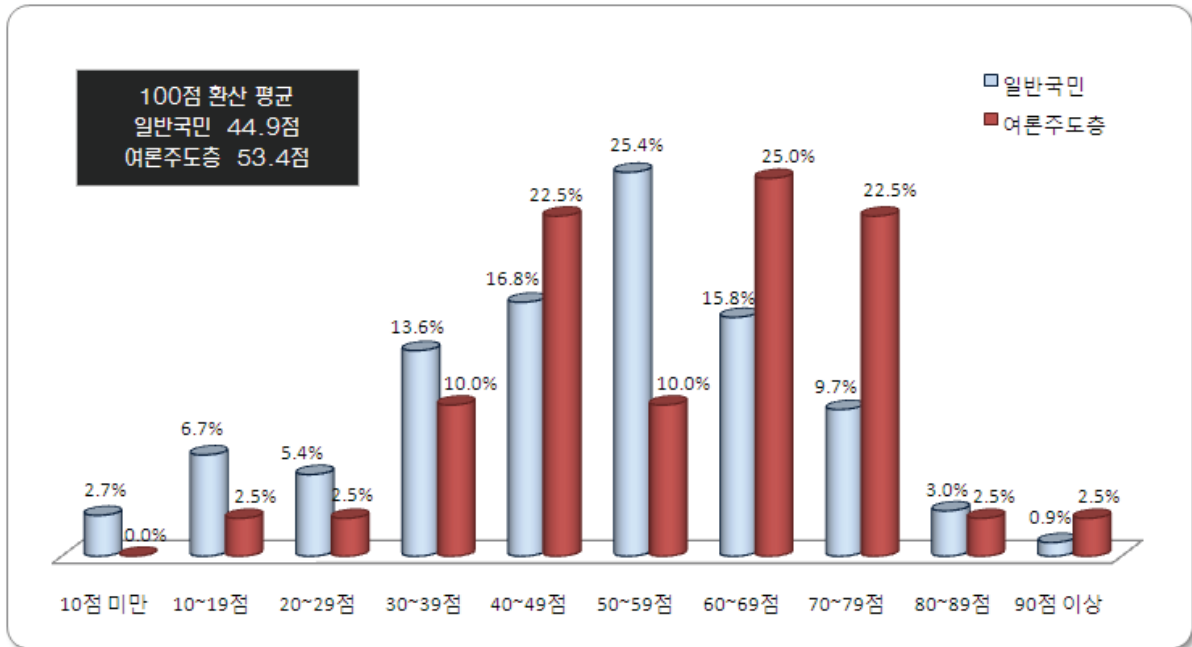
■ **여론주도층**의 경우, “정치적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3.4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선진화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는 ‘60~69점’이라는 평가가 2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79점’(22.5%), ‘40~49점’(22.5%), ‘50~59점’(10.0%), ‘30~39점’(10.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44.9150	19.19469	.60699
여론주도층	40	53.3750	17.51876	2.76996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189	.664	-2.742	1038	.006	-8.4600	3.08533	-14.51419	-2.40581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983	42.832	.005	-8.4600	2.83569	-14.17936	-2.74064



[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 정치적 선진화 ]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44.9점) 이상”의 평가는 ‘60대 이상 여성’(49.6점), ‘광주/전라’(50.2점) 거주자, 학력이 낮을수록, ‘블루칼라’(51.7점) 및 ‘주부’(48.0점) 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44.9점) 이하”의 평가는 ‘40대 남성’(41.4점), ‘50대 남성’(41.2점), ‘부산’(41.1점) 및 ‘경남’(42.3점), ‘강원’(41.8점) 거주자, ‘자영업자’(38.0점), 그리고 ‘500만원 이상’(42.2점) 고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10점 미만	10~19 점	20~29 점	30~39 점	40~49 점	50~59 점	60~69 점	70~79 점	80~89 점	90점 이상	평균
■전체■		(1000)	2.7	6.7	5.4	13.6	16.8	25.4	15.8	9.7	3.0	0.9	44.9
성별	남자	(495)	4.2	8.1	6.3	13.1	15.6	24.2	17.0	8.1	2.4	1.0	43.3
	여자	(505)	1.2	5.3	4.6	14.1	18.0	26.5	14.7	11.3	3.6	0.8	46.5
연령	20대	(205)	2.4	5.4	6.3	16.1	18.0	22.9	15.6	9.3	2.4	1.5	44.6
	30대	(219)	2.3	5.5	6.4	11.9	15.5	24.7	18.3	12.3	2.7	0.5	46.3
	40대	(228)	2.6	7.9	4.4	14.5	18.0	26.8	14.5	9.2	2.2	0.0	43.7
	50대	(161)	5.0	6.2	5.6	12.4	21.7	25.5	14.9	4.3	3.1	1.2	42.8
	60대 이상	(187)	1.6	8.6	4.3	12.8	11.2	27.3	15.5	12.3	4.8	1.6	47.1
권역	서울	(212)	4.7	7.1	1.9	12.3	14.6	22.6	19.8	12.3	3.3	1.4	46.5
	인천,경기	(275)	1.8	6.9	6.5	14.9	18.2	26.2	13.5	8.7	2.9	0.4	43.8
	부산,울산,경남	(162)	3.7	6.2	5.6	16.7	21.0	24.7	12.3	8.0	1.2	0.6	42.3
	대구,경북	(108)	3.7	3.7	7.4	12.0	21.3	18.5	21.3	9.3	2.8	0.0	45.0
	대전,충청	(99)	1.0	12.1	9.1	10.1	10.1	31.3	15.2	7.1	1.0	3.0	43.6
	광주,전라	(103)	0.0	6.8	2.9	10.7	13.6	27.2	15.5	14.6	7.8	1.0	50.2
	강원	(31)	3.2	0.0	9.7	22.6	16.1	32.3	9.7	6.5	0.0	0.0	41.8
	제주	(10)	0.0	0.0	0.0	10.0	10.0	50.0	20.0	0.0	10.0	0.0	52.0
학력	중졸 이하	(118)	4.2	7.6	4.2	12.7	10.2	26.3	13.6	13.6	5.9	1.7	46.9
	고졸	(351)	2.3	6.6	5.7	11.1	16.2	25.1	17.7	9.7	4.6	1.1	46.3
	대재 이상	(531)	2.6	6.6	5.5	15.4	18.6	25.4	15.1	8.9	1.3	0.6	43.5
직업	화이트칼라	(325)	1.8	3.4	4.3	16.9	18.5	25.2	18.5	8.6	2.5	0.3	45.8
	블루칼라	(112)	0.9	3.6	5.4	14.3	7.1	22.3	19.6	18.8	5.4	2.7	51.7
	(전업)주부	(213)	0.5	7.0	4.7	10.3	14.1	29.6	16.0	12.2	4.2	1.4	48.0
	대학(원)생	(67)	3.0	4.5	6.0	13.4	23.9	20.9	14.9	7.5	3.0	3.0	45.1
	자영업	(206)	7.3	13.6	6.3	10.2	18.9	25.7	10.7	6.3	1.0	0.0	38.0
	무직/기타	(77)	2.6	7.8	9.1	16.9	19.5	22.1	13.0	5.2	3.9	0.0	41.0

### 3. 사회적 선진화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화(또는 선진국)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 제시된 분야별로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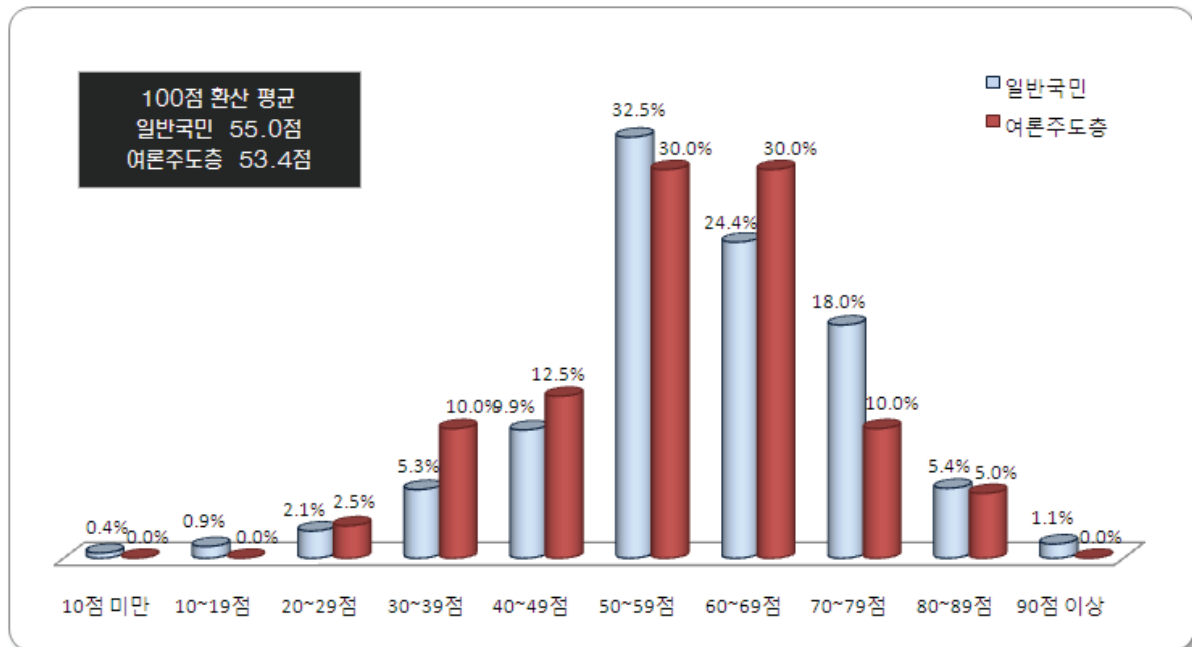
□ 주요 분야 중 범질서가 잘 유지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적 선진화” 수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5.0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50~59점’이라는 평가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60~69점’(24.4%), ‘70~79점’(18.0%), ‘40~49점’(9.9%), ‘80~89점’(5.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경우, “사회적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3.4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일반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화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는 ‘60~69점’과 ‘50~59점’이라는 평가가 각각 30.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49점’(12.5%), ‘70~79점’ (10.0%), ‘30~39점’(10.0%), ‘80~89점’(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4.9950	14.71875	.46545
여론주도층	40	53.3750	13.88541	2.19548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182	.669	.684	1038	.494	1.6200	2.36842	-3.02743	6.26743
Equal variances not assumed			.722	42.581	.474	1.6200	2.24427	-2.90729	6.14729

[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 사회적 선진화 ]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5.0점) 이상”의 평가는 ‘충북’(59.5점) 거주자 및 ‘선진국 진입 평가자’(57.6점) 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55.0점) 이하”의 평가는 ‘인천’(52.5점) 및 ‘강원’(50.0점), ‘전북’(50.3점) 거주자, 그리고 ‘선진국 비진입 평가자’(52.0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10점 미만	10~19 점	20~29 점	30~39 점	40~49 점	50~59 점	60~69 점	70~79 점	80~89 점	90점 이상	평균
	■전체■	(1000)	0.4	0.9	2.1	5.3	9.9	32.5	24.4	18.0	5.4	1.1	55.0
성별	남자	(495)	0.4	0.4	2.4	5.5	9.7	31.9	24.4	17.8	6.3	1.2	55.4
	여자	(505)	0.4	1.4	1.8	5.1	10.1	33.1	24.4	18.2	4.6	1.0	54.6
연령	20대	(205)	1.0	0.5	2.4	5.9	7.8	35.6	23.4	14.1	6.8	2.4	55.0
	30대	(219)	0.5	0.5	1.8	5.0	12.8	28.3	26.5	20.1	4.6	0.0	54.9
	40대	(228)	0.0	0.9	3.1	6.1	8.8	28.5	25.4	20.2	5.7	1.3	55.5
	50대	(161)	0.0	1.9	1.2	5.0	11.2	34.2	22.4	16.8	6.2	1.2	54.9
	60대 이상	(187)	0.5	1.1	1.6	4.3	9.1	37.4	23.5	18.2	3.7	0.5	54.5
권역	서울	(212)	0.9	0.5	1.4	4.2	10.8	30.2	27.4	17.9	6.1	0.5	55.4
	인천,경기	(275)	0.0	1.5	2.5	4.4	9.1	33.5	24.0	20.4	3.6	1.1	54.9
	부산,울산,경남	(162)	0.0	0.0	1.2	4.3	11.1	38.9	21.6	15.4	7.4	0.0	55.3
	대구,경북	(108)	0.9	0.9	0.9	5.6	6.5	34.3	22.2	21.3	6.5	0.9	56.1
	대전,충청	(99)	0.0	2.0	4.0	6.1	7.1	27.3	27.3	17.2	3.0	6.1	56.0
	광주,전라	(103)	1.0	1.0	2.9	8.7	14.6	26.2	22.3	15.5	7.8	0.0	52.7
	강원	(31)	0.0	0.0	3.2	12.9	9.7	35.5	32.3	6.5	0.0	0.0	50.0
	제주	(10)	0.0	0.0	0.0	0.0	10.0	40.0	10.0	30.0	10.0	0.0	59.5
학력	중졸 이하	(118)	0.8	2.5	2.5	6.8	5.9	33.1	28.0	15.3	4.2	0.8	53.5
	고졸	(351)	0.0	0.9	2.3	4.3	10.8	31.6	24.2	18.5	6.0	1.4	55.6
	대재 이상	(531)	0.6	0.6	1.9	5.6	10.2	33.0	23.7	18.3	5.3	0.9	54.9
직업	화이트칼라	(325)	0.3	0.6	1.5	5.8	9.5	30.2	29.2	16.0	5.8	0.9	55.5
	블루칼라	(112)	0.9	0.9	0.9	8.0	9.8	27.7	22.3	25.0	3.6	0.9	55.2
	(전업)주부	(213)	0.0	1.4	1.9	2.8	9.9	31.0	25.4	20.7	6.1	0.9	56.2
	대학(원)생	(67)	3.0	0.0	1.5	7.5	11.9	32.8	16.4	20.9	3.0	3.0	53.3
	자영업	(206)	0.0	1.5	1.9	4.4	9.7	39.8	20.4	15.0	6.3	1.0	54.5
	무직/기타	(77)	0.0	0.0	7.8	6.5	10.4	33.8	22.1	14.3	3.9	1.3	52.1

#### 4. 문화적 선진화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화(또는 선진국)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 제시된 분야별로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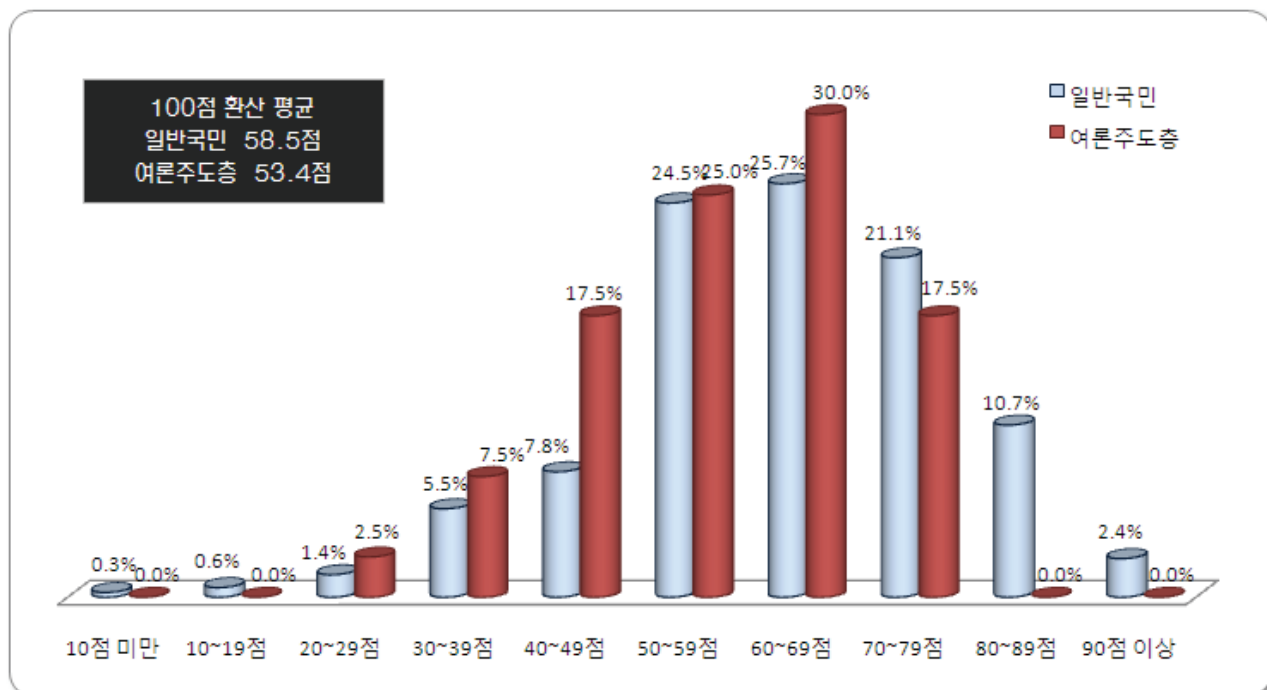
□ 일반국민들의 주요 분야 중 다문화가 공생하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적 선진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8.5점으로, 경제적 선진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선진화가 진척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69점’과 ‘50~59점’이라는 평가가 각각 25.7%와 24.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0~79점’(21.1%), ‘80~89점’(10.7%), ‘40~49점’ (7.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경우, “문화적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3.4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선진화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는 ‘60~69점’이라는 평가가 30.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59점’(25.0%), ‘70~79점’(17.5%), ‘40~49점’(17.5%), ‘30~39점’(7.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8.4520	15.46696	.48911
여론주도층	40	53.3750	13.31991	2.10606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378	.539	2.046	1038	.041	5.0770	2.48184	.20701	9.9469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2.348	43.315	.023	5.0770	2.16211	.71761	9.43639

[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 문화적 선진화 ]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8.5점) 이상”의 평가는 ‘대구/경북’(61.0점) 및 ‘충북’(62.9점), ‘전남’(61.0점)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선진국 진입 평가자’(61.2점) 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58.5점) 이하”의 평가는 ‘강원’(53.5점) 및 ‘전북’(55.3점), ‘경남’(55.6점) 거주자, ‘선진국 비진입 평가자’(55.3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10점 미만	10~19 점	20~29 점	30~39 점	40~49 점	50~59 점	60~69 점	70~79 점	80~89 점	90점 이상	평균
	■전체■	(1000)	0.3	0.6	1.4	5.5	7.8	24.5	25.7	21.1	10.7	2.4	58.5
성별	남자	(495)	0.2	0.8	1.4	4.4	7.5	24.4	26.9	22.0	10.1	2.2	58.7
	여자	(505)	0.4	0.4	1.4	6.5	8.1	24.6	24.6	20.2	11.3	2.6	58.2
연령	20대	(205)	0.5	0.0	2.0	4.4	8.8	24.4	22.9	21.0	12.7	3.4	59.3
	30대	(219)	0.5	0.9	0.9	5.9	8.7	22.4	26.5	22.8	8.7	2.7	58.2
	40대	(228)	0.0	0.4	1.3	7.0	8.8	20.6	24.1	24.1	11.0	2.6	58.9
	50대	(161)	0.0	0.0	1.2	6.8	3.7	24.8	32.9	19.3	10.6	0.6	58.6
	60대 이상	(187)	0.5	1.6	1.6	3.2	8.0	31.6	23.5	17.1	10.7	2.1	57.2
권역	서울	(212)	0.0	0.5	1.9	5.7	8.5	21.7	27.8	19.8	12.3	1.9	58.6
	인천,경기	(275)	0.0	0.7	1.5	5.1	5.8	25.1	22.2	25.5	12.0	2.2	59.6
	부산,울산,경남	(162)	0.6	0.6	0.6	4.9	10.5	27.2	27.8	18.5	6.2	3.1	56.9
	대구,경북	(108)	0.0	0.0	0.9	3.7	6.5	21.3	29.6	23.1	13.0	1.9	61.0
	대전,충청	(99)	0.0	2.0	1.0	3.0	4.0	26.3	27.3	24.2	9.1	3.0	59.6
	광주,전라	(103)	1.9	0.0	2.9	8.7	10.7	25.2	23.3	12.6	10.7	3.9	55.1
	강원	(31)	0.0	0.0	0.0	16.1	9.7	29.0	19.4	19.4	6.5	0.0	53.5
	제주	(10)	0.0	0.0	0.0	0.0	20.0	20.0	30.0	10.0	20.0	0.0	59.5
학력	중졸 이하	(118)	0.8	0.0	3.4	3.4	9.3	33.9	21.2	17.8	6.8	3.4	56.2
	고졸	(351)	0.0	1.1	1.1	7.1	5.7	23.9	26.2	22.2	10.3	2.3	58.4
	대재 이상	(531)	0.4	0.4	1.1	4.9	8.9	22.8	26.4	21.1	11.9	2.3	59.0
직업	화이트칼라	(325)	0.3	0.0	0.9	5.2	8.6	24.0	22.2	24.6	10.8	3.4	59.6
	블루칼라	(112)	0.0	1.8	2.7	8.0	8.9	17.9	26.8	19.6	10.7	3.6	57.5
	(전업)주부	(213)	0.5	0.5	1.9	4.2	7.0	27.2	27.7	17.8	10.8	2.3	58.1
	대학(원)생	(67)	1.5	0.0	3.0	3.0	9.0	25.4	28.4	16.4	11.9	1.5	57.5
	자영업	(206)	0.0	1.5	0.5	5.8	6.3	23.8	26.2	24.3	10.2	1.5	58.8
	무직/기타	(77)	0.0	0.0	1.3	7.8	7.8	29.9	29.9	13.0	10.4	0.0	56.0



## 5. 국제적 선진화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화(또는 선진국)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 제시된 분야별로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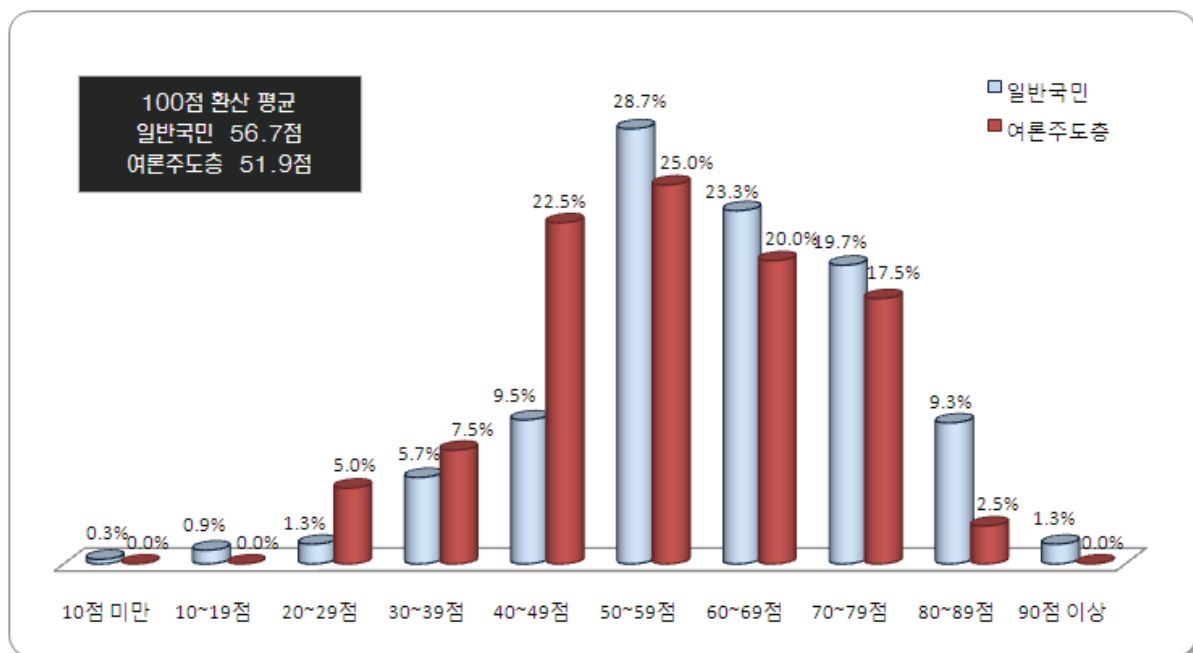
□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분야 중 인류의 발전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공헌하는 “국제적 선진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알아본 결과, 100점 만점 기준 평  
균 56.7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50~59점’이라는 평가가 28.7%  
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0~69점’(23.3%), ‘70~79점’(19.7%),  
‘40~49점’(9.5%), ‘80~89점’(9.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경우, “국제적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1.9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선진화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는 ‘50~59점’이라는 평가가 25.0%로 상  
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49점’(22.5%), ‘60~69점’(20.0%), ‘70~79  
점’(17.5%), ‘30~39점’(7.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6.7350	15.22322	.48140
여론주도층	40	51.8500	15.23247	2.40847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 e	Std. Error Differenc 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022	.883	1.990	1038	.047	4.8850	2.45473	.06821	9.70179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989	42.176	.053	4.8850	2.45610	-.07101	9.84101

〔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 국제적 선진화 〕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6.7점) 이상”의 평가는 ‘50대 남성’(60.6점) 및 ‘전남’(61.5점)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500만원 이상’(59.2점) 고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56.7점) 이하”의 평가는 ‘20대 남성’(54.3점), ‘인천’(53.2점) 및 ‘경남’(53.1점) 거주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10점 미만	10~19 점	20~29 점	30~39 점	40~49 점	50~59 점	60~69 점	70~79 점	80~89 점	90점 이상	평균
■전체■		(1000)	0.3	0.9	1.3	5.7	9.5	28.7	23.3	19.7	9.3	1.3	56.7
성별	남자	(495)	0.4	1.4	1.4	5.1	10.5	27.5	24.2	20.6	7.9	1.0	56.2
	여자	(505)	0.2	0.4	1.2	6.3	8.5	29.9	22.4	18.8	10.7	1.6	57.2
연령	20대	(205)	0.5	1.0	0.5	6.8	10.7	31.2	21.0	18.5	8.3	1.5	55.8
	30대	(219)	0.0	0.9	1.8	7.8	9.1	23.7	26.5	18.3	11.0	0.9	56.8
	40대	(228)	0.4	0.4	1.3	6.1	11.0	25.9	19.3	25.9	8.3	1.3	57.1
	50대	(161)	0.0	0.6	0.6	2.5	10.6	29.2	24.8	21.7	8.7	1.2	58.0
	60대 이상	(187)	0.5	1.6	2.1	4.3	5.9	34.8	25.7	13.4	10.2	1.6	56.1
권역	서울	(212)	0.5	0.5	0.5	9.4	11.8	23.1	25.5	17.0	10.4	1.4	56.2
	인천,경기	(275)	0.4	1.1	1.8	6.5	9.1	29.1	21.8	20.0	9.5	0.7	56.1
	부산,울산,경남	(162)	0.6	1.2	0.6	2.5	9.3	31.5	29.0	17.3	7.4	0.6	56.5
	대구,경북	(108)	0.0	0.0	1.9	3.7	6.5	30.6	22.2	24.1	9.3	1.9	59.1
	대전,충청	(99)	0.0	2.0	1.0	5.1	7.1	31.3	18.2	24.2	9.1	2.0	57.4
	광주,전라	(103)	0.0	1.0	1.9	4.9	6.8	32.0	20.4	19.4	10.7	2.9	57.7
	강원	(31)	0.0	0.0	3.2	0.0	19.4	29.0	25.8	16.1	6.5	0.0	54.8
	제주	(10)	0.0	0.0	0.0	10.0	30.0	10.0	10.0	30.0	10.0	0.0	55.0
학력	중졸 이하	(118)	0.8	1.7	1.7	5.1	5.9	38.1	22.9	10.2	10.2	3.4	55.7
	고졸	(351)	0.6	1.1	1.1	5.7	10.5	27.9	19.7	21.1	11.1	1.1	56.8
	대재 이상	(531)	0.0	0.6	1.3	5.8	9.6	27.1	25.8	20.9	7.9	0.9	56.9
직업	화이트칼라	(325)	0.3	0.3	0.6	4.9	8.9	27.4	26.5	21.2	8.0	1.8	57.8
	블루칼라	(112)	0.0	0.9	2.7	8.9	10.7	20.5	23.2	20.5	11.6	0.9	56.5
	(전업)주부	(213)	0.5	0.0	2.3	5.2	7.0	34.3	19.2	17.8	11.7	1.9	57.3
	대학(원)생	(67)	0.0	3.0	0.0	9.0	9.0	29.9	23.9	16.4	9.0	0.0	54.6
	자영업	(206)	0.5	1.5	0.5	5.8	12.6	26.7	21.4	21.8	8.3	1.0	56.1
	무직/기타	(77)	0.0	2.6	2.6	2.6	9.1	35.1	26.0	14.3	7.8	0.0	54.7

## 6. 전반적 선진화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화(또는 선진국)를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 제시된 분야별로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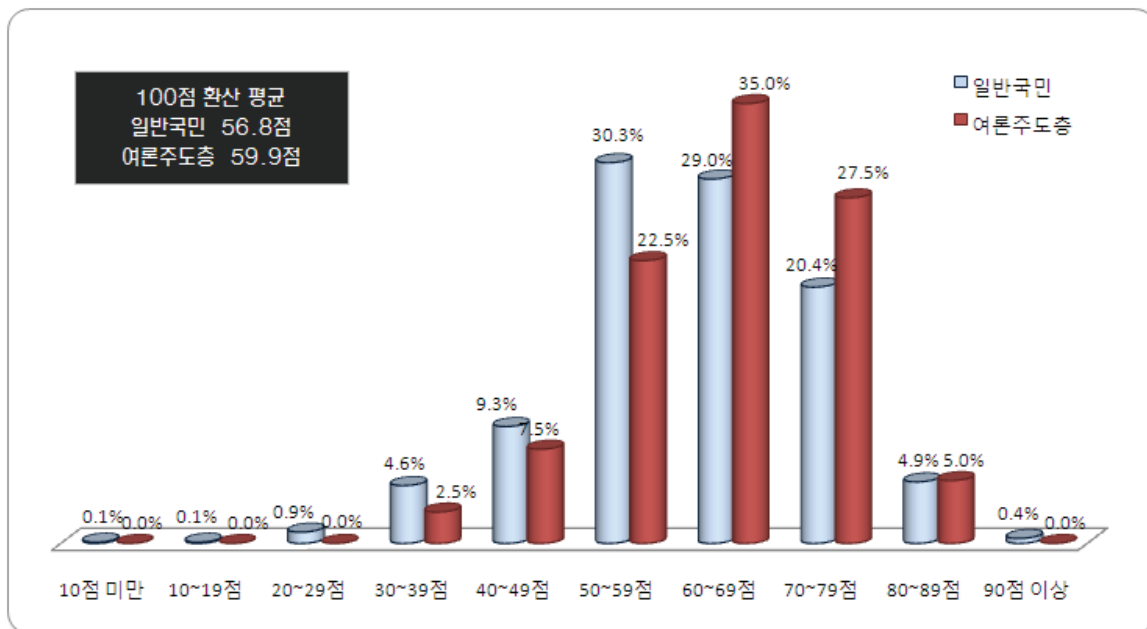
□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적 측면 등 모든 분야를 종합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선진화 수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으로 보통 정도의 선진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인 평가 분포를 살펴보면, '50~59점'과 '60~69점'이라는 평가가 각각 30.3%와 29.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0~79점'(20.4%), '40~49점'(9.3%), '80~89점'(4.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론주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반적 선진화” 수준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9.9점의 평가를 내리고 있어, '경제적 선진화'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보다 높은 선진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세부적으로는 '60~69점'이라는 평가가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79점'(27.5%), '50~59점'(22.5%), '40~49점'(7.5%), '80~89점'(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구분	사례수(N)	평균(Mean)	표준편차 (Std. Deviation)	평균 표준오차 (Std. Error Mean)
일반국민	1000	56.7630	12.80096	.40480
여론주도층	40	59.8750	11.10830	1.75638

구 분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Equal variances assumed	2.417	.120	-1.515	1038	.130	-3.1120	2.05449	-7.14344	.91944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727	43.249	.091	-3.1120	1.80242	-6.74632	.52232

〔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 — 전반적 선진화 〕



### 응답자 특성 분석

- “평균(56.8점) 이상”의 평가는 ‘전남’(61.0점) 거주자 및 ‘선진국 진입 평가자’(59.4점) 계층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평균(56.8점) 이하”의 평가는 ‘강원’(53.5점) 및 ‘경남’(49.8점) 거주자, 그리고 ‘선진국 비진입 평가자’(53.7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10점 미만	10~19 점	20~29 점	30~39 점	40~49 점	50~59 점	60~69 점	70~79 점	80~89 점	90점 이상	평균
	■전체■	(1000)	0.1	0.1	0.9	4.6	9.3	30.3	29.0	20.4	4.9	0.4	56.8
성별	남자	(495)	0.0	0.0	0.8	4.8	10.3	27.9	32.5	19.8	3.6	0.2	56.5
	여자	(505)	0.2	0.2	1.0	4.4	8.3	32.7	25.5	21.0	6.1	0.6	57.0
연령	20대	(205)	0.0	0.0	1.0	4.9	12.7	27.8	26.8	21.5	4.4	1.0	56.7
	30대	(219)	0.0	0.0	0.0	2.7	12.3	25.6	32.9	22.4	4.1	0.0	57.6
	40대	(228)	0.0	0.0	0.9	7.9	7.5	27.2	28.5	22.8	5.3	0.0	56.7
	50대	(161)	0.6	0.0	2.5	1.9	7.5	32.9	32.9	18.6	2.5	0.6	56.1
	60대 이상	(187)	0.0	0.5	0.5	4.8	5.9	40.1	24.1	15.5	8.0	0.5	56.4
권역	서울	(212)	0.5	0.5	0.0	5.2	7.5	32.1	30.2	18.9	4.7	0.5	56.6
	인천,경기	(275)	0.0	0.0	0.7	3.3	8.7	30.5	29.1	22.2	5.5	0.0	57.5
	부산,울산,경남	(162)	0.0	0.0	1.2	4.3	14.2	34.0	27.8	16.0	2.5	0.0	54.5
	대구,경북	(108)	0.0	0.0	0.9	2.8	8.3	26.9	26.9	28.7	4.6	0.9	59.3
	대전,충청	(99)	0.0	0.0	2.0	6.1	6.1	30.3	32.3	16.2	5.1	2.0	56.8
	광주,전라	(103)	0.0	0.0	1.0	3.9	10.7	26.2	28.2	20.4	9.7	0.0	57.9
	강원	(31)	0.0	0.0	3.2	12.9	6.5	22.6	32.3	22.6	0.0	0.0	53.5
	제주	(10)	0.0	0.0	0.0	20.0	20.0	30.0	10.0	20.0	0.0	0.0	50.0
학력	중졸 이하	(118)	0.8	0.0	0.8	5.9	10.2	40.7	22.0	11.0	8.5	0.0	54.4
	고졸	(351)	0.0	0.3	0.9	4.3	8.3	30.5	29.1	21.4	4.6	0.9	57.1
	대재 이상	(531)	0.0	0.0	0.9	4.5	9.8	27.9	30.5	21.8	4.3	0.2	57.0
직업	화이트칼라	(325)	0.0	0.0	0.0	4.3	8.6	24.3	32.9	25.5	3.7	0.6	58.5
	블루칼라	(112)	0.0	0.0	2.7	3.6	13.4	26.8	24.1	20.5	8.9	0.0	56.8
	(전업)주부	(213)	0.5	0.5	0.9	4.7	5.6	35.7	23.9	20.7	6.6	0.9	56.8
	대학(원)생	(67)	0.0	0.0	1.5	7.5	11.9	26.9	28.4	17.9	6.0	0.0	55.7
	자영업	(206)	0.0	0.0	1.5	5.3	11.2	33.0	29.1	16.5	3.4	0.0	54.9
	무직/기타	(77)	0.0	0.0	0.0	2.6	9.1	41.6	33.8	10.4	2.6	0.0	55.1

주제발표 2

## 2009 국가선진화지수 연구 결과 발표

문 휘 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국가선진화지수 2009 연구 결과

## 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

문 휘 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교수)

### 1. 연구배경과 목적

#### 1.1 연구배경

선진화란 무엇인가? 흔히 1인당 GDP로 선진국을 분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충분치 않다. 소득이 높더라도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면에서 떨어지면 선진국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 말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여러 선진국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선진화나 선진국에 대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 되려면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한 국가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과연 무엇이 무엇인가?

기존의 World Bank, IMF, UN, IMD 등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국가의 발전수준을 정치·경제적 관점, 경쟁력 관점, 행복지수 관점 등 부분적 측면에서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 접근방식으로 각 국가의 선진화 수준을 측정해보는 국가 선진화지수 (NAI : National Advancement Index)를 지난 2008년 9월, 최초로 개발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수를 보완하여 재설계한 ‘2009 국가선진화지수 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선진화 변화추이와 정치 경제 등 각 부문별 지수 변화에 담긴 의미를 살펴 볼 계획이다.

#### 1.2 연구목적

OECD 30개 국가와 Non-OECD 10개 국가(또는 경제주체)를 포함해 총 40여 개 국가의 종합적인 선진화지수를 산출했다. 또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 등 각 부문별로 점수와 순위, 작년에 비해 달라진 수치 등을 보여 줌으로써 선진국들의 발전 패러다임 및 선진화 수준과 관련된 결정요인들을 알아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한국의 선진화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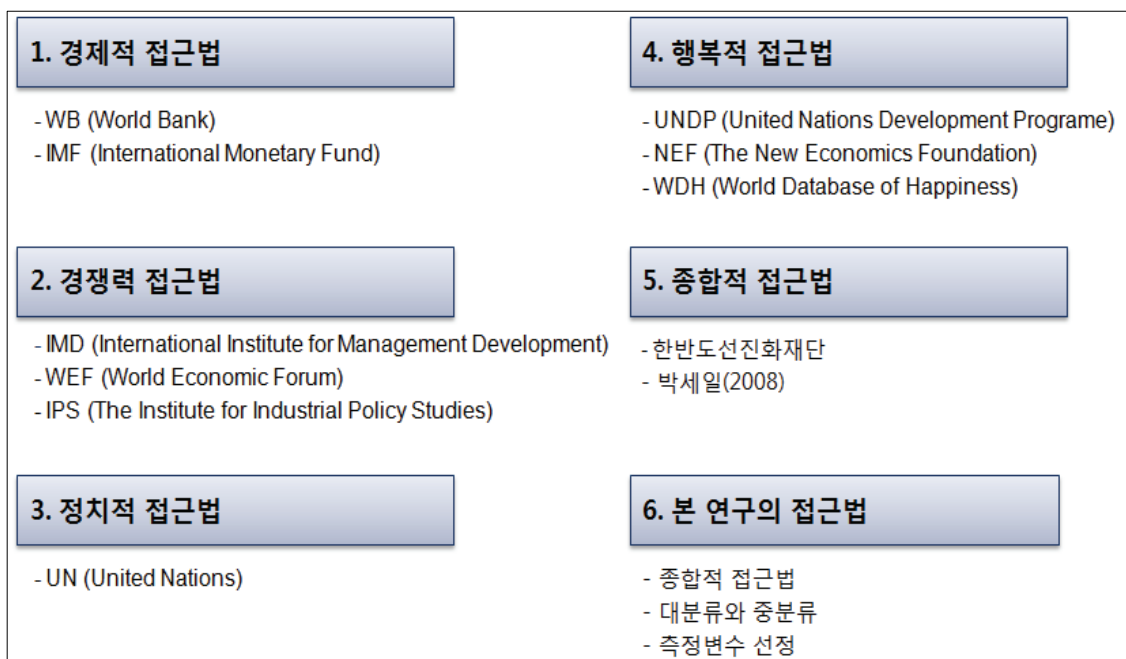
향후 매년 선진화지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선진국 전체의 추세 변화 및 개별국의 변화하는 패턴을 제시한다면, 본 연구뿐 아니라 다른 관련 연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선진화란?

### 2.1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선진화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 방법과 결과 또한 세계의 유수 기관별로 다르다. 경제력이나 경쟁력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기관도 있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기관도 있다. 아예 개인의 행복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 주민들의 지수가 제일 높게 나오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서는 선진화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 2.2 본연구의 접근법- 선진화의 구성 요소

선진화의 구성요소를 크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등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 다시 두 분류로 나누었다. 경제는 소득과 분배, 정치는 민주화와 자유화, 사회는 법질서와 삶의 질, 문화는 다문화공생사회와 세계문화표준창출, 국제는 국제참여와 국제공헌으로 나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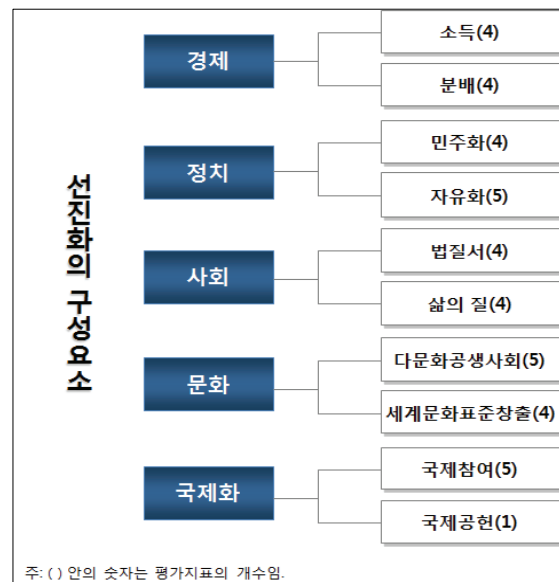
중분류 10개의 정교한 분석틀을 만들었다.

부문	경제 선진화	정치적 선진화	사회적 선진화	문화적 선진화	국제적 선진화
구성요소	소득	민주화	법질서	多문화 共生사회	국제참여
	분배	자유화	삶의 질	세계문화표준 창출	국제공헌

### 3 연구 방법론 : 국가선진화지수의 측정 방법

#### 3.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국가선진화지수 (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화의 5개 부문, 10개의 중분류, 40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작년의 평가지표는 총 55개였으나 중복되는 항목을 생략해 올해는 40개가 되었다. 각 평가항목을 0부터 100사이의 수치로 표준화한 후 종합하여 국가선진화지수를 도출했다.



#### 3.2 부문별 평가지표

##### (1) 평가지표 : 경제 부문

소득을 보면 1인당 GDP가 전부는 아니지만 역시 1인당 GDP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GDP를 사용하되, 국민소득 증가의 질(Quality)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소득만 높고 부익부, 빈익빈 등 양극화가 심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GINI 계수, 남녀 소득비율 등의 항목을 넣어 분배도 평가했다.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소득	1.1.1	1인당 국민소득	미국달러	통계지표	World Bank
	1.1.2	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	1인당 국민소득 x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통계지표	World Bank
	1.1.3	R&D 지출	GDP에서 차지한 비중	통계지표	UNESCO
	1.1.4	E-readiness	점수	통계지표	EIU
분배	1.2.1	GINI 계수	점수	통계지표	UNDP
	1.2.2	남녀 소득비율	남자소득 대비 여자소득 비율	통계지표	UNDP
	1.2.3	노사분쟁	연간 비노동시간 (일수, 천명당)	통계지표	ILO
	1.2.4	기회균등	기회균등 관련 법률이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도	설문지표	IMD

## (2) 평가지표 : 정치 부문

정치는 민주화와 자유화로 나누었다. 민주화의 경우에는 선거 과정 및 다원화, 정부의 역할,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을 지표로 선정했다. 자유화의 경우 언론 및 신앙의 자유, 집회 시위 권리, 법의 공정성 및 효력, 개인 자유도, 정치적 위험도 등을 지표로 택했다.

### 정치부문의 구성지표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민주화	2.1.1	선거과정 및 다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 및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와 의회 대표선출</li> <li>공정한 선거법과 제도</li> </ul>	설문지표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1.2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적인 정책 결정</li> <li>부패척결</li> <li>개방적이고 투명한 집행</li> </ul>	설문지표	
	2.1.3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정당의 설립 권리</li> <li>정당을 선택하는 자유권</li> <li>충분한 정치권과 선거권</li> </ul>	설문지표	
	2.1.4	정치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적인 정권교체</li> </ul>	설문지표	
자유화	2.2.1	언론 및 신앙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의 언론자유권</li> <li>신앙자유권</li> <li>학문자유권</li> <li>개방적이고 자유적인 개인간의 논의</li> </ul>	설문지표	Freedom House
	2.2.2	집회시위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회와 시위자유</li> <li>비정부조직의 자유권리</li> <li>노동조합의 자유조직 권리</li> </ul>	설문지표	
	2.2.3	법의 공정성 및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인 사법</li> <li>민사 및 형사소송에서의 공정성</li> <li>정치적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는 정도</li> <li>충당한 대우</li> </ul>	설문지표	
	2.2.4	개인자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 및 주거선택의 자유</li> <li>재산소유권</li> <li>배우자, 가정의 사이즈 등 개인의 사회적 권리</li> <li>경제적 착취의 부재</li> </ul>	설문지표	
	2.2.5	정치적 위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위험 정도</li> </ul>	설문지표	IMD

### (3) 평가지표: 사회 부문

법질서는 우선 법질서 준수를 비롯해 부패 인지도수, 윤리경영, 공공질서 등을 소분류로, 삶의 질은 인간개발지수, 행복지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사회 안전망 등을 소분류로 선진화 지수를 측정했다.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법질서	3.1.1	법질서 준수	법질서 인식 및 준수 수준	설문지표	World Bank
	3.1.2	부패인지지수	공공부문의 부패인식 정도	설문지표	Transparency International
	3.1.3	윤리경영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	설문지표	IPS
	3.1.4	공공질서	시민이 공공질서 준수 정도	설문지표	IPS
삶의 질	3.2.1	인간개발지수	점수	통계지표	UNDP
	3.2.2	행복지수	점수	통계지표	New Economies Foundation
	3.2.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1인당	통계지표	UN Environment and Energy Statistics
	3.2.4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보장의 정도	통계지표	IPS

### (4) 평가지표 : 문화 부문

다문화공생사회와 세계문화 표준창출을 중분류로 했다. 다문화 공생사회의 경우 국내외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정도, 외국인 대학생 수, 유학생 수, 국제 이민 등을 소분류로 했다. 세계문화 표준창출은 도서 생산량, 영화제작 수, 일간신문 발행부 수, 방송국 수 등을 소분류로 했다.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다문화공생사회	4.1.1	동등한 대우	국내외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	설문지표	IPS
	4.1.2	국가문화	외국의 문화에 대한 개방 정도	설문지표	IMD
	4.1.3	외국인 대학생 수	100명당 외국인 대학생 수	통계지표	UNESCO
	4.1.4	유학생 수(대학)	1000명당 유학생 수	통계지표	
	4.1.5	국제이민(내향)	전체 인구에서 차지한 비중	통계지표	United Nations
세계문화표준창출	4.2.1	도서생산량	총 타이틀 수	통계지표	UNESCO
	4.2.2	영화생산량	영화의 총 제작 수	통계지표	
	4.2.3	일간신문발행부수	백 만명 당 타이틀의 수	통계지표	
	4.2.4	방송국의 수	라디오와 TV를 포함	통계지표	

### (5) 평가지표: 국제화 부문

국제화는 국제참여와 국제공헌이 중요하다. 국제참여는 경제적 통합, 인적 교류, 인터넷사용 등 기술적 접촉, 국제기구 등 국제정치 참여, 영어능력을 소분류로, 국제공헌은 국민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 비율을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국제참여	5.1.1	경제적 통합	무역, 해외직접투자	A.T. Kearny
	5.1.2	인적 교류	국제전화 통화량, 해외 여행, 송금 및 국외이동	
	5.1.3	기술적 접촉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호스트 수, 안전서버 수	
	5.1.4	국제정치 참여	참여 국제기구 수, 유엔 평화활동 관련지원, 국제계약	
	5.1.5	영어능력	토플 IBT 점수	ETS
국제공헌	5.2.1	국민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	%	OECD

### 3.3 평가 대상국

국가선진화지수의 평가대상은 OECD 30개 국가와 Non-OECD 10개 국가(또는 경제주체)를 포함해 총 40개국이다. Non-OECD국가는 IMD, WEF, 그리고 IPS 3개 주요 국가경쟁력 연구기관들의 최근 보고서의 상위 40위에서 최소한 두 번 이상 언급되었던 10개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국가는 권력을 지닌 정치적 실체 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주체도 포함하였다.

OECD 국가		Non-OECD 국가	
1 Australia	16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연구에서 국가는 정치적 실체 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주체도 포함함.</li> </ul>	
2 Austria	17 Luxembourg		
3 Belgium	18 Mexico		
4 Canada	19 Netherlands		
5 Czech Republic	20 New Zealand		
6 Denmark	21 Norway		
7 Finland	22 Poland		
8 France	23 Portugal		
9 Germany	24 Slovak Republic		
10 Greece	25 Spain		
11 Hungary	26 Sweden		
12 Iceland	27 Switzerland		
13 Ireland	28 Turkey		
14 Italy	29 United Kingdom		
15 Japan	30 United States		
		1 Chile	
		2 China	
		3 Estonia	
		4 Hong Kong	
		5 Israel	
		6 Kuwait	
		7 Malaysia	
		8 Singapore	
		9 Taiwan	
		10 Thailand	

### 3.4 대표적인 평가 지표 소개

#### (1) E-readiness (경제부문 중 소득 항목)

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IBM의 "E-readiness"는 7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그 능력을 사회와 경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6개 분야의 100 여 개 통계 및 설문 지표를 통하여 측정하고, 각 분야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를 산출한다.

E-readiness의 6개 구성요소	
<b>Connectivity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20%)</b>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s and businesses can access mobile networks and the Internet, and their ability to access digital services through means such as digital identity cards	<b>Legal environment (10%)</b> Legal frameworks tha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to inform, communicate and transact business, and laws governing internet use
<b>Business environment (15%)</b> Measuring the general business climate by using the criteria such as the strength of the economy, political stability, taxation, competition policy, the labor market, and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b>Government policy and vision (15%)</b> The activities of governments in the area of related activities and the ability to lead their countries towards a digital future
<b>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15%)</b> Literacy and basic education, e-literacy (experience of using Internet and receptivity to it) and the technical skills of the workforce	<b>Consumer and business adoption (25%)</b> The actual utilization of digital channels by people and companies

Source: EIU (2008)

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 Democracy Index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화지수(Democracy)는 크게 정치적 참여, 정치문화, 선거과정과 다양화, 정부의 역할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문은 다시 세부 설문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11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e elec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ead of government free/fair?</li> <li>Are municipal elections both free and fair</li> <li>Is there universal suffrage for all adults?</li> <li>Can citizens cast their vote free of significant threats to their security from state or non-state bodies?</li> <li>Do laws provide for broadly equal campaign opportunities?</li> <li>Is the process of financing political parties transparent and generally accepted?</li> <li>Are co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orderly transfer of power from one government to another clear, established and accepted?</li> <li>A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that ar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li> <li>Do opposition parties have a realistic prospect of achieving government?</li> <li>Is potential access to public office open to all citizens?</li> <li>A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and civic organizations, free of state interference and surveillance?</li> </ul>
Functioning of government (15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 freely elected representatives determine government policy?</li> <li>Is the legislature the supreme political body, with a clear supremacy over other branches of government?</li> <li>Is there an effectiv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on the exercise of government authority?</li> <li>Government is free of undue influence by the military or the security services</li> <li>Foreign powers do not determine important government functions or policies</li> <li>Special economic, religious or other powerful domestic groups do not exercise significant political power, parallel to democratic institutions?</li> <li>Are sufficient mechanisms and institutions in place for assuring government accountability to the electorate in between elections?</li> <li>Does the government's authority extend over the full territory of the country?</li> <li>Is functioning of government open and transparent, with sufficient public access to information?</li> <li>How pervasive is corruption?</li> <li>Is the civil service willing and capable of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y?</li> <li>Popular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free choice and control over their lives</li> <li>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li> <li>Public confidence in political parties</li> </ul>



Political participation (9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ter participation/turn-out for national elections</li> <li>▪ Do ethnic, religious and other minorities have a reasonable degree of autonomy and voice in the political process?</li> <li>▪ Women in parliament (% of members of parliament who are women)</li> <li>▪ Ext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Membership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li> <li>▪ Citizens' engagement with politics</li> <li>▪ The preparedness of population to take part in lawful demonstrations</li> <li>▪ Adult literacy</li> <li>▪ Extent to which adult population shows and interest in and follows politics in the news</li> <li>▪ The authorities make a serious effort to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li> </ul>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8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 there a sufficient degree of societal consensus and cohesion to underpin a stable, functioning democracy?</li> <li>▪ Perceptions of leadership;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desires a strong leader who bypasses parliament and elections</li> <li>▪ Perceptions of military rul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would prefer military</li> <li>▪ Perceptions of rule by experts or technocratic government;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would prefer rule by experts or technocrats</li> <li>▪ Perception of democracy and public order;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believes that democracies are not good at maintaining public order</li> <li>▪ Perception of democracy and the economic system;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believes that democracy benefits economic performance</li> <li>▪ Degree of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li> <li>▪ There is a strong tradition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li> </ul>

### (3)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화부문 국제공헌 항목)

국제공헌을 측정하기 위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list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또는 지역)와 다국적 발전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에 제공하는 지원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ODA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ODA의 기부자: 공공기관, 주, 그리고 지방정부 또는 그들의 집행기관 (official agencies, includ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y their executive agencies)
2. 거래(transaction)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1)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추진이 주요목적이어야 함(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its main objective)
  - 2) 讓與의 특징을 가져야 하고 최소 25%의 grant element\*\*를 양도해야 함(concessional in character and conveys a grantelement<sup>1</sup> of at least 25 per cent)

주: \* DAC는 OECD가 1961년에 설립한 산하기관이며, DAC Statistics는 정책입안자들이 협력발전의 수요를 충족하고 기부자들의 기부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grant element: calculated at a rate of discount of 10%



## 4. 선진화지수의 결과분석

### 4.1 국가선진화지수 순위

#### (1) 종합순위

국가	2009	2008	변동	국가	2009	2008	변동
Sweden	1	1	0	Japan	21	21	0
Denmark	2	3	1	Spain	22	22	0
Norway	3	6	3	Israel	23	23	0
Luxembourg	4	2	-2	Portugal	24	24	0
Netherlands	5	4	-1	Czech Republic	25	25	0
Switzerland	6	5	-1	Taiwan	26	28	2
Finland	7	8	1	Estonia	27	26	-1
Ireland	8	9	1	Italy	28	27	-1
Austria	9	7	-2	<b>Korea</b>	<b>29</b>	<b>30</b>	<b>1</b>
Australia	10	10	0	Slovak Republic	30	32	2
Canada	11	11	0	Hungary	31	29	-2
Germany	12	13	1	Greece	32	31	-1
United Kingdom	13	12	-1	Chile	33	34	1
New Zealand	14	14	0	Poland	34	33	-1
France	15	16	1	Malaysia	35	36	1
Iceland	16	17	1	Thailand	36	38	2
United States	17	15	-2	Mexico	37	35	-2
Belgium	18	18	0	Kuwait	38	40	2
Singapore	19	20	1	Turkey	39	37	-2
Hong Kong	20	19	-1	China	40	39	-1

#### (2) 종합순위 분석

- Cluster Analysis를 통해 40개 국가의 국가선진화지수 2009를 강, 중, 약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 각 그룹 국가를 다시 2008년 대비 순위변동에서 상위 25%의 국가를 Advancer로, 하위 25%의 국가를 Lagger로, 나머지 국가를 Ordinary로 분류했다.
- 위의 2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3X3 table을 작성했다.

	Advancer	Ordinary	Lagger
Str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rway (+3)</li> <li>▪ Denmark (+1)</li> <li>▪ Finland (+1)</li> <li>▪ Ireland (+1)</li> <li>▪ Germany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eden (0)</li> <li>▪ Australia (0)</li> <li>▪ Canada (0)</li> <li>▪ New Zealand (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therlands (-1)</li> <li>▪ Switzerland (-1)</li> <li>▪ United Kingdom (-1)</li> <li>▪ Luxembourg (-2)</li> <li>▪ Austria (-2)</li> </ul>
Intermedi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iwan (+2)</li> <li>▪ France (+1)</li> <li>▪ Iceland (+1)</li> <li>▪ Singapore (+1)</li> <li>▪ Korea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lgium (0)</li> <li>▪ Japan (0)</li> <li>▪ Portugal (0)</li> <li>▪ Czech Republic (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ng Kong (-1)</li> <li>▪ Estonia (-1)</li> <li>▪ Italy (-1)</li> <li>▪ United States (-2)</li> </ul>
We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lovak Republic (+2)</li> <li>▪ Thailand (+2)</li> <li>▪ Kuwait (+2)</li> <li>▪ Chile (+1)</li> <li>▪ Malaysia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ce (-1)</li> <li>▪ Poland (-1)</li> <li>▪ China (-1)</li> <li>▪ Hungary (-2)</li> <li>▪ Mexico (-2)</li> <li>▪ Turkey (-2)</li> </ul>

(3) 중분류 순위:

경제부문

순위	국가	변동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0		21	Israel	-4
2	Norway	7		22	Korea	5
3	Finland	3		23	Slovak Republic	5
4	Luxembourg	-2		24	Czech Republic	-1
5	Switzerland	-1		25	Belgium	-3
6	Japan	1		26	Portugal	3
7	Denmark	-4		27	Kuwait	-2
8	Hong Kong	0		28	Estonia	-4
9	Australia	4		29	Iceland	5
10	Netherlands	0		30	Hungary	-4
11	Singapore	-6		31	Poland	0
12	Austria	-1		32	Greece	-2
13	United States	-1		33	China	2
14	Germany	2		34	Spain	-1
15	Ireland	-1		35	Italy	-3
16	Taiwan	-1		36	Malaysia	1
17	France	2		37	Thailand	-1
18	New Zealand	2		38	Mexico	2
19	United Kingdom	2		39	Chile	0
20	Canada	-2		40	Turkey	-2

## 정치부문

순위	국가	변동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0	21	Czech Republic	-2
2	Iceland	0	22	Belgium	0
3	Norway	1	23	Japan	2
4	Netherlands	-1	24	Italy	3
5	Finland	2	25	Estonia	-1
6	Denmark	-1	26	Greece	-3
7	Luxembourg	-1	27	<b>Korea</b>	<b>-1</b>
8	Switzerland	1	28	Israel	3
9	Australia	1	29	Taiwan	0
10	Canada	-2	30	Slovak Republic	-2
11	New Zealand	2	31	Poland	1
12	Ireland	-1	32	Hungary	-2
13	Germany	1	33	Hong Kong	0
14	Austria	-2	34	Mexico	0
15	United States	0	35	Singapore	0
16	Spain	2	36	Thailand	2
17	United Kingdom	0	37	Malaysia	0
18	France	3	38	Turkey	-2
19	Chile	1	39	Kuwait	0
20	Portugal	-4	40	China	0

## 사회부문

순위	국가	변동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0	21	Israel	2
2	Switzerland	1	22	Spain	0
3	Denmark	-1	23	Taiwan	3
4	Austria	0	24	Portugal	0
5	Netherlands	0	25	Italy	0
6	Singapore	5	26	United States	-5
7	Iceland	-1	27	<b>Korea</b>	<b>0</b>
8	Finland	4	28	Chile	3
9	New Zealand	-1	29	Poland	4
10	Norway	-3	30	Slovak Republic	2
11	Canada	4	31	Czech Republic	-3
12	Australia	-3	32	Greece	-3
13	Hong Kong	0	33	Hungary	-3
14	Belgium	-4	34	Estonia	3
15	United Kingdom	-1	35	China	0
16	Ireland	3	36	Malaysia	-2
17	Germany	-1	37	Thailand	-1
18	France	0	38	Kuwait	1
19	Luxembourg	1	39	Mexico	-1
20	Japan	-3	40	Turkey	0

문화부문 순위

순위	국가	변동	순위	국가	변동
1	United States	1	21	Netherlands	-4
2	Germany	5	22	Estonia	-3
3	Luxembourg	-2	23	Kuwait	6
4	United Kingdom	0	24	Italy	-1
5	Singapore	5	25	<b>Korea</b>	<b>2</b>
6	Switzerland	-3	26	Belgium	-2
7	Hong Kong	1	27	Czech Republic	1
8	Canada	1	28	China	-3
9	Sweden	-3	29	Slovak Republic	2
10	Australia	1	30	Taiwan	3
11	Norway	1	31	Iceland	-1
12	New Zealand	1	32	Turkey	-6
13	Japan	1	33	Hungary	-1
14	France	-9	34	Portugal	0
15	Finland	6	35	Greece	0
16	Ireland	2	36	Poland	1
17	Israel	-1	37	Thailand	1
18	Denmark	2	38	Malaysia	2
19	Spain	3	39	Chile	0
20	Austria	-5	40	Mexic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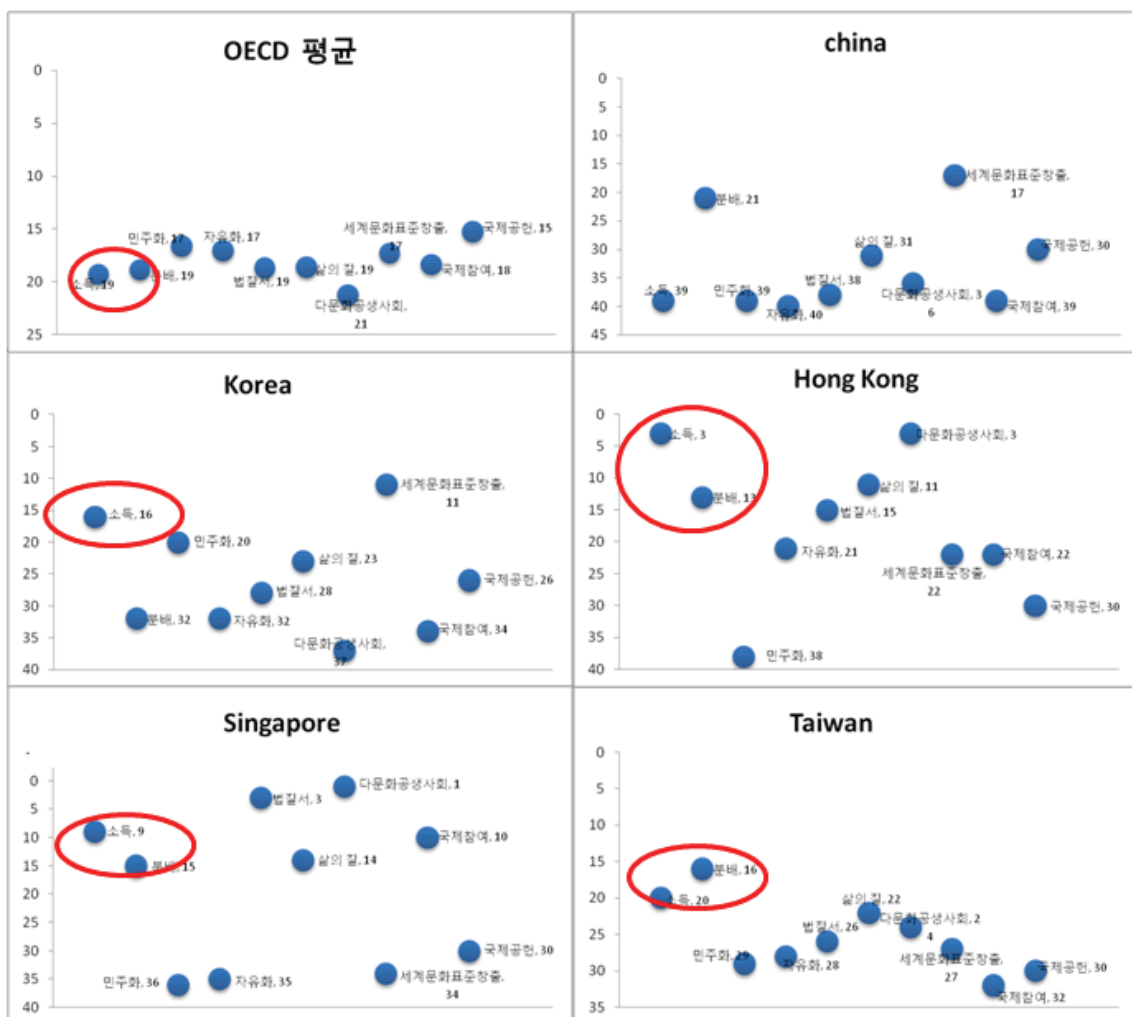
국제화부문 순위

순위	국가	변동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1	21	Singapore	1
2	Denmark	1	22	Estonia	-3
3	Netherlands	1	23	United States	2
4	Luxembourg	-3	24	Hungary	0
5	Norway	0	25	Italy	1
6	Ireland	0	26	Greece	2
7	United Kingdom	2	27	Slovak Republic	0
8	Belgium	0	28	Israel	-7
9	Austria	-2	29	Hong Kong	0
10	Switzerland	0	30	Japan	3
11	Canada	1	31	Malaysia	0
12	Finland	-1	32	Poland	-2
13	Australia	0	33	<b>Korea</b>	<b>-1</b>
14	France	1	34	Chile	0
15	Spain	3	35	Taiwan	0
16	Germany	1	36	Mexico	1
17	New Zealand	-3	37	Turkey	-1
18	Iceland	-2	38	Thailand	0
19	Portugal	1	39	China	0
20	Czech Republic	3	40	Kuwait	0

#### (4) 전체모델 해석

##### 아시아 주요국의 선진화구조 비교

- OECD국가의 각 부문별 평균 순위를 보면 소득과 분배가 선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 그러나 모든 NICs 국가들은 기타 부문보다 소득과 분배를 포함한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 OECD 국가들은 선진화를 구성한 여러 부문들 간의 순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NICs 국가들은 차이가 크다.
- 중국은 분배와 국제문화표준창출에서 큰 우위를 갖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성격과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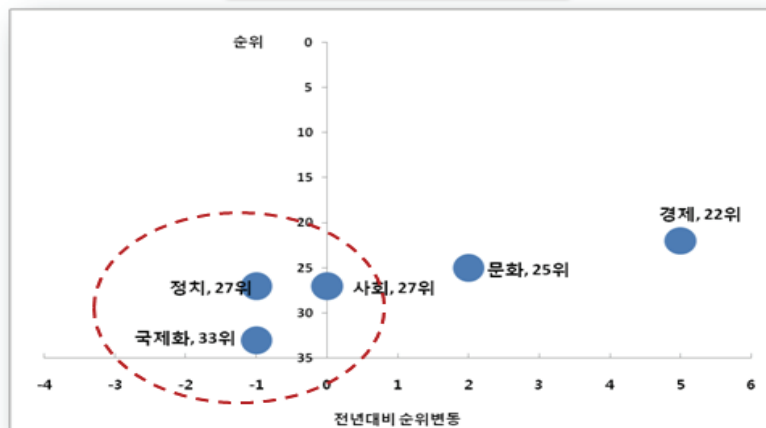


## 5. 한국의 선진화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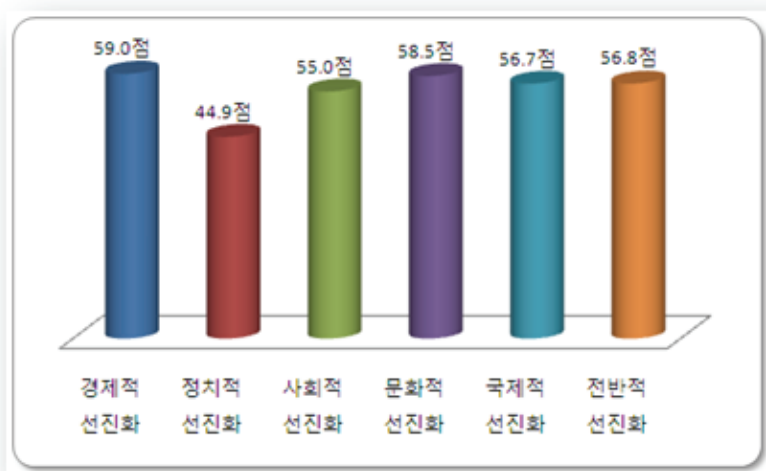
### 5.1 한국의 5개 부문별 선진화 현황

- 한국의 선진화 구조에 대해서 본 연구의 측정결과와 국민의식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와 문화 부문은 높게 평가된 반면 정치, 사회, 국제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진화종합지수 순위는 전년(30위) 대비 1위 향상되어 29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긍정적인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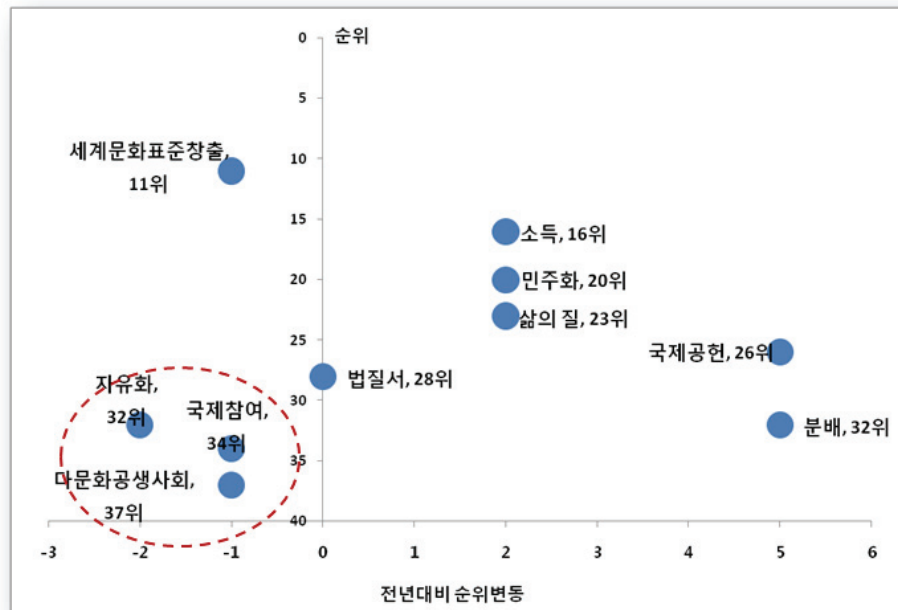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 5.2 한국의 10개 부문별 경쟁력 순위 및 변동

-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세계문화 표준창출(11위, 문화부문), 소득(16위, 경제부문), 민주화(20위, 정치부문), 삶의 질(23위, 사회부문) 이었다.
- 반면 다문화 공생사회(37위, 문화부문), 국제참여(34위, 국제화부문) 등은 하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도 순위가 더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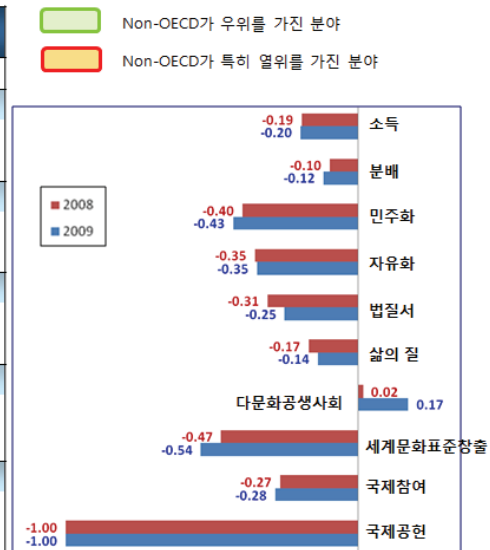


## 5.3 OECD와 Non-OECD 국가 비교

- OECD 국가들에 비해 Non-OECD 국가들은 다문화공생사회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뒤떨어져 있다.
- 특히 세계문화표준창출과 국제공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Non-OECD 국가들은 2008년에 비해 법질서와 삶의 질에서 차이가 줄어든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그 차이는 모두 늘어났다.

## OECD vs Non-OECD

항목	OECD (1)	Non-OECD (2)	(2)-(1) (09년)	(2)-(1) (08년)
NAI	56.42	39.62	-0.30	-0.31
경제	52.80	44.74	-0.15	-0.14
소득	45.06	36.16	-0.20	-0.19
분배	60.55	53.32	-0.12	-0.10
정치	78.53	48.41	-0.38	-0.37
민주화	71.65	41.00	-0.43	-0.40
자유화	85.41	55.82	-0.35	-0.35
사회	64.06	51.68	-0.19	-0.24
법질서	62.39	46.70	-0.25	-0.31
삶의 질	65.74	56.65	-0.14	-0.17
문화	36.57	30.95	-0.15	-0.22
다문화공생사회	39.62	46.41	0.17	0.02
세계문화표준창출	33.52	15.49	-0.54	-0.47
국제화	50.15	22.33	-0.55	-0.54
국제참여	62.41	44.67	-0.28	-0.27
국제공헌	37.89	0.00	-1.00	-1.00



### 5.4 아시아 '4마리 용'의 선진화 비교

- 홍콩과 싱가포르는 정치와 국제화(특히 국제공헌부문)에서 OECD 국가들보다 뒤떨어지는 반면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우위를 가지고 있다.
- 대만은 경제에서만 OECD보다 높은 반면 한국은 5개 분야에서 모두 OECD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5개 분야에서 OECD와 보이는 차이는 대체적으로 대만보다 작다.

2009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OECD 평균	52.80	78.53	64.06	36.57	50.15
한국	-0.10	-0.15	-0.19	-0.15	-0.53
대만	0.11	-0.17	-0.14	-0.34	-0.58
싱가포르	0.22	-0.46	0.24	0.41	-0.25
홍콩	0.29	-0.30	0.13	0.34	-0.40

NICs가 특히 열위를 가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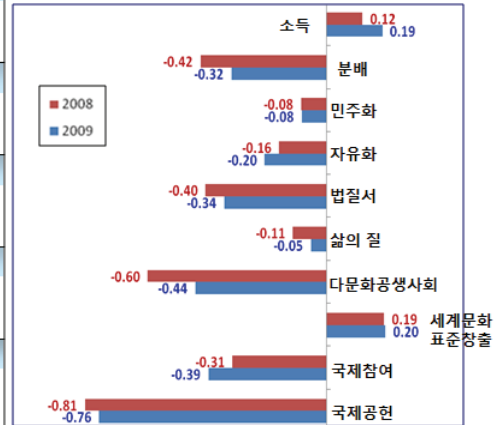
### 5.5 한국과 OECD 평균과의 비교

- 한국은 소득과 세계문화표준창출에서 OECD 평균보다 우위를 보이는 반면 분배,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 국제참여와 국제공헌에서 OECD보다 큰 열위를 보인다.
- 2008년에 비해 한국의 우위분야인 소득, 세계문화표준창출에서 경쟁우위가 더 높아졌다. 한편, 한국의 열위 분야인 분배,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와 국제공헌에서는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국제참여에서는 차이가 늘어났다.



국가	OECD (1)	한국 (2)	(2)-(1) (1) (09년)	(2)-(1) (1) (08년)
NAI	56.2	44.2	-0.22	-0.24
경제	52.80	47.50	-0.10	-0.19
소득	45.06	53.56	0.19	0.12
분배	60.55	41.45	-0.32	-0.42
정치	78.53	66.90	-0.15	-0.12
민주화	71.65	65.88	-0.08	-0.08
자유화	85.41	67.93	-0.20	-0.16
사회	64.06	51.83	-0.19	-0.25
법질서	62.39	41.18	-0.34	-0.40
삶의 질	65.74	62.49	-0.05	-0.11
문화	36.57	31.23	-0.15	-0.22
다문화공생사회	39.62	22.32	-0.44	-0.60
세계문화표준창출	33.52	40.15	0.20	0.19
국제화	50.15	23.53	-0.53	-0.50
국제참여	62.41	37.87	-0.39	-0.31
국제공헌	37.89	9.18	-0.76	-0.81

한국이 우위를 가진 분야  
한국이 특히 열위를 가진 분야



## 5.6 한국의 강약점

- 해당 부문의 순위를 기준으로 각 하위 지표의 순위가 그보다 높으면 강점으로, 낮으면 약점으로 구분했다.
- Blue box: 강점지표, Red box: 약점지표
- ( ) 안 숫자는 각 지표의 순위임.

경제 소득 (16)	정치 민주화 (20)	사회 법질서 (28)	문화 다문화공생사회(37)	국제화 국제참여(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지출(5)</li> <li>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과정 및 다원화(9)</li> <li>정치참여(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질서(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학생 수(대학)(9)</li> <li>등등한 대우(27)</li> <li>외국인 대학생 수(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 접촉(22)</li> <li>경제적 통합(31)</li> <li>인적 교류(31)</li> <li>개인의 해외접촉(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eadiness *(17)</li> <li>1인당 국민소득 (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문화(21)</li> <li>정부의 역할(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인지지도(28)</li> <li>법질서 준수*** (29)</li> <li>윤리경영 (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문화(39)</li> <li>국제이민(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플점수(34)</li> </ul>
분배 (32)	자유화 (32)	삶의 질(23)	세계문화표준창출(11)	국제공헌(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INI 계수(13)</li> <li>기회균등(22)</li> <li>남녀 소득비율(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의 공정성과 효력** (27)</li> <li>연합 및 조직권리(28)</li> <li>언론 및 신앙자유(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지수(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생산량(7)</li> <li>도서생산량(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분쟁(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 자유화(32)</li> <li>정치적 위험도(3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개발지수(26)</li> <li>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6)</li> <li>사회적 안전망(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국의 수(19)</li> <li>일간신문발행부수(21)</li> </ul>	

주: \* E-readiness는 크게 connectivity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business environment,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legal environment, government policy and vision, consumer and business adoption 등 6개 요소로 구성되었음.

\*\* 자유화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인 rule of law는 법의 공정성과 효력을 측정함(independent judiciary, prevalence in civil and criminal matter, protection from political terror, equal treatment).

\*\*\* 법질서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인 rule of law는 법질서 준수의식과 수준을 측정함(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agents have confidence in and abide by the rules of society, and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contract enforcement, property rights, the police, and the courts, as well as the likelihood of crime and violence).

\*\*\*\* 본 연구의 평가대상국 총 40개 국 중에서 Non-OECD 10개 국과 OECD 국 Mexico의 점수가 0

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 29개 국 중에서 26위를 차지함으로써 ODA % GNI는 약점지표임 (Estonia, Israel, Mexico, Taiwan, Thailand는 ODA를 제공하지만 통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0을 주었음)

## 5.7. 선진화지수 연구와 국민의식 설문조사 비교

### - 선진화지수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의 약점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의에 대해 정치적 불안, 낮은 국민의식, 사회복지 미흡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본 연구의 약점에서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정은 자유화 하위 지표인 political risk, 낮은 국민의식은 법질서의 하위 지표인 rule of law, 사회복지 미흡은 삶의 질 하위 지표인 social safety net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 6. 한국에 대한 정책제안 및 결론

### 6.1 한국의 강점강화

- 10개 하위 부문들을 기간(Term: short, mid, long)과 중요성(Priority: low, medium, high)에 따라 Term-Priority Matrix를 제안한다.
- 한국의 강점 중 상대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분야(public sector)를 단기정책으로, 통제가 어려운 분야(private sector)를 장기정책으로 한다.
- Priority는 경제측면에서 GDP per capita와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중요성을 높게 부여하였다.

Priority	High	<b>민주화</b> ■ 선거과정 및 다원화(9) ■ 정치참여(16)	<b>삶의 질</b> ■ 행복지수(16)	<b>법질서</b> ■ 공공질서(22)
	Medium	<b>소득*</b> ■ R&D지출(5)	<b>국제참여</b> ■ 기술적 접촉(22) ■ 경제적 통합(31) ■ 국제정치 참여(31) ■ 인적 교류(33)	<b>다문화공생사회</b> ■ 유학생 수(대학)(9) ■ 동등한 대우(27) ■ 외국인 대학생 수(32)
	Low	<b>자유화</b> ■ 법의 공정성 및 효력(27) ■ 집회시위권리(28) ■ 언론 및 신앙의 자유(29)	<b>분배</b> ■ GINI 계수(13) ■ 기회균등(22) ■ 남녀소득 비율(30)	<b>세계문화표준창출</b> ■ 영화생산량(7) ■ 도서생산량(8)
		Short	Mid	Long
		Term		

주: 소득의 하위지표 2개는 모두 강점으로 분류. 이중 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는 통제하기 어려움으로 정책변수에서 제외함.

## 6.2 한국의 약점 보완

- 10개 하위 부문들을 기간(Term: short, mid, long)과 중요성(Priority: low, medium, high)에 따라 Term-Priority Matrix를 제안한다.
- 한국의 약점 중 상대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분야(public sector)를 단기정책으로, 통제가 어려운 분야(private sector)를 장기정책으로 한다.
- Priority는 경제측면에서 GDP per capita와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중요성을 높게 부여하였다.

Priority	High	<b>법질서</b> ▪ 부패인지지도(28) ▪ 법질서 준수(29) ▪ 윤리경영(36)	<b>국제공헌</b> ▪ 국민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 <b>민주화</b> ▪ 정치문화(21) ▪ 정부의 역할(22)	<b>소득</b> ▪ E-readiness(17)
	Medium	<b>자유화</b> ▪ 개인자유도(32) ▪ 정치적 위험도(37)	<b>삶의 질</b> ▪ 인간개발지수(26)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6) ▪ 사회적 안전망(31)	<b>국제참여</b> ▪ 토폴점수(34)
	Low	<b>분배</b> ▪ 노사분쟁(35)	<b>다문화공생사회</b> ▪ 국가문화(39) ▪ 국제이민(38)	<b>세계문화표준창출</b> ▪ 방송국의 수(19) ▪ 일간신문발행부수(21)
		Short	Mid	Long
		Term		

주: 소득의 하위지표 2개는 모두 강점으로 분류됨. 이중 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는 통제하기 어려움으로 정책변수에서 제외함.

## 6.3 중요성의 계산(강점강화)

- 아래 데이터는 GDP per capita와 각 sub-factor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2년(2008년, 2009년)평균치이다.
- 상관관계가 클수록 경제측면에서 선진화의 향상에 더 중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민주화	0.82	삶의 질	0.77	법질서	0.77
소득	0.73	국제참여	0.59	다문화공생사회	0.63
자유화	0.66	분배	0.52	국제문화표준창출	0.41

## 6.4 중요성의 계산(약점강화)

- 아래 데이터는 GDP per capita와 각 sub-factor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2년(2008년, 2009년)평균치이다.

- 상관관계가 클수록 경제측면에서 선진화의 향상에 더 중요하다. .

단기		중기		장기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법질서	0.77	국제공헌	0.91	소득	0.73
자유화	0.66	민주화	0.82	국제참여	0.59
분배	0.52	삶의 질	0.77	국제문화표준창출	0.41
		다문화공생사회	0.63		

## 6.5 결론

### (1) 종합적이며 체계적 분석방법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모델로 선진화를 측정했다. 국가그룹별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며, Term-Priority Matrix를 통해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2) 非선진국과 선진국과의 차이

비선진국은 경제보다 정치(민주와 자유), 사회(법질서), 문화(세계문화표준창출) 그리고 국제화(국제공헌) 부문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

### (3) NICs과 선진국과의 차이

선진국에 있어 경제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와 국제화의 선진화가 더 중요하고, 각 부문 간의 순위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NICs 국가는 기타 부문보다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문 간의 순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 (4) 한국과 선진국과의 차이

한국은 종합적으로 선진국과의 차이가 줄어들고(특히 경제, 사회, 문화부문) 있으나, 정치와 국제화 분야에서의 차이는 커지고 있다. 한국의 강점 분야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약점분야는 오히려 더 뒤떨어지고 있다.

###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강점 강화와 약점 보완전략이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점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화를 향상하는데 약점보완전략이 더 효율적이고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TP Matrix에서 제기한 전략적 방향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선진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선진화지수 2009

## 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 2009


### 문 휘 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경영/전략 교수  
전화 880-8518  
E-mail: cmoon@snu.ac.kr

한선재단  
2009. 9. 23

1

## 목차

-  1 선진화란...
- 2 선진화 측정방법
  - 평가모델
  - 평가지표
  - 평가대상국
- 3 국가선진화지수 2009 결과분석
  - 종합순위 변동 및 분석
  - 부문별순위 변동 및 분석
  - 아시아 주요국의 선진화 구조 비교
- 4 한국의 선진화 구조 분석
  -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현황
  - 한국의 강·약점 파악
  - 한국의 선진화 수준 향상 전략방향 제시(Term-Priority Matrix)
- 5 결론

## 선진화란...

### 1. 경제적 접근법

- WB (World Bank)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 경쟁력 접근법

-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WEF (World Economic Forum)
- 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 3. 정치적 접근법

- UN (United Nations)

### 4. 행복적 접근법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NEF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 WDH (World Database of Happiness)

### 5. 종합적 접근법

- 한반도 선진화재단
- 박세일(2008)

### 6. 본 연구의 접근법

- 종합적 접근법
- 대분류와 중분류
- 측정변수 선정

3

## 목차

### 1 선진화란...



### 2 선진화 측정방법

- 평가모델
- 평가지표
- 평가대상국

### 3 국가선진화지수 2009 결과분석

- 종합순위 변동 및 분석
- 부문별순위 변동 및 분석
- 아시아 주요국의 선진화 구조 비교

### 4 한국의 선진화 구조 분석

-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현황
- 한국의 강·약점 파악
- 한국의 선진화 수준 향상 전략방향 제시(Term-Priority Matrix)

### 5 결론

4



## 평가 모델



- 본 연구에서 국가선진화지수 (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화의 5개 부문, 10개의 중분류, 40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눔(참고: 작년의 평가지표는 55개임).
- 각 평가항목을 0부터 100사이의 수치로 표준화한 후 종합하여 국가선진화지수를 도출함.

주: () 안의 숫자는 평가지표의 개수임.

5

## 평가지표: 경제측면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소득	1.1.1	1인당 국민소득	미국달러	통계지표	World Bank
	1.1.2	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	1인당 국민소득 x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통계지표	World Bank
	1.1.3	R&D 지출	GDP에서 차지한 비중	통계지표	UNESCO
	1.1.4	E-readiness	점수	통계지표	EIU
분배	1.2.1	GINI 계수	점수	통계지표	UNDP
	1.2.2	남녀 소득비율	남자소득 대비 여자소득 비율	통계지표	UNDP
	1.2.3	노사분쟁	연간 비노동시간 (일수, 천명당)	통계지표	ILO
	1.2.4	기회균등	기회균등 관련 법률이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도	설문지표	IMD

6

## 평가지표: 정치측면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민주화	2.1.1	선거과정 및 다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 및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와 의회 대표선출</li> <li>공정한 선거법과 제도</li> </ul>	설문지표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1.2	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적인 정책 결정</li> <li>부패척결</li> <li>개방적이고 투명한 집행</li> </ul>	설문지표	
	2.1.3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정당의 설립 권리</li> <li>정당을 선택하는 자유권</li> <li>충분한 정치권과 선거권</li> </ul>	설문지표	
	2.1.4	정치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적인 정권교체</li> </ul>	설문지표	
자유화	2.2.1	언론 및 신앙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의 언론자유권</li> <li>신앙자유권</li> <li>학문자유권</li> <li>개방적이고 자유적인 개인간의 논의</li> </ul>	설문지표	Freedom House
	2.2.2	집회시위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회와 시위자유</li> <li>비정부조직의 자유권리</li> <li>노동조합의 자유조직 권리</li> </ul>	설문지표	
	2.2.3	법의 공정성 및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인 사법</li> <li>민사 및 형사소송에서의 공정성</li> <li>정치적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는 정도</li> <li>동등한 대우</li> </ul>	설문지표	
	2.2.4	개인자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 및 주거선택의 자유</li> <li>재산소유권</li> <li>배우자, 가정의 사이즈 등 개인의 사회적 권리</li> <li>경제적 착취의 부재</li> </ul>	설문지표	
	2.2.5	정치적 위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위험 정도</li> </ul>	설문지표	IMD

7

## 평가지표: 사회측면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법질서	3.1.1	법질서 준수	법질서 인식 및 준수 수준	설문지표	World Bank
	3.1.2	부패인지지수	공공부문의 부패인식 정도	설문지표	Transparency International
	3.1.3	윤리경영	기업의 윤리경영 정도	설문지표	IPS
	3.1.4	공공질서	시민이 공공질서 준수 정도	설문지표	IPS
삶의 질	3.2.1	인간개발지수	점수	통계지표	UNDP
	3.2.2	행복지수	점수	통계지표	New Economies Foundation
	3.2.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1인당	통계지표	UN Environment and Energy Statistics
	3.2.4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보장의 정도	통계지표	IPS

8



## 평가지표: 문화측면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다문화학생사회	4.1.1	동등한 대우	국내외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	설문지표	IPS
	4.1.2	국가문화	외국의 문화에 대한 개방 정도	설문지표	IMD
	4.1.3	외국인 대학생 수	100명당 외국인 대학생 수	통계지표	UNESCO
	4.1.4	유학생 수(대학)	1000명당 유학생 수	통계지표	
	4.1.5	국제이민(내향)	전체 인구에서 차지한 비중	통계지표	United Nations
세계문화유산지정률	4.2.1	도서생산량	총 타이틀 수	통계지표	UNESCO
	4.2.2	영화생산량	영화의 총 제작 수	통계지표	
	4.2.3	일간신문발행부수	백 만명 당 타이틀의 수	통계지표	
	4.2.4	방송국의 수	라디오와 TV를 포함	통계지표	

9

## 평가지표: 국제화측면

중분류	지표		설명	데이터 종류	데이터 출처
국제참여	5.1.1	경제적 통합	무역, 해외직접투자	통계지표	A.T. Kearny
	5.1.2	인적 교류	국제전화 통화량, 해외 여행, 송금 및 국외이동	통계지표	
	5.1.3	기술적 접촉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호스트 수, 안전서버 수	통계지표	
	5.1.4	국제정치 참여	참여 국제기구 수, 유엔 평화활동 관련지원, 국제계약	통계지표	
	5.1.5	영어능력	토플 IBT 점수	통계지표	ETS
국제 공헌	5.2.1	국민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	%	통계지표	OECD

10

## 평가대상국

- 국가선진화지수 OECD 30개국과 Non-OECD 10개 국가(또는 경제주체)를 포함함.
- Non-OECD국가는 IMD, WEF, 그리고 IPS 3개 주요 경쟁력 연구기관들의 최근 보고서의 상위 40위에서 최소한 두 번 이상 언급되었던 10개 Non-OECD 국가들로 구성되었음.

### OECD 국가

1 Australia	16 Korea
2 Austria	17 Luxembourg
3 Belgium	18 Mexico
4 Canada	19 Netherlands
5 Czech Republic	20 New Zealand
6 Denmark	21 Norway
7 Finland	22 Poland
8 France	23 Portugal
9 Germany	24 Slovak Republic
10 Greece	25 Spain
11 Hungary	26 Sweden
12 Iceland	27 Switzerland
13 Ireland	28 Turkey
14 Italy	29 United Kingdom
15 Japan	30 United States

### Non-OECD 국가

- 본 연구에서 국가는 정치적 실체 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주체도 포함함.

1 Chile
2 China
3 Estonia
4 Hong Kong
5 Israel
6 Kuwait
7 Malaysia
8 Singapore
9 Taiwan
10 Thailand

11

## 대표적인 지표 소개

12

## E-readiness

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IBM의 "e-readiness"는 7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그 능력을 사회와 경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함. 이는 6개 분야의 100 여 개 통계 및 설문 지표를 통하여 측정하고, 각 분야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를 산출함.

### E-readiness의 6개 구성요소

#### Connectivity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20%)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s and businesses can access mobile networks and the Internet, and their ability to access digital services through means such as digital identity cards

#### Legal environment (10%)

Legal frameworks tha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to inform, communicate and transact business, and laws governing internet use

#### Business environment (15%)

Measuring the general business climate by using the criteria such as the strength of the economy, political stability, taxation, competition policy, the labor market, and openness to trade and investment

#### Government policy and vision (15%)

The activities of governments in the area of related activities and the ability to lead their countries towards a digital future

####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15%)

Literacy and basic education, e-literacy (experience of using Internet and receptivity to it) and the technical skills of the workforce

#### Consumer and business adoption (25%)

The actual utilization of digital channels by people and companies

Source: EIU (2008)

13

## Democracy Index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Democracy Index의 세부 설문항목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11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e elec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ead of government free/fair?</li> <li>Are municipal elections both free and fair</li> <li>Is there universal suffrage for all adults?</li> <li>Can citizens cast their vote free of significant threats to their security from state or non-state bodies?</li> <li>Do laws provide for broadly equal campaign opportunities?</li> <li>Is the process of financing political parties transparent and generally accepted?</li> <li>Are co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orderly transfer of power from one government to another clear, established and accepted?</li> <li>A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parties that ar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li> <li>Do opposition parties have a realistic prospect of achieving government?</li> <li>Is potential access to public office open to all citizens?</li> <li>Are citizens free to form political and civic organizations, free of state interference and surveillance?</li> </ul>
Functioning of government (15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o freely elected representatives determine government policy?</li> <li>Is the legislature the supreme political body, with a clear supremacy over other branches of government?</li> <li>Is there an effectiv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on the exercise of government authority?</li> <li>Government is free of undue influence by the military or the security services</li> <li>Foreign powers do not determine important government functions or policies</li> <li>Special economic, religious or other powerful domestic groups do not exercise significant political power, parallel to democratic institutions?</li> <li>Are sufficient mechanisms and institutions in place for assuring government accountability to the electorate in between elections?</li> <li>Does the government's authority extend over the full territory of the country?</li> <li>Is functioning of government open and transparent, with sufficient public access to information?</li> <li>How pervasive is corruption?</li> <li>Is the civil service willing and capable of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y?</li> <li>Popular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free choice and control over their lives</li> <li>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li> <li>Public confidence in political parties</li> </ul>

14

## Democracy Index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Democracy Index의 세부 설문항목

Political participation (9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ter participation/turn-out for national elections</li> <li>▪ Do ethnic, religious and other minorities have a reasonable degree of autonomy and voice in the political process?</li> <li>▪ Women in parliament (% of members of parliament who are women)</li> <li>▪ Ext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Membership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li> <li>▪ Citizens' engagement with politics</li> <li>▪ The preparedness of population to take part in lawful demonstrations</li> <li>▪ Adult literacy</li> <li>▪ Extent to which adult population shows and interest in and follows politics in the news</li> <li>▪ The authorities make a serious effort to promote political participation</li> </ul>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8개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 there a sufficient degree of societal consensus and cohesion to underpin a stable, functioning democracy?</li> <li>▪ Perceptions of leadership;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desires a strong leader who bypasses parliament and elections</li> <li>▪ Perceptions of military rul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would prefer military</li> <li>▪ Perceptions of rule by experts or technocratic government;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would prefer rule by experts or technocrats</li> <li>▪ Perception of democracy and public order;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believes that democracies are not good at maintaining public order</li> <li>▪ Perception of democracy and the economic system;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believes that democracy benefits economic performance</li> <li>▪ Degree of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li> <li>▪ There is a strong tradition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li> </ul>

15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list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또는 지역)와 다국적발전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에 제공하는 지원을 가리킴.
- 구체적으로 ODA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을 만족함.

1. ODA의 기부자: 공공기관, 주, 그리고 지방정부 또는 그들의 집행기관 (official agencies, includ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y their executive agencies)
2. 거래(transaction)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1)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추진이 주요목적이어야 함(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its main objective)
  - 2) 讓與의 특징을 가져야 하고 최소 25%의 grant element\*\*를 양도해야 함(concessional in character and conveys a grant element<sup>1</sup> of at least 25 per cent)

주: \* DAC는 OECD가 1961년에 설립한 산하기관이며, DAC Statistics는 정책입안자들이 협력발전의 수요를 충족하고 기부자들의 기부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grant element: calculated at a rate of discount of 10%

16

## 목차

### 1 선진화란...

### 2 선진화 측정방법

- 평가모델
- 평가지표
- 평가대상국



### 3 국가선진화지수 2009 결과분석

- 종합순위 변동 및 분석
- 부문별순위 변동 및 분석
- 아시아 주요국의 선진화 구조 비교

### 4 한국의 선진화 구조 분석

-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현황
- 한국의 강·약점 파악
- 한국의 선진화 수준 향상 전략방향 제시(Term-Priority Matrix)

### 5 결론

## 국가선진화지수 2009 종합순위

국가	2009	2008	변동
Sweden	1	1	0
Denmark	2	3	1
Norway	3	6	3
Luxembourg	4	2	-2
Netherlands	5	4	-1
Switzerland	6	5	-1
Finland	7	8	1
Ireland	8	9	1
Austria	9	7	-2
Australia	10	10	0
Canada	11	11	0
Germany	12	13	1
United Kingdom	13	12	-1
New Zealand	14	14	0
France	15	16	1
Iceland	16	17	1
United States	17	15	-2
Belgium	18	18	0
Singapore	19	20	1
Hong Kong	20	19	-1

국가	2009	2008	변동
Japan	21	21	0
Spain	22	22	0
Israel	23	23	0
Portugal	24	24	0
Czech Republic	25	25	0
Taiwan	26	28	2
Estonia	27	26	-1
Italy	28	27	-1
Korea	29	30	1
Slovak Republic	30	32	2
Hungary	31	29	-2
Greece	32	31	-1
Chile	33	34	1
Poland	34	33	-1
Malaysia	35	36	1
Thailand	36	38	2
Mexico	37	35	-2
Kuwait	38	40	2
Turkey	39	37	-2
China	40	39	-1



## 국가선진화지수 2009 종합순위: 그룹분석

- Cluster Analysis를 통해 40개 국가의 국가선진화지수 2009를 강, 중, 약 3개 그룹으로 분류함.
- 각 그룹의 국가를 다시 2008년 대비 순위변동에서 상위 25%의 국가를 Advancer로, 하위 25%의 국가를 Lagger로, 나머지 국가를 Ordinary로 분류함.
- 위의 2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3X3 table를 작성함.

	Advancer	Ordinary	Lagger
Str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rway (+3)</li> <li>Denmark (+1)</li> <li>Finland (+1)</li> <li>Ireland (+1)</li> <li>Germany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eden (0)</li> <li>Australia (0)</li> <li>Canada (0)</li> <li>New Zealand (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therlands (-1)</li> <li>Switzerland (-1)</li> <li>United Kingdom (-1)</li> <li>Luxembourg (-2)</li> <li>Austria (-2)</li> </ul>
Intermedi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iwan (+2)</li> <li>France (+1)</li> <li>Iceland (+1)</li> <li>Singapore (+1)</li> <li>Korea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lgium (0)</li> <li>Japan (0)</li> <li>Portugal (0)</li> <li>Czech Republic (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ong Kong (-1)</li> <li>Estonia (-1)</li> <li>Italy (-1)</li> <li>United States (-2)</li> </ul>
We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lovak Republic (+2)</li> <li>Thailand (+2)</li> <li>Kuwait (+2)</li> <li>Chile (+1)</li> <li>Malaysia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reece (-1)</li> <li>Poland (-1)</li> <li>China (-1)</li> <li>Hungary (-2)</li> <li>Mexico (-2)</li> <li>Turkey (-2)</li> </ul>

19

## 국가선진화지수 부문별순위 변동

### 경 제 측 면

순위	국가	변동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0	21	Israel	-4
2	Norway	7	22	Korea	5
3	Finland	3	23	Slovak Republic	5
4	Luxembourg	-2	24	Czech Republic	-1
5	Switzerland	-1	25	Belgium	-3
6	Japan	1	26	Portugal	3
7	Denmark	-4	27	Kuwait	-2
8	Hong Kong	0	28	Estonia	-4
9	Australia	4	29	Iceland	5
10	Netherlands	0	30	Hungary	-4
11	Singapore	-6	31	Poland	0
12	Austria	-1	32	Greece	-2
13	United States	-1	33	China	2
14	Germany	2	34	Spain	-1
15	Ireland	-1	35	Italy	-3
16	Taiwan	-1	36	Malaysia	1
17	France	2	37	Thailand	-1
18	New Zealand	2	38	Mexico	2
19	United Kingdom	2	39	Chile	0
20	Canada	-2	40	Turkey	-2

### 정 치 측 면

순위	국가	변동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0	21	Czech Republic	-2
2	Iceland	0	22	Belgium	0
3	Norway	1	23	Japan	2
4	Netherlands	-1	24	Italy	3
5	Finland	2	25	Estonia	-1
6	Denmark	-1	26	Greece	-3
7	Luxembourg	-1	27	Korea	-1
8	Switzerland	1	28	Israel	3
9	Australia	1	29	Taiwan	0
10	Canada	-2	30	Slovak Republic	-2
11	New Zealand	2	31	Poland	1
12	Ireland	-1	32	Hungary	-2
13	Germany	1	33	Hong Kong	0
14	Austria	-2	34	Mexico	0
15	United States	0	35	Singapore	0
16	Spain	2	36	Thailand	2
17	United Kingdom	0	37	Malaysia	0
18	France	3	38	Turkey	-2
19	Chile	1	39	Kuwait	0
20	Portugal	-4	40	China	0

20

## 국가선진화지수 부문별순위 변동

### 사 회 측 면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0
2	Switzerland	1
3	Denmark	-1
4	Austria	0
5	Netherlands	0
6	Singapore	5
7	Iceland	-1
8	Finland	4
9	New Zealand	-1
10	Norway	-3
11	Canada	4
12	Australia	-3
13	Hong Kong	0
14	Belgium	-4
15	United Kingdom	-1
16	Ireland	3
17	Germany	-1
18	France	0
19	Luxembourg	1
20	Japan	-3

순위	국가	변동
21	Israel	2
22	Spain	0
23	Taiwan	3
24	Portugal	0
25	Italy	0
26	United States	-5
27	Korea	0
28	Chile	3
29	Poland	4
30	Slovak Republic	2
31	Czech Republic	-3
32	Greece	-3
33	Hungary	-3
34	Estonia	3
35	China	0
36	Malaysia	-2
37	Thailand	-1
38	Kuwait	1
39	Mexico	-1
40	Turkey	0

### 문 화 측 면

순위	국가	변동
1	United States	1
2	Germany	5
3	Luxembourg	-2
4	United Kingdom	0
5	Singapore	5
6	Switzerland	-3
7	Hong Kong	1
8	Canada	1
9	Sweden	-3
10	Australia	1
11	Norway	1
12	New Zealand	1
13	Japan	1
14	France	-9
15	Finland	6
16	Ireland	2
17	Israel	-1
18	Denmark	2
19	Spain	3
20	Austria	-5

순위	국가	변동
21	Netherlands	-4
22	Estonia	-3
23	Kuwait	6
24	Italy	-1
25	Korea	2
26	Belgium	-2
27	Czech Republic	1
28	China	-3
29	Slovak Republic	2
30	Taiwan	3
31	Iceland	-1
32	Turkey	-6
33	Hungary	-1
34	Portugal	0
35	Greece	0
36	Poland	1
37	Thailand	1
38	Malaysia	2
39	Chile	0
40	Mexico	-4

21

## 국가선진화지수 부문별순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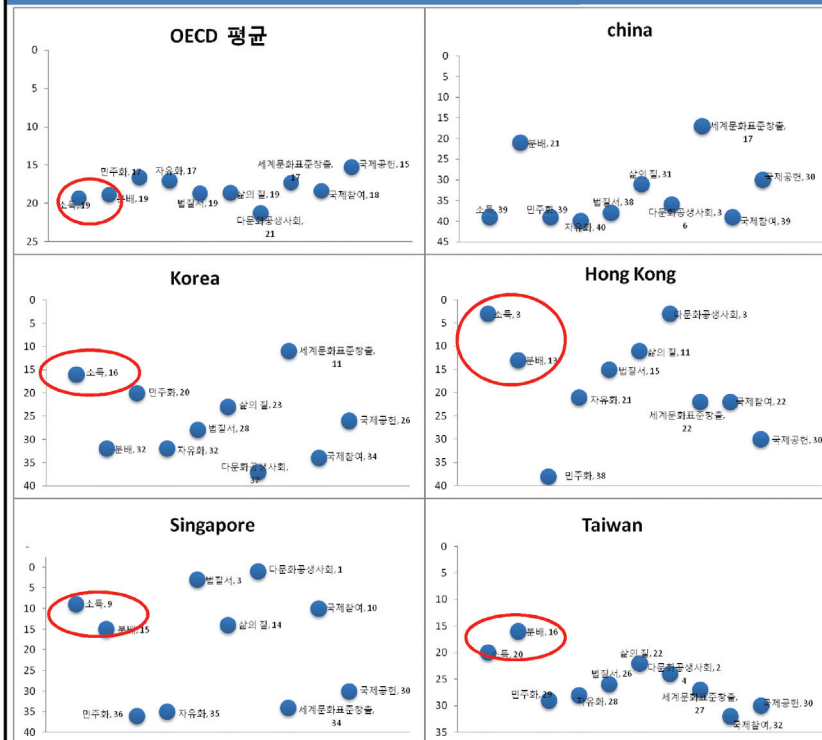
### 국 제 화 측 면

순위	국가	변동
1	Sweden	1
2	Denmark	1
3	Netherlands	1
4	Luxembourg	-3
5	Norway	0
6	Ireland	0
7	United Kingdom	2
8	Belgium	0
9	Austria	-2
10	Switzerland	0
11	Canada	1
12	Finland	-1
13	Australia	0
14	France	1
15	Spain	3
16	Germany	1
17	New Zealand	-3
18	Iceland	-2
19	Portugal	1
20	Czech Republic	3

순위	국가	변동
21	Singapore	1
22	Estonia	-3
23	United States	2
24	Hungary	0
25	Italy	1
26	Greece	2
27	Slovak Republic	0
28	Israel	-7
29	Hong Kong	0
30	Japan	3
31	Malaysia	0
32	Poland	-2
33	Korea	-1
34	Chile	0
35	Taiwan	0
36	Mexico	1
37	Turkey	-1
38	Thailand	0
39	China	0
40	Kuwait	0

22

## 아시아 주요국의 선진화 구조 비교



- OECD국가의 각 부문별 평균순위를 보면 소득과 분배가 선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님.
- 그러나 모든 NICs 국가들은 기타 부문보다 소득과 분배를 포함한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짐.
- OECD는 선진화를 구성한 여러 부문들 간의 순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NICs는 차이가 큼.
- 중국은 분배와 국제문화표준출에서 큰 우위를 갖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성격과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임.

23

## 목차

1

선진화란...

2

선진화 측정방법

- 평가모델
- 평가지표
- 평가대상국

3

국가선진화지수 2009 결과분석

- 종합순위 변동 및 분석
- 부문별순위 변동 및 분석
- 아시아 주요국의 선진화 구조 비교



4

한국의 선진화 구조 분석

-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현황
- 한국의 강·약점 파악
- 한국의 선진화 수준 향상 전략방향 제시(Term-Priority Matrix)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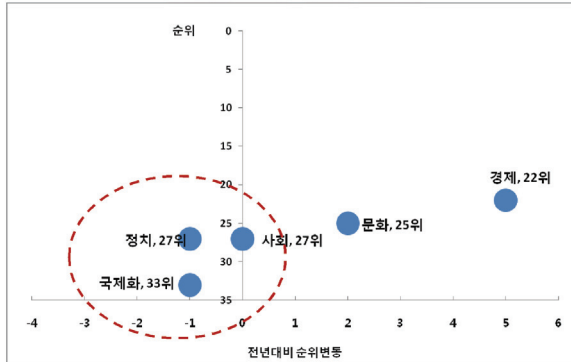
결론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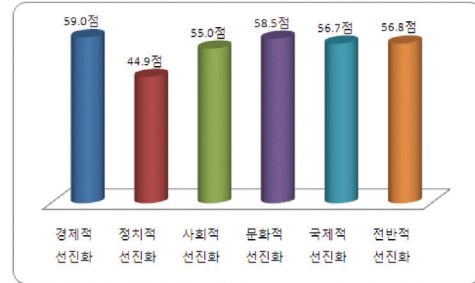


## 한국의 5개 부문별 경쟁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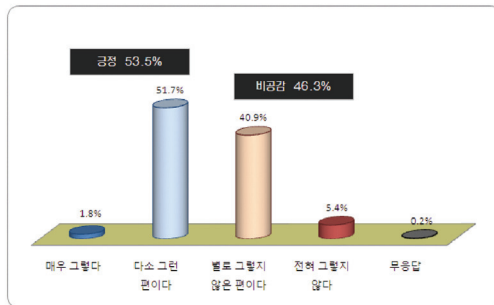
본 연구 측정 결과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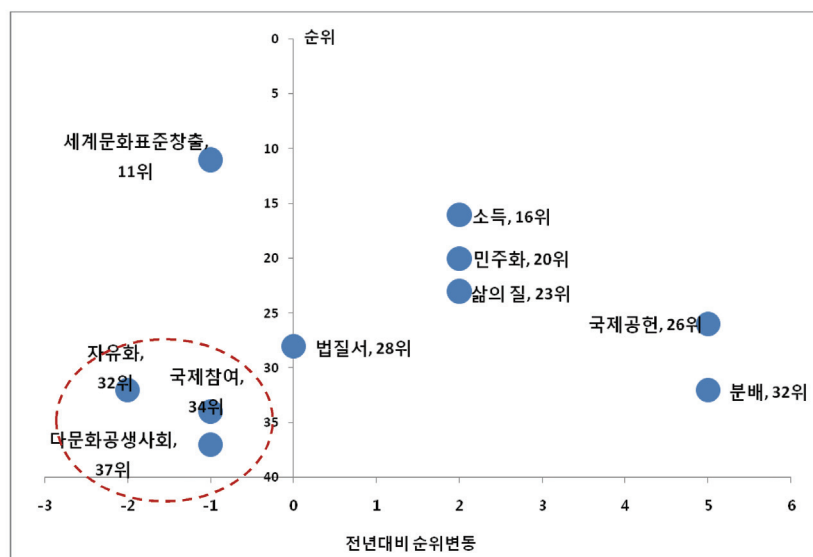


- 한국의 선진화 구조에 대해서 본 연구의 측정결과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와 문화**는 높게 평가된 반면 **정치, 사회, 국제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진화종합지수 순위는 전년대비 1위 향상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긍정적인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일맥상통함.



25

## 한국의 10개 부문별 경쟁력 순위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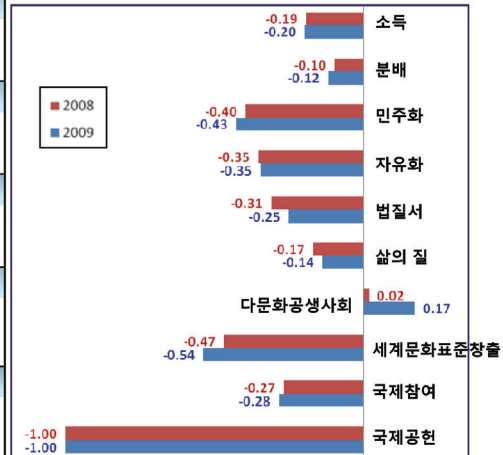


26

## 전체모델 해석: OECD와 Non-OECD 비교

항목	OECD (1)	Non- OECD (2)	(2)-(1) (1) (09년)	(2)-(1) (1) (08년)
NAI	56.42	39.62	-0.30	-0.31
경제	52.80	44.74	-0.15	-0.14
소득	45.06	36.16	-0.20	-0.19
분배	60.55	53.32	-0.12	-0.10
정치	78.53	48.41	-0.38	-0.37
민주화	71.65	41.00	-0.43	-0.40
자유화	85.41	55.82	-0.35	-0.35
사회	64.06	51.68	-0.19	-0.24
법질서	62.39	46.70	-0.25	-0.31
삶의 질	65.74	56.65	-0.14	-0.17
문화	36.57	30.95	-0.15	-0.22
다문화공생사회	39.62	46.41	0.17	0.02
세계문화표준창출	33.52	15.49	-0.54	-0.47
국제화	50.15	22.33	-0.55	-0.54
국제참여	62.41	44.67	-0.28	-0.27
국제공헌	37.89	0.00	-1.00	-1.00

Non-OECD가 우위를 가진 분야  
Non-OECD가 특히 열위를 가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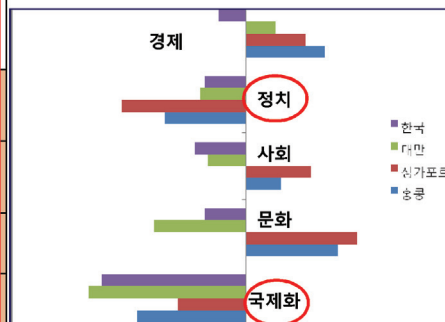
- OECD에 비해 Non-OECD는 다문화공생사회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뒤떨어져 있음.
- 특히, 세계문화표준창출과 국제공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Non-OECD는 2008년에 비해 법질서와 삶의 질에서 차이가 줄어든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그 차이는 모두 늘어났음.

27

## 전체모델 해석: 아시아 '4마리 용'의 선진화 분석

2009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OECD 평균	52.80	78.53	64.06	36.57	50.15
한국	-0.10	-0.15	-0.19	-0.15	-0.53
대만	0.11	-0.17	-0.14	-0.34	-0.58
싱가포르	0.22	-0.46	0.24	0.41	-0.25
홍콩	0.29	-0.30	0.13	0.34	-0.40

NICs가 특히 열위를 가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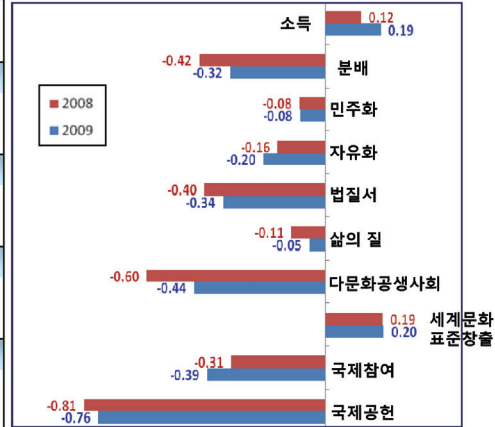
- 홍콩과 싱가포르는 정치와 국제화(특히 '국제공헌' 부문)에서 OECD보다 뒤떨어지는 반면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우위를 가지고 있음.
- 대만은 경제에서만 OECD보다 높은 반면 한국은 5개 분야에서 모두 OECD보다 뒤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5개 분야에서 OECD와 보이는 차이는 대체적으로 대만보다 작음.

28

##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 OECD평균과의 비교

국가	OECD (1)	한국 (2)	(2)-(1) (1) (09년)	(2)-(1) (1) (08년)
NAI	56.2	44.2	-0.22	-0.24
경제	52.80	47.50	-0.10	-0.19
소득	45.06	53.56	0.19	0.12
분배	60.55	41.45	-0.32	-0.42
정치	78.53	66.90	-0.15	-0.12
민주화	71.65	65.88	-0.08	-0.08
자유화	85.41	67.93	-0.20	-0.16
사회	64.06	51.83	-0.19	-0.25
법질서	62.39	41.18	-0.34	-0.40
삶의 질	65.74	62.49	-0.05	-0.11
문화	36.57	31.23	-0.15	-0.22
다문화공생사회	39.62	22.32	-0.44	-0.60
세계문화표준창출	33.52	40.15	0.20	0.19
국제화	50.15	23.53	-0.53	-0.50
국제참여	62.41	37.87	-0.39	-0.31
국제공헌	37.89	9.18	-0.76	-0.81

- 한국이 우위를 가진 분야
- 한국이 특히 열위를 가진 분야



- 한국은 소득과 세계문화표준창출에서 OECD평균보다 우위를 보이는 반면 분배,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 국제참여와 국제공헌에서 OECD와 큰 열위를 보임.
- 2008년에 비해 한국의 **우위분야**인 소득, 세계문화표준창출에서 경쟁우위가 더 높아짐. 한편, 한국의 **열위분야**인 분배, 법질서, 다문화공생사회와 국제공헌에서 차이가 줄어들지만, 국제참여에서는 차이가 늘어났음.

29

## 한국의 강약점

- 해당 부문의 순위를 기준으로 각 하위 지표의 순위가 그보다 높으면 강점으로, 낮으면 약점으로 구분하였음.
- Blue box: 강점지표, Red box: 약점지표
- ( ) 안 숫자는 각 지표의 순위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b>소득 (16)</b>	<b>민주화 (20)</b>	<b>법질서 (28)</b>	<b>다문화공생사회(37)</b>	<b>국제참여(3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지출(5)</li> <li>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과정 및 다원화(9)</li> <li>정치참여(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질서(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학생 수(대학)(9)</li> <li>동등한 대우(27)</li> <li>외국인 대학생 수(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 접촉(22)</li> <li>경제적 통합(31)</li> <li>인적 교류(31)</li> <li>개인의 해외접촉(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eadiness *(17)</li> <li>1인당 국민소득 (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문화(21)</li> <li>정부의 역할(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인지수(28)</li> <li>법질서 준수*** (29)</li> <li>윤리경영 (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문화(39)</li> <li>국제이민(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폴점수(34)</li> </ul>
<b>분배 (32)</b>	<b>자유화 (32)</b>	<b>삶의 질(23)</b>	<b>세계문화표준창출(11)</b>	<b>국제공헌(2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INI 계수(13)</li> <li>기회균등(22)</li> <li>남녀 소득비율(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의 공정성과 효력** (27)</li> <li>연합 및 조직권리(28)</li> <li>언론 및 신앙자유(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지수(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생산량(7)</li> <li>도서생산량(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분쟁(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 자유화(32)</li> <li>정치적 위험도(3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개발지수(26)</li> <li>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6)</li> <li>사회적 안전망(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국의 수(19)</li> <li>일간신문발행부수(21)</li> </ul>	

주: \* E-readiness는 크게 connectivity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business environment,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legal environment, government policy and vision, consumer and business adoption 등 6개 요소로 구성되었음.

\*\* 자유화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인 rule of law는 법의 공정성과 효력을 측정함(independent judiciary, prevalence in civil and criminal matter, protection from political terror, equal treatment).

\*\*\* 법질서의 하위지표 중의 하나인 rule of law는 법질서 준수율의식과 수준을 측정함(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agents have confidence in and abide by the rules of society, and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contract enforcement, property rights, the police, and the courts, as well as the likelihood of crime and violence).

\*\*\*\* 본 연구의 평가대상국 총 40개 국 중에서 Non-OECD 10개 국과 OECD 국 Mexico의 점수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 29개 국 중에서 26위를 차지함으로써 ODA % GNI는 약점지표임(Estonia, Israel, Mexico, Taiwan, Thailand는 ODA를 제공하지만 통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0을 주었음)

30

## 본 연구와 설문조사 비교: 한국의 약점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약점

한국의 '선진국 비진입 이유'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오른쪽과 같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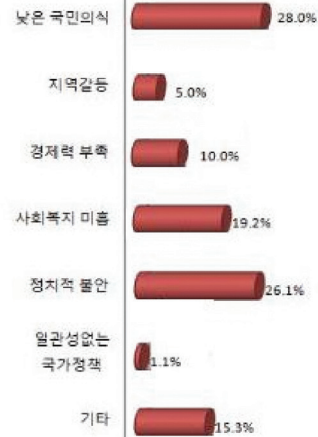
이 중에서 정치적 불안, 낮은 국민의식, 사회복지 미흡 등은 모두 본 연구의 약점에서 포함되었음.

예를 들면,

- 정치적 불안정은 자유화 하위 지표인 political risk
- 낮은 국민의식은 법질서의 하위 지표인 rule of law
- 사회복지 미흡은 삶의 질 하위 지표인 social safety net

에 각각 포함되어 있음.

### 설문조사



31

## 한국에 대한 정책제안(강점강화)

- 10개 하위 부문들을 기간(Term: short, mid, long)과 중요성(Priority: low, medium, high)에 따라 Term-Priority Matrix를 제한함.
- 한국의 강점 중 상대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분야(public sector)를 단기정책으로, 통제가 어려운 분야(private sector)를 장기정책으로 함.
- Priority는 경제측면에서 GDP per capita와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중요성을 높게 부여함.

Priority		Term		
		Short	Mid	Long
High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과정 및 다원화(9)</li> <li>▪ 정치참여(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li> <li>▪ 행복지수(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질서</li> <li>▪ 공공질서(22)</li> </ul>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지출(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참여</li> <li>▪ 기술적 접촉(22)</li> <li>▪ 경제적 통합(31)</li> <li>▪ 국제정치 참여(31)</li> <li>▪ 인적 교류(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공생사회</li> <li>▪ 유학생 수(대학)(9)</li> <li>▪ 동등한 대우(27)</li> <li>▪ 외국인 대학생 수(32)</li> </ul>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의 공정성 및 효력(27)</li> <li>▪ 집회시위권리(28)</li> <li>▪ 언론 및 신앙의 자유(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li> <li>▪ GINI 계수(13)</li> <li>▪ 기회균등(22)</li> <li>▪ 남녀소득 비율(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문화표준창출</li> <li>▪ 영화생산량(7)</li> <li>▪ 도서생산량(8)</li> </ul>

주: 소득의 하위지표 2개는 모두 강점으로 분류됨. 이중 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는 통제하기 어려움으로 정책변수에서 제외함.

32

## 한국에 대한 정책제안(약점보완)

- 10개 하위 부문들을 기간(Term: short, mid, long)과 중요성(Priority: low, medium, high)에 따라 Term-Priority Matrix를 제안함.
- 한국의 약점 중 상대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분야(public sector)를 단기정책으로, 통제가 어려운 분야(private sector)를 장기정책으로 함.
- Priority는 경제측면에서 GDP per capita와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중요성을 높게 부여함.

Priority	High	<b>법질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인지수(28)</li> <li>법질서 준수(29)</li> <li>윤리경영(36)</li> </ul>	<b>국제공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li> </ul> <b>민주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문화(21)</li> <li>정부의 역할(22)</li> </ul>	<b>소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readiness(17)</li> </ul>
	Medium	<b>자유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자유도(32)</li> <li>정치적 위험도(37)</li> </ul>	<b>삶의 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개발지수(26)</li> <li>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6)</li> <li>사회적 안전망(31)</li> </ul>	<b>국제참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플점수(34)</li> </ul>
	Low	<b>분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분쟁(35)</li> </ul>	<b>다문화공생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문화(39)</li> <li>국제이민(38)</li> </ul>	<b>세계문화표준창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국의 수(19)</li> <li>일단신문발행부수(21)</li> </ul>
		Short	Mid	Long

주: 소득의 하위지표 2개는 모두 강점으로 분류됨. 이중 1인당 국민소득 성장지수는 통제하기 어려움으로 정책변수에서 제외함.

33

## 중요성의 계산(강점강화)

- 아래 데이터는 GDP per capita와 각 sub-factor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2년(2008년, 2009년)평균치임.
- 상관관계가 클 수록 경제측면에서 선진화의 향상에 더 중요함.

단기		중기		장기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민주화	0.82	삶의 질	0.77	법질서	0.77
소득	0.73	국제참여	0.59	다문화공생사회	0.63
자유화	0.66	분배	0.52	국제문화표준창출	0.41

34



## 중요성의 계산(약점보완)

- 아래 데이터는 GDP per capita와 각 sub-factor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2년(2008년, 2009년)평균치임.
- 상관관계가 클 수록 경제측면에서 선진화의 향상에 더 중요함.

단기		중기		장기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Sub-factor	Corr.
법질서	0.77	국제공헌	0.91	소득	0.73
자유화	0.66	민주화	0.82	국제참여	0.59
분배	0.52	삶의 질	0.77	국제문화표준창출	0.41
		다문화공생사회	0.63		

35

## 목차

### 1 선진화란...

### 2 선진화 측정방법

- 평가모델
- 평가지표
- 평가대상국

### 3 국가선진화지수 2009 결과분석

- 종합순위 변동 및 분석
- 부문별순위 변동 및 분석
- 아시아 주요국의 선진화 구조 비교

### 4 한국의 선진화 구조 분석

-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현황
- 한국의 강·약점 파악
- 한국의 선진화 수준 향상 전략방향 제시(Term-Priority Matrix)



### 5 결론

36

## 결론

### ▪ 종합적이며 체계적 분석방법

기존연구를 종합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등 5개 분야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모델로 선진화를 측정하고, 국가그룹별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며, Term-Priority Matrix를 통해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함.

### ▪ 비선진국과 선진국과의 차이

비선진국은 경제보다 정치(민주와 자유), 사회(법질서), 문화(세계문화표준창출) 그리고 국제화(국제공헌)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음.

### ▪ NICs와 선진국과의 차이

선진국에 있어 경제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와 국제화의 선진화가 더 중요하고, 각 부문 간의 순위 차이가 크지 않음. 반면 NICs 국가는 기타 부문보다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문 간의 순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 한국과 선진국과의 차이

한국은 종합적으로 선진국과의 차이가 줄어들고(특히 경제, 사회, 문화부문) 있으나, 정치와 국제화 분야에서의 차이는 커지고 있음. 한국의 강점분야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약점분야는 오히려 더 뒤떨어지고 있음.

###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 강점강화와 약점보완전략이 있음.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점이 없어야 함. 따라서 한국의 선진화를 향상하는데 약점보완전략이 더 효율적이고 시급함. 구체적으로 TP Matrix에서 제기한 전략적 방향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선진화 수준을 높힐 수 있을 것임.

